청소년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軍의 협력방안 연구

– 최종보고서 –

2013. 10. 4.

성 우 회

목 차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목적
3. 연구의 이론적 배경
4. 연구 범위

제2장 現 나라사랑 정신 교육실태 파악 및 청소년 나라사랑 정신 분석

1. 초, 중, 고등학교에서의 나라사랑 교육 실태
2. 청소년의 나라사랑 정신 수준 분석
3. 4개국 청소년의 나라사랑 정신 비교

제3장. 주변국의 청소년 대상 나라사랑 정신 교육 사례

1. 미국의 청소년 대상 나라사랑 교육
2. 중국의 청소년 대상 나라사랑 교육
3. 일본의 청소년 대상 나라사랑 교육

제4장. 청소년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軍의 협력 방안

1. 기존 청소년 대상 나라사랑 교육 프로그램 분석
2. 청소년 대상 나라사랑 교육과 軍의 협력 방안
3. 나라사랑 교육의 효과 검증 방안

제5장. 결론

1. 청소년 대상 나라사랑 교육의 현대적 함의

참고문헌

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010년의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이후 실시된 다양한 연구에 따르면, 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장차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의 안보의식 수준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종북, 친북, 연북세력의 활동으로 인해 사회불안과 안보 불감증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나라의 존립을 위해서는 외부 및 내부 위협으로부터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는데, 나라사랑 정신에 근거하지 않은 통일교육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나라사랑 의식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최근 10여 년 동안 학교에서 통일교육 위주의 학교 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은 나라사랑 정신과 통일을 상반된 개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 의한 핵무기 개발과 남침 위협,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위험한 극우적 경향의 확산으로 인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황 급변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나라사랑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가관, 안보관, 통일관 교육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근대 이후 국가는 국민들에게 나라사랑 정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국가와 국민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을 지속적으로 기념하고, 이를 통해 국가나 사회의 집단기억을 정립시키는데 노력해 왔다. 이렇게 정립된 집단기억은 국가가 의도한 기본적 가치를 반영시킴으로써, 장차 '나라사랑 정신'으로 승화시켜야 하며, 이를 통해서 국가체제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필요한 수단으로서의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사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나라사랑 정신에 대한 교육 인프라와 콘텐츠는 실질적이지 못하며, 그 효과 역시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일부 확인되지 않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서는 '나라사랑 정신'을 왜곡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례도 다수 발견되고 있는 등 나라사랑 교육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사회, 그리고 군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軍은 유관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나라사랑 정신 함양 협력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군대가 청소년들에 대한 나라사랑 교육에 앞장서야 하는 이유는 미래 국가발전의 주축이 될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나라사랑 정신' 교육을 실시하는 것

이야 말로 미래의 국가안보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대로 된 나라사랑 교육이 될 수 있는 교육체계를 개발하고, 올바른 나라사랑 정신을 교육할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여 교육하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순국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과 철저한 안보의식의 중요성을 한층 고양시킬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나라사랑 정신은 한 국가가 공동체로 생존하는 과정에서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이념적 가치이며, 국가라는 조직체는 국가의 정체성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힘이라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이 목숨을 던져 국가를 수호하겠다는 의지가 없을 때 국가의 물리력은 결집될 수 없으며, 국가와 사회의 발전은 무망한 것이 될 것이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나라사랑 정신은 국민의 모든 국민정신을 하나로 묶어주는 접착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2013년의 대한민국이 IT산업의 강국답게 G-세대에 걸 맞는 건전한 청소년 안보의식 제고를 위해서는 학교 내부와 외부에서 실시되는 안보교육 실태를 분석하고,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다양한 나라사랑 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이들 교육에서 청소년의 국가안보와 국가정체성에 대한 인식 평가를 통하여 청소년의 나라사랑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태어나서 살고 있는 나라를 지켜내는 것은 가장 높은 단계의 나라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나라를 지키려는 숭고한 정신이야 말로 나라사랑 정신의 기본이며, 청소년들과 후손들에게 널리 강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근본적인 가치가 경시되어 왔는데, 심지어 국가를 위한 희생의 가치를 낮게 여기거나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느낄 줄 모르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개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10년 3월에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서 분노하는 국민들의 모습, 1997년에 IMF 파동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에 나섰던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는 애국심에 대한 가치가 살아 숨 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 국민, 특히 청소년들에게 나라사랑 정신을 일상적인 가치로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국가가 제도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나라사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나라사랑 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과 더불어 나라사랑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한 고민을 통한 교육 방법과 콘텐츠에 대한 점검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나라사랑 교육 프로그램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해법을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에서는 우리 국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나라사랑 교육을 전담할 '나라사랑 기념관'(가칭)의 설립을 제시할 것이다. 현재 통일교육, 양성평등교육, 평생교육 등은 별도로 남북청소년교육진흥원,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을 통해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나, 나라사랑 교육의 경우 별다른 전문기관이 없이 추진되고 있다.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나라사랑 교육 역시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나라사랑 교육을 전담할 기관에서는 전문자료, 강사, 교육과정 등을 개발하여 학교 등에 보급하는 한편, 청소년 외에도 일반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평생교육 측면에서도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영화, 드라마, 연극, 소설 등 문화 컨텐츠를 통한 접근은 기존의 딱딱하거나 지루하게 진행되어온 나라사랑 교육을 소프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3. 연구의 이론적 배경

청소년에 대한 나라사랑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를 위해서 군대가 나서서 해야 할 것을 모색하기 위한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은 바로 애국(愛國)이다. 애국심의 정의는 역사적 배경, 시대적 상황, 애국심의 대상 등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먼저 애국심(land of fathers)에서 'country'는 'terra patria (land of Fathers)'를 의미하며,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나고, 자라고 교육받고, 생계를 유지하고, 자손을 낳는 그러한 땅을 자연스럽게 사랑한다. 사람들이 자신이 태어난 땅에 대한 애착은 본능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자신이 태어난 곳, 즉 고향에 대한 자연스러운 사랑은 자연적 애국심(natural patriotism)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자연적 애국심의 가장 큰 특징은 땅에 대한 강한 애착이 지배적인 감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애국심에 대한 여러 정의에 따르면 애국심(Patriotism)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라틴어 'patria'에서 온 것으로 보아, 애국심의 개념이 고대사회에서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애국심(patriotism)은 'Patria'가 뜻하는 나라에 대한 마음가짐으로 이해 할 수 있는데, '애국심(愛國心)'을 말 뜻 그대로 풀어보면,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학 대사전』에서의 애국심은 '인간 본인이 소속된 국가에 대하여 지니는 애정 및 헌신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에 와서 여러 학자들은 애국심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애국심이 등장하는 역사적 배경에 따른 인식의 차이와 애국심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 어떻게 활용되고 어떠한 측면이 강조되어 왔는가에 따라 차이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4.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현행 다양한 기관에서 주도하고 있는 나라사랑 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서 청소년의 나라사랑 정신에 대한 의식을 분석할 것이다. 이어서 외국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서 미국, 중국, 일본의 나라사랑 교육을 소개할 것이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나라사랑 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군대가 협력 및 협조해야 할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군대가 담당해야 할 역할과, 학교 및 지자체 등과 협력해야 할 범위를 제시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와 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헌 연구가 실시될 것이다. 반면 각종 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나라사랑 정신 교육 자료 및 콘텐츠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방문조사, 인터뷰, 설문 등이 병행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현재 실시 중인 나라사랑 교육 실태를 파악하고, 다양한 청소년 대상 나라사랑 정신 프로그램을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조사들은 군대가 효과적인 나라사랑 교육의 진행을 위해서 무엇을 지원하고,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Ⅱ. 現 나라사랑 교육 실태 파악 및 청소년 나라사랑 교육 분석

1. 초, 중, 고등학교의 나라사랑 교육 실태

가.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나라사랑 및 호국정신 교육 현황

1) 국가에 대한 애국심

바른 생활 교과서를 집에 비유한다면, 태극기는 집의 대문에 있는 문패라 할 수 있다. 초등학교 3~6학년 도덕 교과서는 외형 체제상 첫 페이지에 태극기, 국기에 대한 맹세 등이 기본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반면, 초등학교 1, 2학년의 바른 생활 교과서에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물론 바른 생활에서 태극기, 국기에 대한 맹세에 관한 내용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1학년 2학기 바른 생활 “6. 사랑해요, 우리나라” 단원에서는 태극기, 애국가, 무궁화 등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것들에 관한 학습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바른 생활 교과의 성격을 살펴보면 바른생활과는 개인 생활과 사회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 습관, 예절, 규범을 알고 익히도록 하는 체험과 실천을 중심으로 구성된 통합 교과로,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도록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생활 습관, 예절, 규범을 학생의 생활 경험과 관련하여 학습 내용으로 선정하며 내 일 스스로 하기, 예절 지키기, 다른 사람 생각하기, 질서 지키기, 나라 사랑하기의 다섯 가지 대주제로 구성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바른 생활 교과서가 민주 시민 적 자질과 나라사랑의 태도를 함양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 집이라면, 문패로서 ‘태극기’는 학생들의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올바른 나라사랑의 태도를 함양토록 하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바른 생활 교과서는 도덕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외형 체제상 첫 페이지에 태극기, 국기에 대한 맹세를 제시하여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와 국기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호국 및 보훈의식

가) 전쟁 중에 단지 ‘죽거나 다쳤다’는 식으로만 서술

한편 現 초등학교 교과서는 6·25전쟁에서 희생한 전몰장병과 참전용사들에 대해 몰가치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우를 범하고 있다. 우선 사회 교과서에서는 6·25전쟁에 참여했던 국군과 국제연합군, 학도병들에 대하여 단순히 ‘전쟁 중에 죽거나 다쳤다’식의 가치중립적인 역사적 사실로만 서술하고 있다. 교과서의 서술은 마치

신문의 기사처럼 사실과 정보만 전달될 뿐이며, 이러한 서술만으로는 초등학생들이 6·25전쟁의 전몰장병과 참전용사들의 죽음과 희생을 가치화하고, 충절을 추모하며 그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태도를 함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사회교과서에는 국립 현충원과 부산 유엔 기념공원에 세워진 유엔군 전몰장병 추모명비' 사진이 제시되어 있지만, 이 사진들에 대한 보조적인 설명이 제시되지 않아 전몰장병들에 대한 추모, 감사와 존경에 관한 학습을 깊이 있게 이끌어내기에는 불충분하다. 따라서 초등학생들이 6·25전쟁에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전몰장병과 참전용사들에 대하여 그들의 죽음과 희생의 가치를 가슴깊이 되새기고 충절을 추모하며 감사와 존경의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서술내용으로 개선함이 바람직하다.

"많은 국제 연합군이 전쟁 중에 사망하였고, 또 국제 연합의 많은 회원국들은 전쟁 물자와 의료 지원 등 많은 도움을 주었다.(사회5-2, 교육과학기술부, p. 106)"

"전쟁이 길어지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에 동원되었고, 이들 중 상당수가 죽거나 다쳤다.(사회5-2, 교육과학기술부, p. 107)"



○ 국립 현충원 ○ 부산 유엔 기념 공원에 세워진 유엔군 전몰장병 추모명비

[5-2 사회 교과서의 '국립현충원'과 '부산유엔기념공원에 세워진 유엔군 전몰장병 추모명비' 사진 자료]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들만 전장에서 싸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대부분이 피해를 입게 된다. 나이 어린 학생들도 예외가 될 수는 없었다. 6·25전쟁은 남녀 구분 없이 수많은 학생들을 전장에 끌어들였고, 그중 다수가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하였다.(사회5-2, 교육과학기술부, p. 108)"

나) 현충일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내용 미흡

현충일에 대하여 단지 '국기 다는 날'을 알아보는 내용에서 언급되고 있거나 국립 현충원 과 같은 용어에서 '현충'이라는 단어가 제시되고 있을 뿐, 현충일의 의미를 알아보고 순국선열의 넋을 위로하며 충절을 추모하도록 하는 내용이 미흡하다.

초등학교 1,2학년 바른 생활 교과서에는 현충일이 언급되지 않으며 생활의 길잡이 1-2 교과서 에서 단지 국기 다는 날을 알아보는 내용에서 '현충일'이 그림과 함께 1회 제시되고 있다. 초등학교 3~6학년 도덕 교과서에는 현충일이 언급되지 않는다. 다만 생활의 길잡이 3-1의 '5.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단원에서 국기를 게양하는 날을 확인하는 내용에서 '현충일'이란 용어가 1회 제시되고 있다. 초등학교 3~6학년 사회 교과서에는 현충일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있다. 다만 사회

5-2에서 6·25전쟁에 관하여 학습하는 내용 가운데,‘국립 현충원’과 ‘부산 유엔 기념공원에 세워진 유엔군 전몰장병 추모명비’가 사진으로 제시되는 가운데 ‘현충’이라는 제시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사진을 가치화할 수 있는 보조적인 설명이 부재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교과서는 특히 나라사랑과 관련되는 단원 및 학습주제에 있어서는 현행 교과서와 같이 단지 국기 다는 날로서 ‘현충일’이 제시될 것이 아니라, 현충일 및 현충의 의미를 알아보고 순국선열의 넋을 위로하며 충절을 추모하고 호국보훈의 정신을 가치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다) 사라지는 영웅들

현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연평해전의 해군용사, 천안함의 46용사, 북한의 연평도 폭격 시 용감하게 대처했던 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초등학교 분석대상 교과서에서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영웅들의 사례는 주로 일제강점기까지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6·25전쟁 및 그 이후의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영웅들의 내용 다루는 데 있어서는 소홀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초등학교 분석대상 교과서에서 분석해 본 바,첫째 우리나라를 빛낸 주요 인물로는 주로 세종대왕, 이순신, 유관순, 안중근 등의 위인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대표적 위인들이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경향이 있고, 둘째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영웅들의 사례는 주로 일제강점기까지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는 반면, 대한민국의 건국 이후 6·25전쟁과 그 이후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영웅들의 내용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소홀한 문제가 있다.

현행 교과서에서 6·25전쟁과 그 이후 현재까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영웅들에 관한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6·25전쟁과 관련해서는 전쟁 당시 팔만대장경을 보존하고자 힘썼던 김영환 대령, 바다에서 나라를 지킨 손원일 제독 이야기가 제시되고는 있지만, 이 외에는 6·25전쟁영웅 이야기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한편, 6·25전쟁 이후 잇따른 북한의 도발로부터 조국을 위해 희생 및 헌신한 영웅들의 사례를 담은 내용이 부재하거나 소홀한 측면이 있다. 2002년 연평해전에 관해서는 역사적 기록과 당시 조국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우고 희생 헌신한 해군 용사들의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는 첫째, 사회 6-2교과서에서는 ‘천안함 피격 사건’이 간략히 언급되고는 있으나, 이로 인해

순국한 46명의 용사들 및 희생 헌신한 분들에 관한 내용도 전혀 없다. 둘째, 6학년 생활의 길잡이 교과서에서는 故한주호 준위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면서 천안함 피격 사건이 설명되고 있지만 故한주호 준위의 책임과 희생정신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는 반면, 이 사건으로 순국한 46명의 용사들에 대해서는 단지 천안함 피격으로 인한 '실종 장병'내지 '전우' 정도로만 언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하여 사회 6-2교과서에 간략히 명시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미흡하며 이 사건에서 희생하고 헌신한 영웅들의 이야기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향후 교과서에서는 2002년 연평해전에 관한 역사적 기록과 순국한 6명의 해군용사 및 헌신한 영웅들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여 초등학생들이 그들의 애국심과 고귀한 희생정신을 가치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과 관련하여 故한주호 준위의 희생정신뿐만 아니라 순국한 46명의 해군 용사들에 대하여 현행 교과서와 같이 단지 '실종 장병' 혹은 '전우'로만 언급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애국심과 고귀한 희생정신을 숭고하게 되새겨 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순국 및 헌신한 용사들에 대하여서도 그들의 고귀한 희생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내용 보완해야 한다.

3) 올바른 역사관

가) '끔찍함'만 있고 '숭고함'은 없는 6·5전쟁으로 기술

> "전쟁이 길어지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에 동원되었고, 이들 중 상당수가 죽거나 다쳤다. 또 국토는 황폐해졌고, 건물, 도로, 철도, 다리 등이 파괴되어 복구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었다. 6·25전쟁은 남북한 모두에게 잊지 못할 상처를 남겼다.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는 일은 민족의 과제로 남겨졌다.(사회5-2, 교육과학기술부, p. 107)"
>
> "북한이 남한을 무력으로 침공하여 6·25전쟁이 일어났으나, 국군과 국제연합군의 반격으로 이를 저지하였으며, 전쟁의 결과 남과 북의 통일은 실패하였고 휴전선을 경계로 다시 둘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6·25 전쟁으로 국토는 황폐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이산가족이 발생하는 등 우리 민족은 큰 피해를 입었다.(사회 5-2, 교육과학기술부, p. 109)"

현행 사회 교과서는 6·25전쟁의 결과 및 평가와 관련하여 "6·25전쟁, 잊을 수 없는 상처", "전쟁과 분단의 고통"이라는 학습주제 아래 6·25전쟁의 고통, 즉 수많은 민간인의 죽음, 이산가족 및 전쟁고아 발생, 기반시설 파괴 등 민족의 고통스러운 결과들을 중심으로 하여 서술하고 있다.

물론 6·25전쟁이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전쟁임에 분명하고 이러

한 교과서 내용을 통하여 전쟁으로 인해 우리 민족이 겪게 된 고통을 자세히 알 수 있지만, 한편 6·25전쟁의 역사적 의의 즉, 6·25전쟁은 한반도를 적화하겠다는 결의에 찬 북한 전체주의자들의 공격으로부터 대한민국이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를 방어한 전쟁이었음을 포괄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교과서에서는 6·25전쟁의 결과 및 평가와 관련하여 전쟁과 분단의 고통만을 서술할 것이 아니라, 6·25전쟁은 한반도를 적화하겠다는 결의에 찬 북한 전체주의자들의 공격으로부터 대한민국이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를 방어한 전쟁이었음의 그 역사적 의의를 포괄한 서술로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나) 6·5전쟁을 "남한과 북한 사이에" 일어난 전쟁으로만 기술

>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뉜 이유를 알아보고 반성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 ①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물러가고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이했어요.
> ② 그러나 광복의 기쁨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우리나라가 힘이 약하고 주변 몇몇 나라들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여
> ③ 나라가 둘로 갈라질 위험에 놓이게 되었어요.
> ④ 여기에 더하여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에 새 나라를 만드는 데 대한 생각이 달라서 결국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지게 되었어요.
> ⑤ 그 후 남한과 북한 사이에 6·25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전쟁으로 인해 우리 민족은 큰 아픔을 겪었어요.
> ⑥ 휴전 이후 지금까지 통일을 이루기 위해 서로 노력해 왔지만 아직 하나가 되지는 못했어요.(도덕3-2, 교육과학기술부, p.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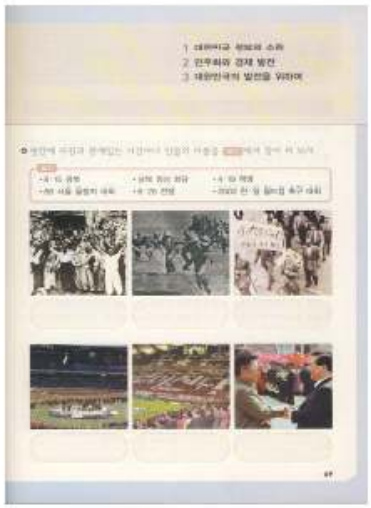
위의 서술에서 알 수 있듯이, 교과서 서술내용에는 6·25전쟁의 발발원인과 전개과정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6·25전쟁을 "남한과 북한 사이에"일어난 전쟁으로만 서술하고 있어 6·25전쟁이 언제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일어난 것인지, 누가 먼저 침략한 것인지 등을 초등학생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다) 대한민국 '건국'이 빠진 학습활동

빈 칸에 사진과 관계있는 사건이나 인물의 이름을 <보기>에서 찾아 써 보자.

<보기>
8·15 광복, 남북 정상 회담, 4·19 혁명,
88 서울 올림픽 대회, 6·25전쟁,
2002 한·일 월드컵 축구 대회

(사회과탐구5-2, 교육과학기술부, p. 69)



[5-2 사회과탐구 교과서의
'대한민국의 발전과 오늘의 우리'

해당 내용은 8·15광복,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그 이후 오늘날까지의 민주화와 경제 발전,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발전에 관하여 핵심적으로 다루게 될 내용들을 개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단원의 도입 부분 내용이다. 그러나 <보기>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에는 대한민국의 건국과정에 관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물론 사회 교과서에서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에 관한 내용을 다루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해당 페이지가 대한민국의 발전사에 있어 중요시 다루어져야 할 내용들을 개괄적이면서도 핵심적으로 살펴보는 학습내용인 만큼 <보기>에 대한민국의 정부수립과 건국에 관한 내용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3. 대한민국의 발전과 오늘의 우리
【단원 정리】 학습
· 다음 사진을 보고, 주어진 조건에 맞게 이야기로 꾸며 보자.

《조건》
1. 주어진 문장에 이어서 두 문장 이상씩 쓰기
2. 다음 용어는 한 번 이상 꼭 포함해서 쓰기

일제 강점기, 8·15 광복, 이산가족,
부정 선거, 독재 정치, 민주 정치,
4·19혁명, 5·18 민주화 운동

3. 이야기 속 주인공을 한 사람으로 정하여 쓰기

(사회과탐구5-2, 교육과학기술부, pp. 94-95)



[사회과탐구52 교과서의 '3. 대한민국의 발전과 오늘의 우리 단원정리' 그림 자료]

한편 위 단원의 도입 내용뿐만 아니라 단원의 정리학습에서도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과 건국에 관한 내용은 빠져 있다. 위의 단원정리 학습내용에서 볼 수 있듯,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에 있어 주요한 역사적 사건을 담은 주제로서 일제 강점기, 8·15광복, 이산가족, 부정 선거, 독재 정치, 민주 정치, 4·19혁명, 5·18민주화 운동을 꼽고 있는 반면,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과 건국에 관한 내용은 빠져 있다.

또한 단원 정리 학습에 제시되어 있는 주제들만으로는 초등학생들이 우리나라가 외세에 의해 나라를 잃고, 남북 분단의 슬픔을 겪었으며, 부정과 독재로 얼룩졌다는 등 '시련과 부정의 역사'만을 중요하게 기억할 우려가 있다. 반면, 우리나라가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자주독립을 외치고, 6·25전쟁에서 조국을 위해 목숨 바치고 희생하여 싸운 결과 우리나라의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를 지켜내었으며, 최빈국 수준에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해낸 점 등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임을 인식할 수 있는 '긍정의 역사'들은 외면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과 건국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국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점을 중요시 하고, 우리나라 역사에 대하여 나라 잃은 설움과 분단의 아픔, 부정과 독재로 얼룩진 역사만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는 '긍정의 역사'를 함께 기억하도록 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4) 안보의식

가) 휴전 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의 연계성 미약

> "이후 치열한 전투와 함께 한편에서는 전쟁을 끝내고자 하는 휴전 협상이 진행되었다. 오랜 협상 끝에 남과 북은 1953년 7월 휴전을 하였고, 맞서 싸우던 전선은 휴전선이 되어 남북은 다시 둘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휴전 협정 후 한반도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남북한을 비롯하여 미국, 소련, 중국 등 전쟁 관련국들이 참가한 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양측의 주장이 대립하면서 회의는 성과 없이 끝났고 휴전 상태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사회5-2, 교육과학기술부, p. 106)"
>
>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이 맺어지면서 3년 동안의 전쟁이 끝났다. 그러나 휴전이라는 형태로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언제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사회과탐구 5-2, 교육과학기술부, p. 76)"

현행 교과서는 6·25전쟁 이후 휴전 협정이 맺어졌고, 휴전했기 때문에 언제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안보적 상황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관해서만 서술하고 있는 반면,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에 관한 내용은 전혀 언급조차 없다. 따라서 향후 교과서에서는 6·25전쟁 이후 휴전 협정에 관해서만 다룰 것이 아니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게 되어 지금까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안정은 물론, 경제발전 등에 크게 이바지하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내용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군인과 북한의 군인이 서로 '총을 겨누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악수를 하는 것'을 선택함으로서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학습할 수는 있지만 이른바 '평화냐, 전쟁이냐'식의 이분법적 접근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북한 동포들과 평화적으로 교류하고 서로 남북이 악수를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지만, 한편 북한이 먼저 비상식적으로 우리나라를 향해 총을 겨눌 때에는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이에 맞서 방어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과서는 '평화냐, 전쟁이냐' 둘 가운데 맹목적으로, 그리고 이상적으로 평화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것임을 가르치도록 하는 것은 실제로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 행위, 즉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에 관해서는 고려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

나) 북한의 잇따른 군사 도발 및 장거리 로켓 발사, 핵 실험 등의 반영 미흡

현 교과서는 2002년 연평해전, 장거리 로켓 발사, 핵 실험,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과 같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 및 위협적인 북한의 실체에 관련한 내용 서술이 부족하다.

우선 사회 6-1 교과서에서는 "북한의 잇따른 군사적 도발과 핵 개발로 남북한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남북 교류 협력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로켓 발사, 핵 실험,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과 같은 북한의 군사 도발이 계속되는 한 남북 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는 불가능하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 학생들이 위협적인 북한의 실체와 안보의 중요성을 알 수 있으나 간략하게만 언급되고 있어 구체적으로 그 원인이 무엇이고, 이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학습내용이 불충분하다.

6학년 생활의 길잡이 교과서에서는 '책임을 다한 숭고한 삶'이라는 주제로 천안함 피격 사건에서 희생한 故한주호 준위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지만 천안함 피격 사건의 원인에 관한 설명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사회6-2 교과서 및 6학년 생활의 길잡이 교과서 이외에는 분석대상 교과서들에서 6·25전쟁 이후 북한의 무력도발 및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등의 내용을 교과서에 제시하지 않고 있어 학생들이 위협적인 북한의 실체 및 국가안보적 실태에 대하여 알지 못할 우려가 있다.

나.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나타난 나라사랑 및 호국정신 교육 현황

1) 국가에 대한 애국심: 대한민국 건국(建國)의 실종

국사 교과서(교육과학기술부)의 근현대사 시기는 크게 세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한말(해당 단원 Ⅷ. 주권 수호 운동의 전개), 일제 강점기(해당 단원 Ⅸ. 민족의 독립 운동), 그리고 대한민국(해당 단원 Ⅹ. 대한민국의 발전)이 그것이다. 그런데 각 장의 애국(愛國)관련 서술은 양적인 배분 면에서 상당한 불균형을 발견할 수 있다.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미군정기 포함)까지 등장하는 '애국'이란 표현은 각각 27차례와 17차례, 총 44번 등장하는 데 반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는 단 한 차례 등장할 뿐이다. 대한민국의 건국 이후 애국이란 단어는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춘 것이다.

보다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보면, 일제에 의해 나라를 빼앗기기 전후 우리 민족의 애국 관련 서술은 '애국 운동', '애국 지사', '애국심', '애국 정신', '애국 활동', '애국 사상', '애국자' 등 다양한 형태로 충분히 제시되고 있다. 특히 구한말의 경우에는 읽기 자료의 방식으로 대성 학교이야기(이 학교는 '애국 정신'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학교였으므로, 매일 아침 엄숙한 조회를 하여 '애국가'를 부른 후 '애국'에 관한 훈화가 있어 학생들은 이를 마음 속 깊이 받아들였다...)를, 그리고 일제 강점기의 경우에는 <도움 글>의 형태로 남궁억의 애국 교육 운동에 대하여 거의 한 페이지 전체를 각각 언급하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의 역사 서술에서 '애국'이라는 단어는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는다. 그나마 단원 말미 심화과정에서 5·16군사 정변 때 발표했던 '혁명 공약'사료 중 "친애하는 애국 동포 여러분!..."이란 문장을 통해 단 한 차례 등장한다. 그런데 이마저도 애국심의 소중함과 의미를 생각해보자는 취지가 아니라 우리나라 민주화 과정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정리해보기 위한 의도로 활용되고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는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되면서 '주권'을 상실하는 비운을 겪었다. 그 과정에서 겪었던 나라 잃은 슬픔과 고통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다. 하지만 나라를 되찾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고귀한 생명을 바쳤고, 그러한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 땅위에 다시 나라를 일으켜 세웠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도 6·25 전쟁을 겪는 등 나라를 구하기 위한 가시밭길은 계속 되었지만, 결연히 극복하여 지금 우리는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우리의 조상들이 살면서 지켜온 곳이자 내가 나서 자라온 터전이며 자손대대로 번영을 누려야 할 곳이다. 우리가 조국을 굳건히 지키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사 교과서의 본문 어디를 보더라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는 '애국'이라는 표현을 찾아볼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의 역사에서도 구한말이나 일제 강점기처럼 애국 관련 서술 및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한다. 삶을 향유하는 터전과 실제적 경험을 공유하는 구성원에 대한 자발적 애정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국심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라고 해서 사라져야 할 이유는 없다.

2) 호국·보훈 의식: 건국 이후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간과

우리 민족사에는 숱한 외침과 시련을 겪어오면서도 이에 맞서 싸운 호국정신이 도도하게 흐르고 있다. 100여 년 전 한·일 강제병탄으로 나라를 잃었을 때까지 그런 것이 아니라, 6·25전쟁이라는 누란의 위기 속에서도,최근 제1연평해전과 제2연평해전에서도 그랬다. 특히 6·25전쟁은 참혹한 전쟁이고 우리 민족이 겪은 최대의 시련이었다. 수많은 영웅들이 고귀한 생명을 바쳤다. 2010년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그렇게 해서 지켜진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라와 겨레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순국자와 국가수호자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호국보훈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의무이다. 호국보훈이야 말로 국가유지와 발전의 저력이고, 오늘날 우리를 국제사회의 치열한 무한경쟁 속에서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국가수호자들의 위상이 바로 서지 않고서는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과 사회 정의가 올바로 설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나라를 위한 헌신을 진정 명예로운 것으로 온 국민이 인식할 때 나라의 장래도 보장된다. 선진국일수록 나라를 위한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프랑스에서는 '기억의 정치'라 하여 과거 국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희생했던 분들을 사회적 차원에서 기억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국민들의 합의 위에서 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적 단합과 연대의식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역사 교과서를 보면 일제 강점기 이후에는 더 이상 나라와 국민을 위해 소중한 생명을 바친 순국자들의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6·25전쟁을 비롯하여 최근의 천안함 폭침 사건까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순국자들에게 물질적 보상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역사 교과서에 그들의 영웅담을 기록하여 그들의 명예를 시민적 기억으로 승화시키는 것이다. 연평 해전 당시 순국한 6인의 용사는 물론,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관련된 46인의 나라사랑 정신, 故한주호 준위의 애국 정신 등은 국사 교과서에 서술되어 있지 않다. 보훈 없이 안보도 없다. 최고의 보훈은 교과서에서 명예롭게 서술하고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목숨을 바쳐서 국가를 수호한 영웅들을 기리는 최고의 방법은 교과서에 서술하여 시민적 차원에서 기억하는 것이다. 국가와 시민이 이들을 기억하고 유족들을 돌보는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다시 위기가 닥쳤을 때 누가 목숨을 걸고 나설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일제 강점기 뿐만 아니라 6·25전쟁 이후에도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을 교과서에 서술하여 그들의 정신을 기리고 명예를 드높이는 일에 나서야 한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소중한 생명을 바친 순국자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3) 올바른 역사관 : 고조선부터 조선까지 모두 있는데, 대한민국만 생략?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되어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을 선포한 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건국은 언제인가."라는 질문은 어떠한가에 정확히 답하는 사람은 드물어 보인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교과서에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표현은 없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만 쓰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국정 교과서인 국사 교과서를 비롯하여 검인정 교과서인 역사(상) 교과서(조선 후기 이후의 연표를 실지 않은 대교와 천재교육을 제외한 6종 역사(상) 교과서) 모두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표현은 볼 수 없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만 쓰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교과서 모두 고조선 건국(기원전 2333년), 신라 건국(기원전 57년), 고구려 건국(기원전 37년), 백제 건국(기원전 18년), 고려 건국(918년), 조선 건국(1392년)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고조선부터 조선까지 모두 건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유독 대한민국 건국(1948년)이라는 표현만 찾아볼 수 없다. 혹시 고조선부터 조선까지는 모두 나라로 인정하는데, 대한민국만 나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역사관에서 비롯된 일은 아닌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이 틀린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폄하할 의도는 추호도 없다. 다만 불충분할 뿐이다. 현행 중학교 역사 교과서 및 국사 교과서 모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만 쓰고,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 있다는 점을 솔직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불충분함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과 더불어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표현도 함께 서술함으로써 어느 정도 보완될 수 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 건국이 가지는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다. 대한민국 건국의 '가치'와 '의미'는 대한민국 정치 공동체의 온전한 구성원으로서 정체성과 역사의식을 지닌 시민이라면 당연히 알고 익혀야할

사실이다.

우리의 경우 일제 강점과 광복, 분단과 전쟁을 겪는 역경 속에서도 산업화·민주화를 이뤄내었는데. 이렇게 자랑스러운 역사적 성취의 출발은 바로 대한민국의 건국이었다. 1948년 8월 15일 역사적인 대한민국 건국의 그날, 우리나라는 세계만방에 독립국임을 선포하며 당당하게 첫걸음을 내디뎠다. 특히 자유와 평등, 그리고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민주공화국으로 건국한 것은 오늘날 위대한 대한민국 건설의 토대가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는 과거의 왕정시대에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주의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국가의 정통성은 국민의 국가에 대한 신뢰와 지지의 근본 바탕이 되는 것으로 '국민에 대한 통치권 행사의 합법성과 정치체제의 정당성을 제시하는 논리적 근거'를 말한다. 한 국가의 국민이 정통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자신이 속한 국가와 높은 일체감을 갖고 국가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가 수호의지도 높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내 목숨을 바쳐도 아까울 것이 없을 만큼'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애국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애국심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확립될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풍요는 60여 년 전 건국의 선각자들이 내린 결단과 냉철한 선택의 결과다. 오늘의 대한민국과 북한을 비교해 보면 60여 년 전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알 수 있다.이러한 엄연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의 출발 자체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친일 반민족 세력이 미국을 등에 업고 세운 국가라고 주장하면서 국가 정체성을 흔들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과 그것의 의미를 교과서에 정확하게 서술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4) 안보의식: 한미(韓美) 동맹이 빠진 한국 안보는 '속빈 강정'일 뿐...

자유나 민주주의의 시련은 외부로부터도 온다. 한 나라가 외세의 침략이나 간섭을 받으면 자유나 민주주의 역시 꽃피우기가 쉽지 않다. 우리 집이 도둑이나 강도의 침입에 노출되어 있다면 자유롭게 바깥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집 안에 있어도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것과 같다. 이처럼 주권 수호, 즉 안보는 한 나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의미 있게 만드는 중요한 전제 중 하나인 것이다.

또한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은 자국의 안전과 국가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우방국들과 동맹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가 간의 대결구도 속에서 자국의 힘만으로 국방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선진국들도 동맹 관

계를 통해 자국의 안전과 국가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60여 년 동안 한미 동맹을 통해 한반도의 안정과 국가 이익을 증진시켜 왔다. 일본의 패망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건국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정치, 경제, 사회적 여건이 전부 미비된 상태에서 건국 직후 안보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의 수준이었다.

대한민국 건국을 전후로 안보의 최대 걸림돌은 북한의 김일성 정권이었다. 이것이 현실화된 것이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난 전쟁이다. 한미동맹의 성립 배경은 6·25전쟁이 끝난 후 한국의 안전보장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에 '한미 동맹'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하여 성립되었으며, 그 결과 1953년 10월 1일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었다. 즉, 한미 동맹은 안보 측면의 필요에 의해 우리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한·미 동맹은 북한의 무력 남침을 억제하고 안보 비용의 절감으로 인한 경제발전과 함께 정치적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

적어도 제대로 된 국사 교과서라면 이러한 한미 동맹과 그것의 대표적 상징 사건인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대하여 안보와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언급해야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사 교과서에는 이런 내용이 단 한 줄도 나오지 않는다. 6·25전쟁에 대한 서술에서도 유엔의 도움만 10여 차례 언급하면서, 6·25전쟁 당시 미군의 도움이 가장 컸다는 사실은 다른 참전국들과 차별적으로 서술하지 않고 있다.

미군의 6·25전쟁 참전은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국가 이념과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우리에게는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한 고귀한 희생이었던 것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립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그들의 희생이 뒷받침 되었던 것이다. 안보 위기는 국가의 존망과 직결된다. 개인의 안전과 행복은 국가안보가 완전하게 확보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한미 동맹관계를 적극 활용해온 내용이 조금이라도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2. 청소년의 나라사랑 정신 수준 분석

가. 2010년 이전 청소년 안보의식의 변화

1) 행정안전부 실태조사 요약 (2008년 6월)[1)]

2008년 6월의 조사에서 첫 번째 질문은 6·25 발발 연도를 묻는 것인데, 정답인 1950년을 모르는 비율이 56.8%나 되었다. 그리고 전쟁 시 한국을 도와줄 국가 질문에 미국(67.3%), 일본 및 북한 (7.1%) 순이었다. 이어서 대한민국의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질문에 미국(28.4%) 북한(24.5%)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초, 중, 고등학교 교사들에 의하여 주적개념에 대한 인식이 전혀 전달되고 있지 않다는 증거로 분석할 수 있다.

한편 안보를 위해 협력이 필요한 국가 질문에 미국(34.6%), 북한 (22.3%) 등으로 답을 하여 안보의식에 있어 매우 심각한 상태임을 보여준다. 특히 미국은 지구상에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데도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미국 청소년들이 반한하면 어떻게 되리 암담한 상황이었다. 우리의 친구가 누구고 우리의 적이 누군지를 구분 못 한다면 후진국이나 다름없는 것이었다. 과연 천안함 폭침이나 북한 김정은 정권의 또 다른 무력 도발을 감행한다면 대한민국을 포기하고 청소년들은 북한을 도울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다. 정부는 통일교육과 함께 철저한 안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사와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본다.

2) 시민단체 설문조사 요약 (2008년 6월)[2)]

우선 6·25전쟁 발발 년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다는 반응이 65.2%, 잘 모른다는 반응이 34.8%로 심각한 상태였다.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정확히 알고 있다는 응답이 저 높게 나타났고,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이 모른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이라면 적어도 6.25전쟁이 일어난 사실은 거의 100%에 가깝게 알아야 정상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6·25전쟁을 일으킨 나라는 북한 59.9% 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고, 한국 15.4%, 일본 9.5%, 러시아 7.9% 등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었다. 학년이 높을수록 북한 이라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고, 학년이 낮을수록 한국이라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사들의 안보의식에 대한 사명감 응답을 높아져야하고 정확한 안보지식을 전달해야 한다.

---

1) 리서치 앤 리서치, 「청소년안전안보의식실태조사」(2008. 6.)
2) 선진통일교육센터, 「2008년 통일의식 설문 조사: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선진 통일교육을 위하여」(2008. 6.)

또한 대한민국을 가장 위협하는 국가는 북한 35.7%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일본 28.2%, 미국 27.7%, 중국 7.9% 순으로 나타났다.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미국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일본이라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10여 년 동안 주적 개념이 모호한 상태에서 우리의 친구나라가 누구인지 제대로 안보교육이 안된 결과임,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별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대답이 46.1%로 압도적이었다. '전혀 만족 하지 못한다'가 25.5%, '대체로 만족한다'가 24.4%, '매우 만족한다'는 대답이 4% 로 대부분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이 들어났다.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고,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이 만족한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국가와 애국의 소중함을 청소년이 잘 인식하는 선진국안보수준으로 향상되도록 정부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천안함 폭침사건과 더불어 앞으로 통일교육보다는 안보교육의 강화가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3) 청소년 안보의식 저하 원인 분석

1990년대 후반 이후 학교 교육에서 안보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통일로 대치되었다. 하지만 통일과 안보는 엄연히 다르다. 안보교육의 내용 중에는 안보론, 전쟁론, 평화론, 분단론, 통일론, 군사론, 국가관, 민족관, 세계관 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초, 중, 고등학교에서 과거 군사정권의 부정적 인식으로 안보보다는 평화통일을 강조하는 경향이 증가하였다. 더욱이 안보라고 강조하는 정도도 통일안보나 재난안전 등으로 대치하여 혼란스럽게 활용되고 있다. 보다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안보교육이라는 개념을 초, 중, 고등학교에서 사용해야한다. 언제부터인지 나라의 안보와 안전을 지키는 군경에 대하여 존경심도 사라지고 애국심도 사라지고 있다. 거리에서의 시도 때도 없는 일부시민단체, 노조, 대학생 등의 폭력시위가 안보불감증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안보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영원히 국민이나 국가에게 제일 중요한 분야 이며 가치이다. 선진국일수록 안보선 진화를 이루고 있음을 상기해야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청소년의 안보의식 저하 원인을 보면 과거 정부의 안보교육에 대한 관심이 저하되었고, 대북관계에 대한 정부의 모호한 입장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일선교사들의 애국관, 국가관, 민족관 등 보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안보교육이 소홀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군대와 경찰 등 안보주축 세력에 대한 존경심이 저하되었고,

학교 교육에서 애국심, 국가관, 민족관 등에 대한 강조가 사라졌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급기야 민주적 평화통일을 강조하느라 안보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교육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편 1990년대 후반 이후 과거 정권에서의 북한에 대한 햇볕정책, 퍼주기 정책 등이 안보관을 약화시켰다. 주적개념에 대한 모호한 과거 정부 입장도 한몫했다고 본다. 북한에 대한 비판의식이나 적대의식이 약화되어 순진한 학생들이 오히려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민족해방전선전략에 말려든 것을 의심해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북한의 남한 분열책동과 이간질 책동의 전략이 성공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민간 대 정부, 보수와 진보, 친북 대 반북 등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다. 경제적 발전과 성장이 오히려 안보에 대한 해이현상을 증대시켰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에게 만연된 엔터테인먼트, 레저문화, 여흥문화, 다양한 멀티 영상프로그램의 발달에 의하여 청소년의 관심과 흥미분야가 전도되어 군대에서나 겨우 인지되는 정도로 안보분야는 거리가 멀어졌다고 할 수 있다.

나. 2010년 이후 청소년 안보의식의 변화

1) 행정안전부 여론조사 결과 (2010년 6월)

우선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대해, '안보의식 수준이 높다'라고 답한 사람은 성인 27.9%, 청소년은 22.3%만이 응답해 국민 스스로 안보의식 수준에 대해 매우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인의 경우 2009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09년 4월)에 조사한 결과(30.1%) 보다 2.2%p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3] 2010년 조사에서는 최초로 국민 안보의식을 지수화한 결과, 100점 만점에 청소년 49.16점, 성인 60.23점 수준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안보의식은 성인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2010년 3월에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청소년이 75.1%, 성인이 75.4%였다. 또한 '북한이 다시 도발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청소년 73.4%, 일반인 73.5%가 '북한이 다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천안함 폭침 사건을 계기로 안보현실 이해 및 인식과 관련하여, 지난 1년간 북한은 우리 발전을 가로막는 경계의 대상이자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할 대상이라는 인식이 크게 확산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한 양상은 '북한하면 떠오르는 생각'이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도 유

3) '2009년 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4.3~4) / 성인남녀 1,000명 / 행정안전부(리서치&리서치)

사하게 나타났다. 이 질문에 대해서 성인 60.9%가 '경계하고 적대할 대상'이라고 응답하여 '선의의 경쟁과 협력할 대상'이라는 응답 35.4%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이처럼 북한이 '경계 · 적대 대상'이라는 응답은 2009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22.0% 증가하였으며, 특히 30대는 30.2%p 증가해 타 연령층(20대:16.7%p, 40:18.3%p, 50대 이상 21.6%p)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국민 대다수가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청소년과 30대는 미국에 대한 인식이 '08년 조사와 비교할 때 우호적으로 변화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선 성인 88.6%, 청소년 79.0%가 우리 안보를 위해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 중 '우리 안보를 위해 가장 협력해야 할 나라'로 '미국' 이라는 의견이 성인 63.6%, 청소년 60.3%로 각각 25.7%p, 12.4%p 증가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던 2008년 조사[4]와 비교해(2008년:34.6% → 2010년:60.3%) 25.7%, 30대는 2009년 조사와 비교해(2009년:49.5% → 2010년:61,9%) 12.4%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6·25전쟁이 발발한 해를 1950년이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청소년은 41.3%에 불과했다. 20대의 경우도 46.3%로 청소년과 별로 다를 바가 없었다. 또한 북한이 6·25전쟁을 일으켰다고 맞게 응답한 비율은 청소년 63.7%, 성인은 79.6%에 불과했다. 이러한 결과만을 두고 볼 때, 청소년과 20~30대가 6.25전쟁을 생생한 현실로 인식하기 바라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전쟁의 발발과 전개과정, 그리고 우리사회에 끼친 영향에 대해 교육이라도 제대로 시켜야 하는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 심지어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온 관영 통신사인 신화통신의 자매지기 1950년 6월25일 북한군이 38선을 넘어 공격을 시작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다고 보도하여 6·25는 북한의 남침임을 중국이 처음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더 이상 초중고 학교에서 남침을 논쟁하는 어리석은 교육은 종식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2009년 4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에 비해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은 우리 장병들이 희생되는 등 북한의 실제적 위협이 현실화됨에 따라, 우리 국민 스스로 우리 사회 전반의 안보불감증, 안보의식 수준에 대한 우려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이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경계 및 적대적 인식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안보 동맹국으로서 미국에 대한 인식이 우호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교교육에서는 현실의 안보 위기를 보완할 수 있는 현장감 있는 안보 및 나라사랑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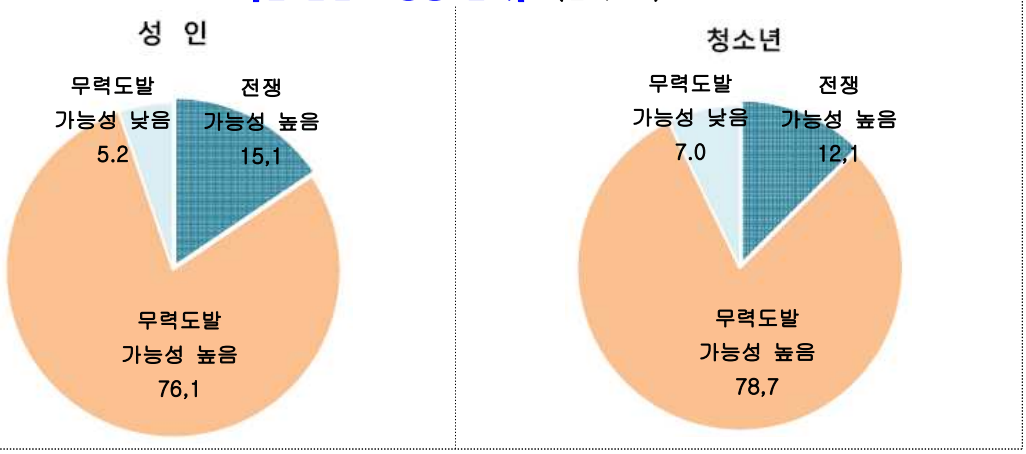
---

4) '2008년 청소년 안보의식 여론조사'(6.13~16) / 청소년(중고생) 1,016명 / 행정안전부(리서치&리서치)

2) 행정안전부 여론조사 결과 (2011년 6월)

먼저,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인식으로 성인 76.1%, 청소년 78.7%가 '전쟁 가능성은 낮지만 연평도 포격과 같은 무력도발 가능성은 높다'고 응답했다.

[현 한반도 상황 인식] (단위 :%)



또한, 북한이 연평도 포격과 같은 무력도발을 다시 할 경우 국민 대다수(성인 84.0%, 청소년 76.8%)가 군사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성인은 '모든 군사력을 동원한 강력한 대응'(47.2%), 청소년은 '공격한 수준 만큼만 군사력 대응'(48.0%)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군사적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은 성인 13.4%, 청소년 21.5%에 불과했다.

[북한 무력도발 재발시 대응 수준] (단위 :%)



한편 북한에 대한 인식은 성인 59.9%, 청소년 51.4%가 '경계하고 적대할 대상'이라고 답해, 성인은 큰 변화가 없었으나 청소년은 2010년(41.5%)과 비교해 9.9%p 증가했다.

[북한에 대한 인식] (단위 :%)



'09년도 38.9%→'10년도 60.9%→'11년도 59.9%

'10년도 41.5%→'11년도 5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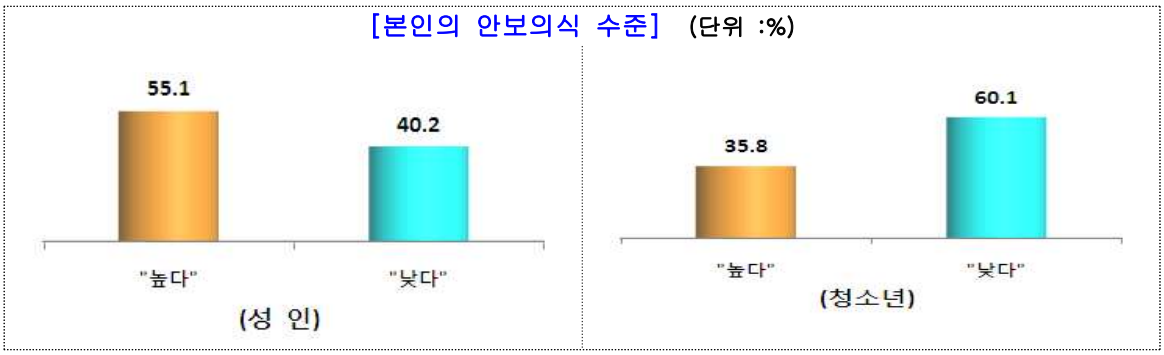
한편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로 성인 62.2%, 청소년 50.7%가 본인의 안보의식이 '높아졌다'고 응답하여, 국민의 과반수가 지난 1년간 안보의식이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안보의식 변화] (단위 :%)



이와 더불어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에 대해서 성인은 55.1%가 '안보의식이 높다'고 답하였으나, 청소년은 35.8% 만이 '높다'고 답해, 성인에 비해 청소년의 안보의식은 아직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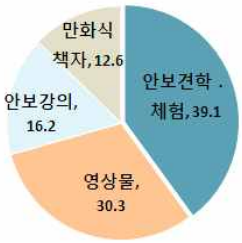


아울러, 청소년에게 학교에서 안보교육을 받아본 경험을 물어본 결과 청소년 56.5%가 '안보교육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여 작년 조사(21.0%)와 비교해 35.5%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최근 학교 안보교육이 강화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안보교육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청소년 중 73.0%는 교육이 '안보의식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으며, 효과적인 안보교육 방법으로는 '안보견학과 체험'(39.1%), 영상물'(30.3%), '전문가 안보강의'(16.2%) 순으로 선호 의견을 표시했다.

[지난 1년간 안보교육 경험] (단위 :%)



[효과적인 안보교육 방법]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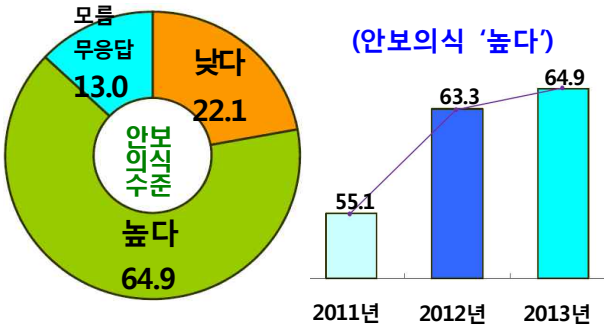


3) 행정안전부 여론조사 결과 (2013년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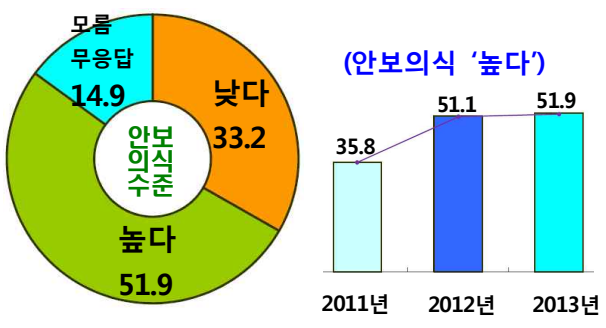
우선 '본인의 안보의식 수준'은 성인 64.9%, 청소년 51.9%가 '높다'고 응답해 2011년 및 2012년 결과와 비슷한 수준이었고, 성인에 비해 청소년의 안보의식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민 안보의식 수준】 (단위:%)

<성 인>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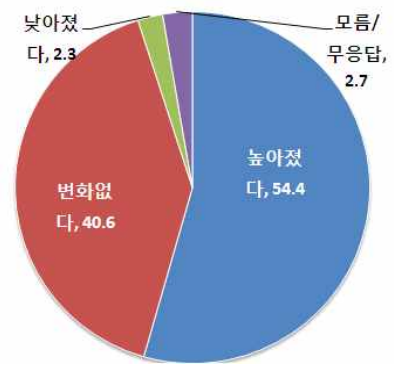
이러한 안보의식에 변화를 준 요소로는 북한의 장거리 마시일 발사, 3차 핵실험, 정전협정 폐지선언, 대남무력도발 등 일련의 사건들이 안보의식에 일련의 변화를 주었는데, 그 영향 정도는 성인의 54.5%, 청소년의 4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북한의 안보위협이 안보의식에 미친 영향

【문】 최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3차 핵실험, 정전협정 폐지선언, 대남무력도발 발언 등 일련의 사건들이 안보의식에 변화를 주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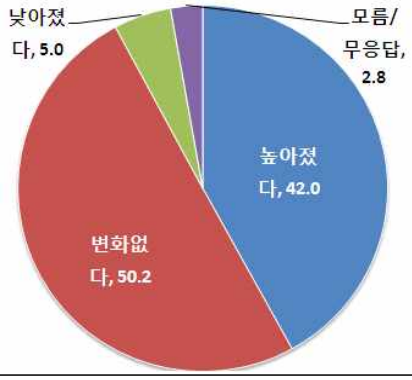
<성 인>

단위:%



<청소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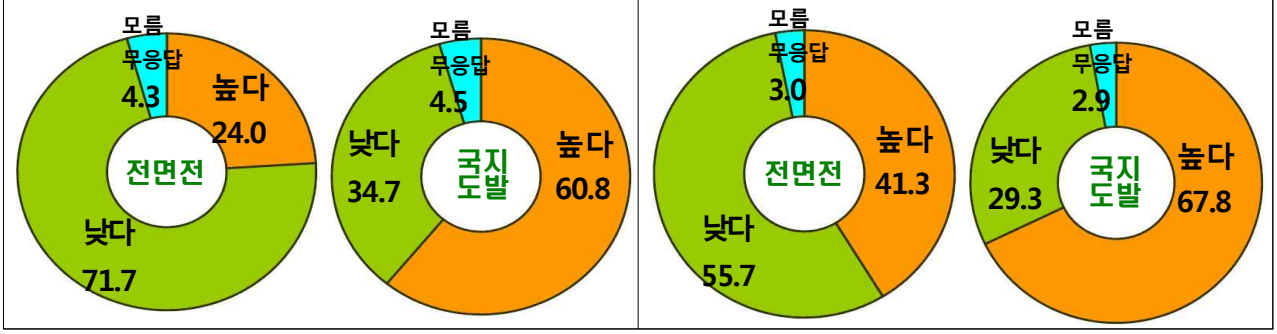
한편 청소년의 과반수(50.2%)는 최근 북한의 안보위협에도 불구하고 안보의식에는 '변화 없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청소년의 안보의식이 낮은 이유에 대해 청소년 스스로 안보에 대한 관심이 적고(45.7%), 교육이 부족하다(31.6%)고 응답해 청소년에 대한 안보교육 및 홍보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인식과 관련, 다수의 국민이 '전면전 도발 가능성'은 낮으나(성인 71.7%, 청소년 55.7%)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국지적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은 것(성인 60.8%, 청소년 67.8%)으로 보고 있었다. 아울러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는 성인 71,0%, 청소년 67.2%가 '우리 안보에 매우 심각한 위협으로 막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북한 위협에 대한 인식】 **(단위:%)**

<성 인>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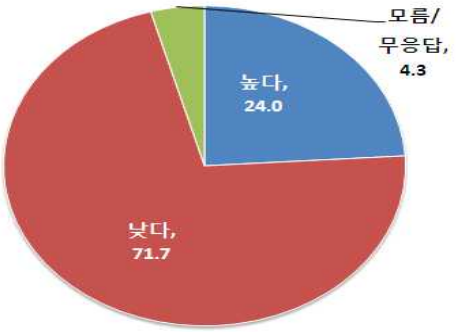
이와 더불어 북한이 6.25와 같은 전쟁을 다시 일으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성인의 71.7%, 청소년의 55.7%가 낮다고 대답하여, 북한의 위협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6·25전쟁과 같은 전면전 도발 가능성

【문】 북한이 6·25와 같은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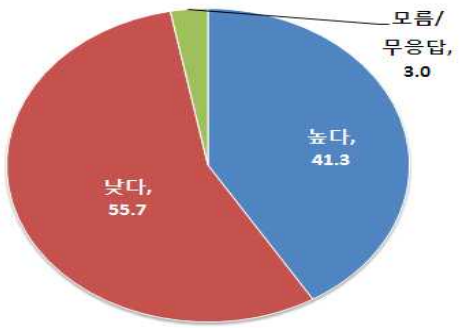
<성 인>

단위:%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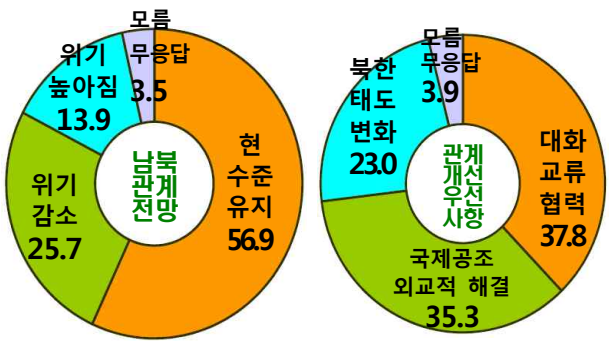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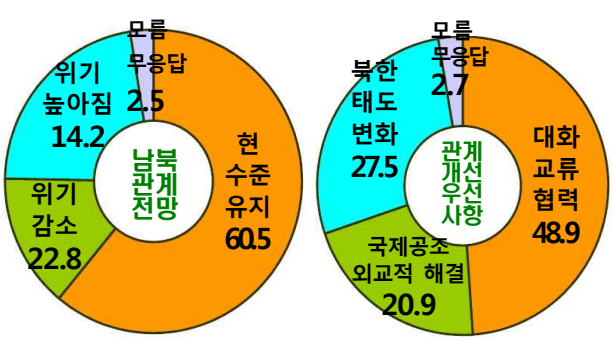
남북관계와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해 국민 과반수 이상이 '큰 변화 없이 현 수준을 유지할 것'(성인 56.9%, 청소년 60.5%)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관계개선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정부의 지속적인 대화와 교류협력'(성인 37.8%, 청소년 48.9%) 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 (단위:%)

<성 인>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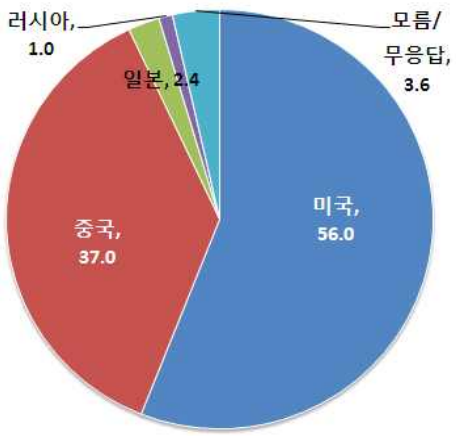
또한 현재의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협력해야 할 나라로는 성인의 56.0%, 청소년의 61.1%가 미국이라고 응답하였고, 중국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성인의 37.0%, 청소년의 26.2%에 달했다.

안보를 위해 가장 협력할 나라

【문】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 가장 협력해야 할 나라는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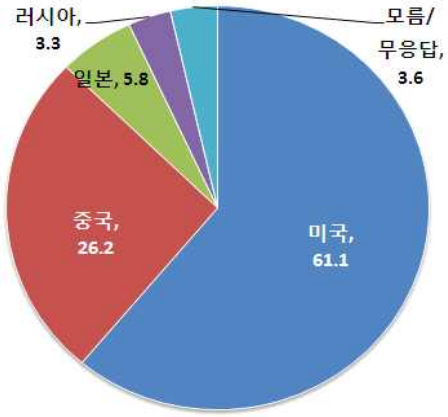
<성 인>

단위:%



<청소년>

단위:%



그러나 이와 같은 안보 현실에 인식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나라사랑 정신 관련 인식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25전쟁의 발발 년도를 묻는 주관식 질문에 정답을 말한 비율의 성인의 64.2%, 청소년의 47.3%에 불과했다. 다시 말해서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6.25전쟁의 발발 년도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러한 결과는 학교 교육의 문제로 분석된다. 청소년들에 대한 안보교육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선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서 입시위주 교육, 편향된 역사 교육 등으로 일관하다보니, 장차 우리 국방을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들이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보완하기 위한 교육이 미흡하거나 잘못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4개국(한, 중, 일, 미국) 청소년의 나라사랑 정신 비교

2010년 5~9월 사이에 국가보훈처 주관하에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4개국 청소년 각 6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4개국 청소년에 대한 의식조사에서는 세계화와 더불어 다문화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나라와 주변국들의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국민으로서의 자부심, 역사의식, 국제관 등을 비교·분석하여 적절한 대응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기획, 실시되었다.

가. 국가 국민으로서의 자긍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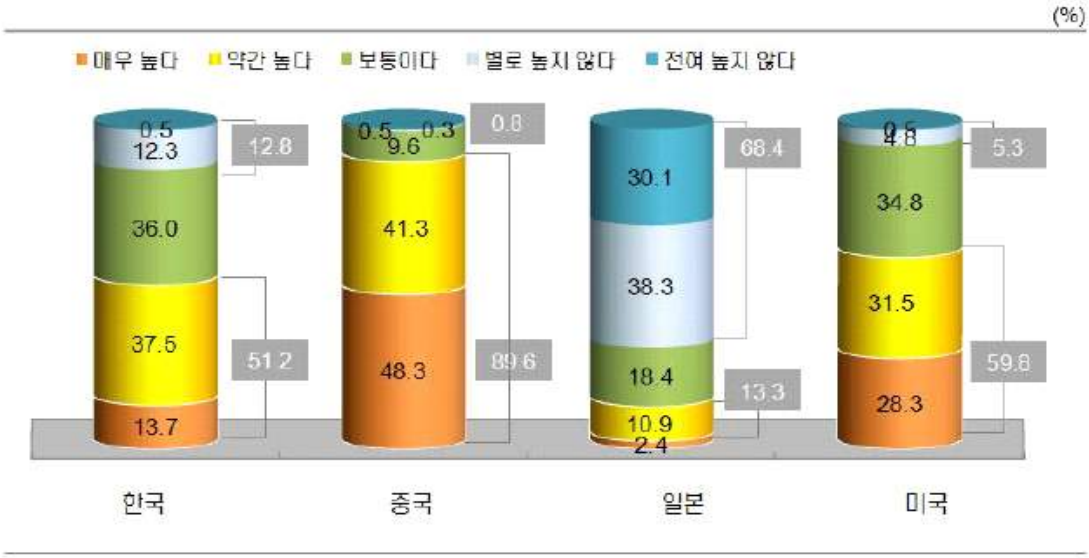
각 국가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에 대해 알아본 결과 중국 청소년의 긍정 응답이 89.6%이며, 두 번째인 미국(59.8%)과 세 번째 한국(51.2%) 등 2위권 국가와 큰 격차를 보이며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일본 청소년의 국민 자긍심은 1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서 대조를 이뤘다.

중국과 미국의 경우 '강한 자긍심'이 각각 48.3%과 31.5%로 높게 나타났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강한 자긍심'응답은 13.7%에 불과하여 자긍심의 강도 면에서도 경쟁국가 대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강도까지 고려하여 산출한 환산점수를 보면 대체로 중국(84.2점)>미국(70.6점)>한국(62.9점)>일본(55.3점)순으로 중국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국가에 대한 자긍심'은 4개국 공히 국제적 지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자긍심이 높다'는 응답은 한, 중, 일, 미국 모두 '자국의 국제적 지위가 높다'는 응답층에서 두드러지는 반면, 자긍심이 낮다는 응답은 '자국의 국제적 지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응답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중국, 일본, 미국의 경우에는 '역사에 대한 관심정도' 역시 국가 자긍심과 관련 있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각 국가 국민으로서의 자긍심



다시 말해서 '자국 역사에 대한 관심정도'가 높다는 응답층에서 자긍심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역시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대체로 이와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항목에 대한 설문에서 알 수 있듯이, 청소년들의 체감 국가 자긍심은 자국의 국제적 지위와 상관성이 있다. 한편 청소년들이 체감하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 수준은 조사대상 4개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소년들의 현실인식은 실제 국제사회에서의 국가간 국력 차이를 반영하고 있으나,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가 상승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G-20의 성공적인 개최 및 성과에 대한 청소년 계층 대상 전략홍보 전개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아울러 자국 역사에 대한 인지수준이 높을수록 자국에 대한 자긍심 또한 높게 나타나므로, 학교현장에서의 역사교육의 강화가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데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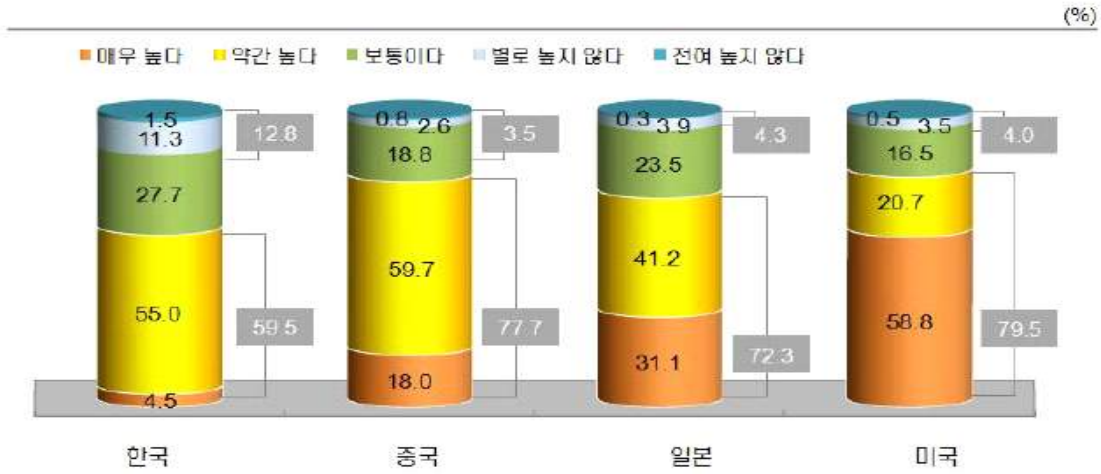
나. 국가의 국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

각 국가의 국제적 지위에 대해 알아본 결과, 미국 청소년에게서 '높음' 응답이 7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중국이 미세한 격차로(77.7%) 뒤를 잇고 있는 가운데 일본 72.3%, 대한민국 59.5%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자국 국제적 지위에 대해 '매우 높음' 응답이 58.8%로 조사대상 10명중 6명이 자국의 국제적 지위가 매우 높다고 체감하고 있었으며, 일본 역시 '매우 높음' 응답이 31.1%로 중국과 우리나라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응

답 환산점수는 미국(83.5점)>일본(74.7점)>중국(72.9점)>한국(62.4점)순으로 미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2] 각 국가의 국제적 지위



위 질문 항목의 특성 상 국제적 지위가 높다는 응답은 4개국 공히 자국 자긍심이 높은 응답층, 가정환경이 높은 응답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반대로 자긍심이 낮은 응답층, 가정환경 수준이 낮은 응답층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학생들의 국제적 지위 체감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고등학교에서는 평균치 이하로 나타났다.

다. 국가 위기 시 국난극복 의지

위기 시 국난 극복 위지 정도를 알아본 결과, 평시 봉사의지와 마찬가지로 중국 청소년의 긍정응답이 8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미국이 62.2%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한국 59.2%, 일본 31.1% 순으로 긍정응답이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중국과 미국의 경우 '매우 높음' 응답층이 각각 34.7%와 24.7%로 두텁지만, 우리나라는 14.5%, 일본은 4.9%에 불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응답 환산점수는 중국(80.0점)>미국(70.1점)>한국(65.0점)>일본(50.6점)순이다.

'국가위기'라는 단서조항을 달아 위기 극복 동참의지를 물어본 결과 한국과 일본이 각각 21.0%, 11.7% 상승한 반면, 중국과 미국의 경우 평시 공동체 봉사 의지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 중국과 미국의 경우 사회에 개입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평시와 위기시를 불문하고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 국가 위기시 국난극복 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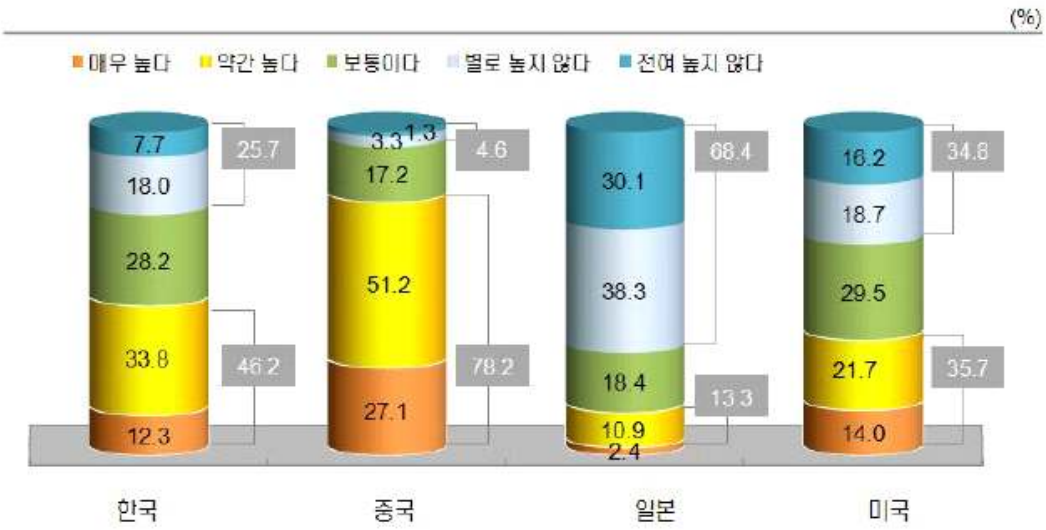
한편 국가 위기시 위기극복 동참의지가 '높다'는 응답은 일본과 미국에서 종교가 있는 청소년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외 국가의 특이한 응답자 특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라. 전쟁 발발 시 참전 의지

한편 국가 위기의 최고 형태인 전쟁 발발 시 참전의지를 살펴본 결과, 중국 78.2%에 이어 우리나라가 46.2%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미국 일본 순으로 나타났는데, .평시나 위기 극복 시에는 사회 개입하여 현상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비교대상국 대비 상대적으로 떨어지나 참전 의지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휴전상태 하 분단국가의 특수성, 징병제라는 특수성에 따라 참전을 당연시 하는 사회문화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참전의지 매우 높음' 응답층이 27.1%로 매우 두터웠다. 우리나라 역시 '적극적 참전의지' 응답 비율은 현재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대테러전을 수행중인 미국의 적극응답비율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그에 따라 응답 환산점수는 중국(74.8점)>한국(56.3점)> 미국(49.7점)>일본(29.3점)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5] 전쟁발발 시 참여 의지



한편 참전의향은 한국, 일본, 미국의 경우 남성 청소년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중국의 경우 남녀 성별 구분없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을 제외하고 중국, 일본, 미국 모두 종교가 있는 청소년에서 참전의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조사 대상 국가 중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참전의지가 높으며, 비교대상국 중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는 가장 참전의지가 높아, 현재 전쟁수행국가인 미국보다 참전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국가이익 우선시' 응답도 타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 응답 역시 높은 수준이나, 참전의지 면에서 중국과 우리나라와는 대비 낮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근대 이후 지속적인 전쟁과 외침의 상황에서 국가형성을 이루어 온 중국이나 우리나라와는 달리, 한 번도 본토에 대한 군사적 침공을 받지 않은 역사적 사실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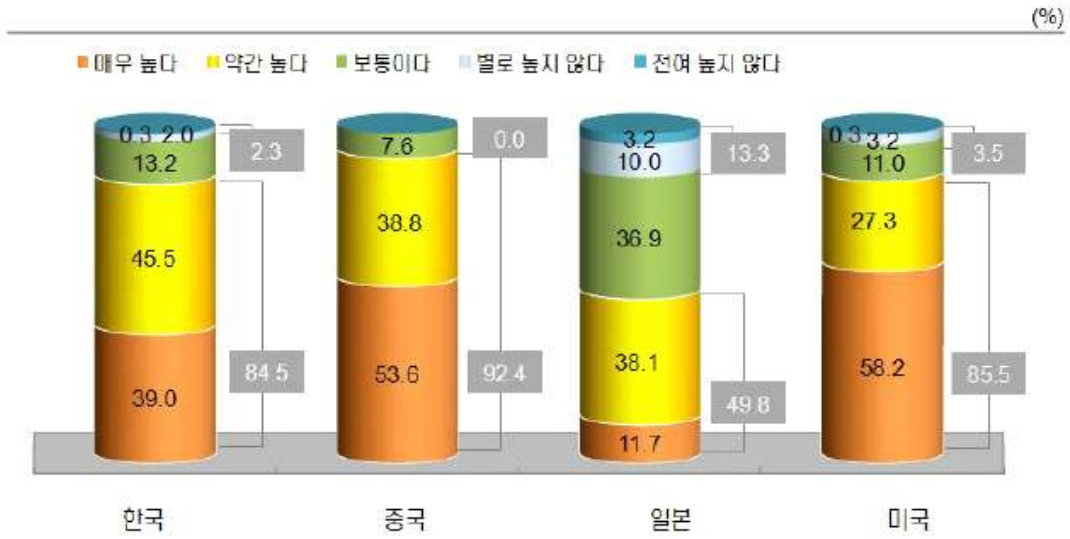
마. 국가 유공자에 대한 존경심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에 대해 알아본 결과, 일본을 제외한 한국, 중국, 미국의 3개 국가 의 경우 10명중 8명 이상이 국가유공자를 존경한다고 응답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매우 높은 수준의 존경심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일본의 경우 과반수 이하의 청소년만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을 피하였다. 근대 역사에서 국가수호와 발전은 주로 국민국가의 형성을 통해 진행되는 바, 일본 국민국가의 형성 및 팽창과정은 침략전쟁을 통해 형성, 발전되어 패전으로 귀결되

었으므로, 자랑스러워하고 존경할 만한 국가유공자에 대해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응답 강도를 살펴보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이 매우 높다는 '적극적 존경'응답이 중국과 미국에서 모두 50%를 상회하여 상호 대등한 수준을 이루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39.0%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의 경우 적극적인 존경 응답층이 11.7%로 매우 얇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환산점수는 중국(86.5점)>미국(85.0점)>한국(80.2점)>일본(61.3점) 순서이다.

[그림 8]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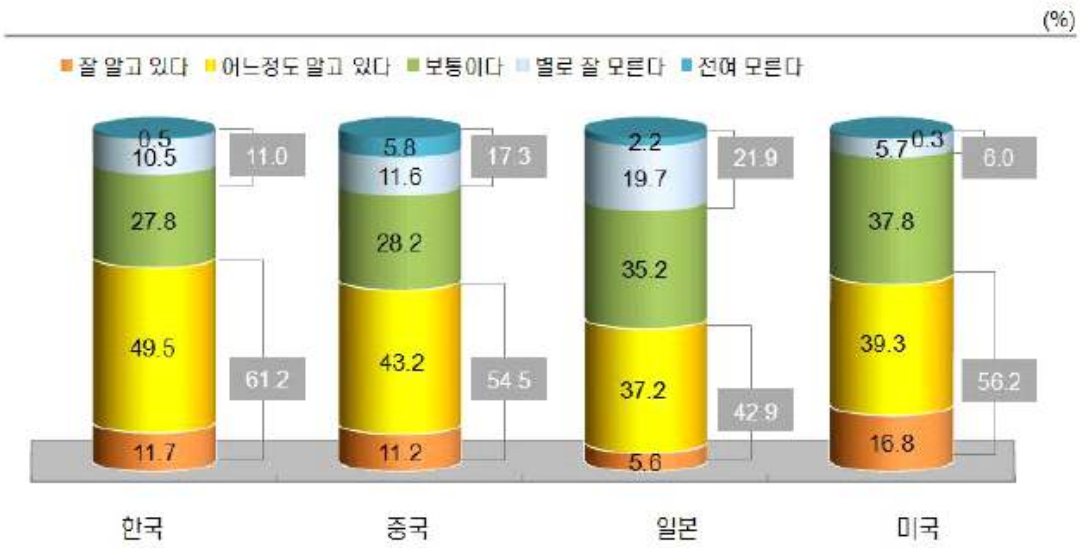
국가유공자 존경에 대한 긍정 응답은 한국에서는 여성 청소년에서 상대적으로 두드러졌으며, 중국에서는 연령이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국을 제외한 3개 국가의 경우, 역사적 관심정도가 높은 응답층에서 국가 유공자 존경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바. 자국 역사에 대한 인지 정도

자국 역사에 대한 인지 정도를 질문한 결과, 인지(숙지+어느 정도인지) 응답에서 한국청소년의 긍정응답이 6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미국이 56.2%, 중국이 54.5%로 나타났으며, 일본의 경우 42.9%에 그쳤다. 응답 강도를 살펴보면, 미국이 16.8%로 '숙지'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과 중국의 숙지 응답이 각각 11.7%,11.2%로 유사한 수준을 이루었다. 일본의 경우 한국과 중국의 숙지 응답치의 절반에 불과한 5.6%를 기록하였다. 따라서 환산점수는 미국(66.7

점)>한국(65.3점)>중국(60.6점)>일본(56.1점) 순서이다.

[그림 9] 자국 역사에 대한 인지 정도



자국 역사에 대한 관심정도에 대해 인지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한국의 경우 중학생, 공무원 희망 청소년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중국에서는 고학년일수록, 가정환경 수준이 높은 응답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일본에서는 가정환경 수준이 높은 응답층, 국민자긍심이 높은 응답층에서 역사에 대한 인지수준이 두드러졌다. 미국에서는 고학년일수록, 종교가 있는 청소년, 국민자긍심이 높다는 응답층에서 자국 역사에 대한 인지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역사인지도는 비교대상국 대비 상대적으로 높으며, 이는 역사교육을 통한 호국 보훈교육의 진행이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근대사 관련 교육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7차 교육과정에 대한 2007년 개정에 의거, 초등학교에서는 6학년 1학기 동안 배우던 근대사를 5학년 1년간 역사교과에 통합하여 함께 교육하는 제도(집중 이수제)가 2011년부터 도입됨에 따라 초등학교에서의 근대사 교육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교육전문가들은 전망하였다. 또한 2011년부터 고교 국사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변경되어 교육현장에서 역사교육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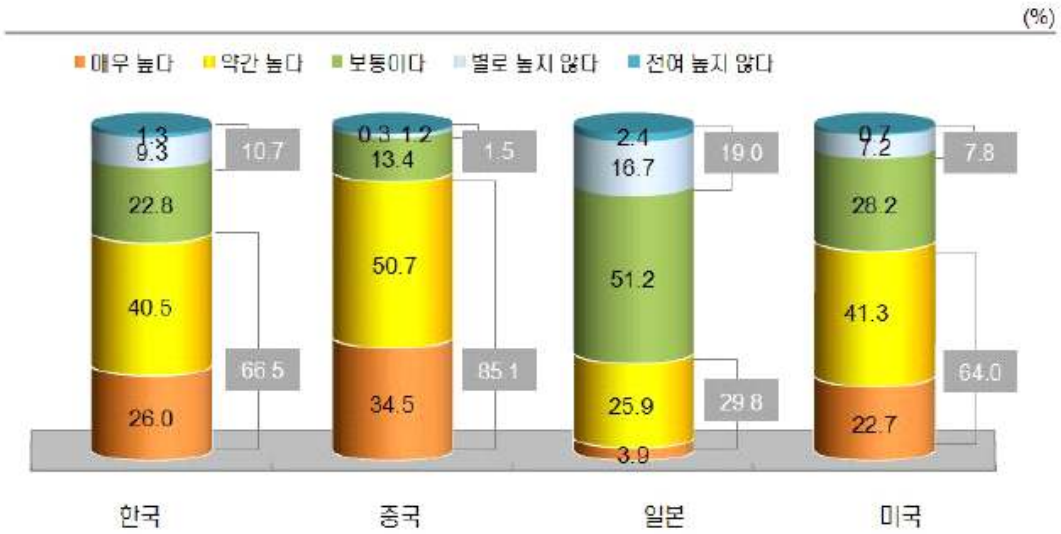
사. 국난 극복 역사에 대한 자긍심

국난 극복과 국가발전 과정에서의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 '자랑스럽다'는 긍정 응답은 중국에서 8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한국과 미국이 각각 66.5%와 64.0%로 나타났다. 일본 청소년의 긍정응답 비율을 29.8%에 불과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응답 강도를 살펴보면, 중국이 34.5%로 '자긍심이 매우 높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과 미국의 '적극적 긍정응답'이 각각 26.0%,22.7%로 유사한 수준을 이루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적극적 긍정 응답층은 3.9%에 그쳤다. 따라서 환산점수는 중국(79.5점)>한국(70.1점)>미국(69.5점)>일본(53.1점) 순서였다.

[그림 10] 국난극복 역사에 대한 자긍심



국가발전 과정상 국난극복의 역사에 대해 중국, 일본 미국의 경우 종교가 있다는 응답자에서 자긍심이 높다는 응답이 타 응답층 대비 두드러졌다. 반면 한국에서는 고학년일수록 가정환경 수준이 낮은 청소년에서 '자랑스럽지 않다'는 부정적인 응답이 두드러졌다. 일본과 미국에서는 종교가 있는 청소년, 국난극복의지가 높은 청소년에서 과거 국난극복 역사에 대한 자긍심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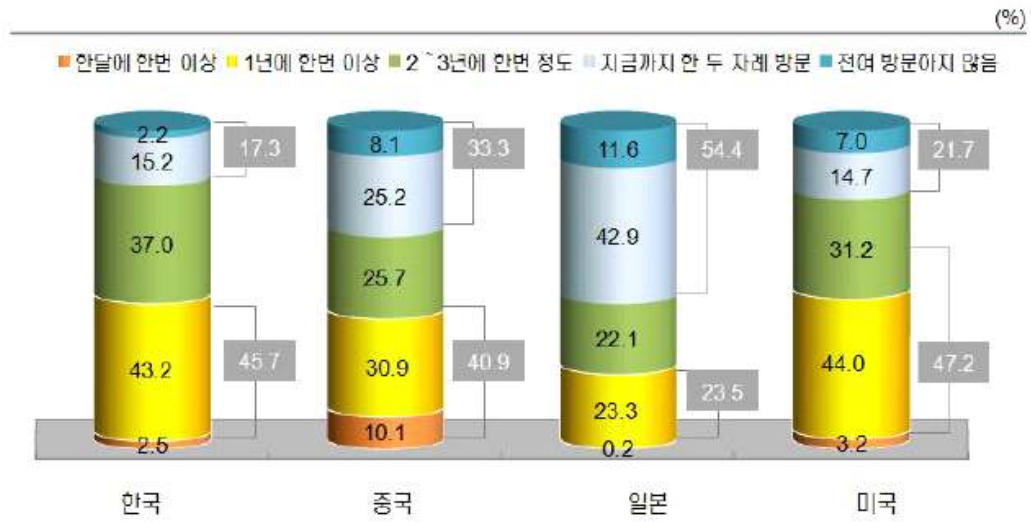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고학년일수록 점차 높아질수록 과거 국난극복 역사에 대한 자긍심이 점차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 청소년에서 자긍심 없다는 부정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훈교육 추진 시 학령에 맞도록 교육 방법과 내용을 차별화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특화한 호국 역사탐방 교실 사업을 추진, 저소득층 청소년들로 하여금, 문화 향유 기회와 함께 역사교육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이 드러났다.

아. 역사 유적지 방문 정도

역사 유적지 방문 정도를 5점 척도화하여 환산 및 산출한 결과, 방문 정도가 '잦다'는 응답은 미국 청소년(47.2%)과 한국청소년(45.7%)에서 타국 대비 높게 나타났다. 중국 역시 40.9%로 유사한 수준인 반면, 일본의 경우 방문빈도가 '잦다'는 응답은 23.5%에 그쳤다.

응답 강도를 살펴보면, 중국이 10.1%로 '매우 잦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과 미국의 경우의 '매우 잦다'는 응답이 2.5%와 3.2%에 불과했다.

[그림 12] 역사유적지 방문 정도



따라서 환산점수는 한국(57.2점)>미국(55.4점)>중국(52.4점)>일본(39.4점)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역사 유적지 방문 정도'는 중국을 제외한 한국, 일본 미국 3개국의 경우 국민의 자긍심과 연관성이 있는데, 국민 자긍심이 높을수록 역사 유적지 방문빈도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역사유적지 방문 정도가 '잦다'는 응답은 저학년일수록 여가로 독서를 즐기는 청소년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에는 여가로 스포츠 활동, 영화, 연극 감상을 즐기는 청소년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일본의 경우에는 가정환경 수준이 높은 청소년, 영화연극에 관심이 많고, 여가로 독서를 즐기는 청소년,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이 높은 응답층에서 방문 빈도가 잦다는 응답이 두드러졌고, 미국의 경우에는 특이한 응답자 특성은 발견할 수 없었다.

자. 분석 및 요약

우선 자긍심 측면에서는 우리 청소년의 절반(51.2%) 이상이 "국민으로서

자긍심이 높다"고 대답한 것을 알 수 있다. '국민으로서의 자긍심' 항목의 긍정응답이 51.2%, 보통 36.0%, 부정응답 12.8%였으며, 환산점수는 62.9점으로 산출되었다.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은 자국의 국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긍정적이며, 국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국민 자긍심이 낮게 나타나는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에 대한 청소년들의 평가는 조사 대상국 4개국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국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적 지위의 향상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국난을 극복하고 단기간에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성취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청소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알아보는 두 번째 요소에 대한 질문의 경우 우리 청소년 10명 중 6명 이상(66.5%)이 "국난극복과 국가발전의 우리나라 역사 자랑스럽다"고 응답했다. '역사적 자긍심' 항목의 긍정 응답은 66.5%, 보통 22.8%, 부정응답 10.7%를 기록했고, 환산점수는 70.1점으로 산출되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고학년이 될수록 과거 국난극복 역사에 대한 자긍심 약화되며, 가정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 청소년에서 자긍심이 없다는 부정응답이 높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보훈교육 추진 시 학령에 알맞은 교육방법과 내용의 차별화가 필요하며, 아울러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특화한 호국 역사탐방 교실 사업을 추진,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보훈문화 향유 기회와 역사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한편 위기시 국난 극복의지에 대해서는 청소년 10명중 6명(59.2%)이 "국가위기 극복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국난 발생시 국가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긍정 응답은 59.2%로 나타나 청소년 10명중 6명은 국가위기 극복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지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난 극복의지는 전쟁발발 시 참전 의지와도 일정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데, 국난 극복 동참에 대한 긍정 응답은 참전의향이 높은 응답자(77.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참전 의향이 낮은 응답자에서는 부정응답(30.5%)이 두드러졌다. 국가위기라는 단서조항을 달아 위기 극복 동참의지를 질문한 결과, 한국과 일본 청소년의 경우 평상시 국가에 대한 봉사의지 대비 각각 21.0%와 11.7% 상승한 반면, 중국과 미국청소년의 경우 평시 봉사의지와 유사한 수준으로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중국과 미국의 경우 평시와 위기시를 불문하고 사회에 개입하여 현상을 개선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의 의지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전쟁발발 시 참전의지에 대한 질문에서, 조사대상 청소년의 46.2%가 "전쟁발발 시 참전"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전쟁 발발 시 참전하겠다'는 긍정 응답은 46.2%로 나타났으며, 이는 조사대상 4개국 중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참전의지가 높은 것이다. 한편 청소년의 참전 의지가 가장 낮은 국가는 일본으로,13.3%에 불과한 반면, 가장 참전의지가 높은 국가는 중국이었다. 중국의 경우 '매우 높음' 응답층이 27.1%로 매우 두터웠는데, 우리나라 역시 '적극적 참전 의지' 응답비율은 현재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대테러전을 수행중인 미국의 적극응답 비율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은 편이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 중국, 일본, 미국의 4개국 청소년의 국가관 및 보훈의식을 측정한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의 국민으로서의 자긍심과 국제적 지위,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 국가 위기 시 국난 극복의지, 국민의 기본의무 자발적 이행의지 등은 비교상대국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참전의지, 국가이익 우선 실현의지 등은 상대국 대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적 지위, 국가이익 우선 실현 의지 등의 항목에서 미국의 긍정응답 환산 점수가 가장 높았으나, 그 외 국가관과 보훈의식 차원의 모든 항목에서는 중국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급성장하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동북아의 지역패권 국가로 성장하며, 국제적 지위를 높여가고 있는 중국에서 그 자신감을 반영하듯, 청소년들의 국가관, 자긍심이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만 국가이익의 우선 실현 의지가 타 국가 대비 낮은 것은 실리를 우선하는 민족성에 기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자국 역사에 대한 관심은 미국 청소년이, 국난 극복 역사에 대한 자긍심 및 역사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식은 중국 청소년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의 청소년 역시 자국 역사에 대한 관심과 국난 극복 역사에 대한 자긍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반적으로 일본의 경우 청소년들의 역사의식 및 관심이 없음이 전적으로 드러났다.

III. 주변국의 청소년 대상 나라사랑 정신 교육 사례

1. 미국의 청소년 대상 나라사랑 교육

가. 미국의 교육에 반영된 애국심

1898년 미국스페인전쟁(Spanish-American War) 중 미국의 많은 교육기관과 애국단체는 ‘충성심 · 자국주의 · 국가주의(loyalty, Americanism, and nationalism)’를 강조하는 활동을 시작했으며,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충성의 맹세’나 ‘국기에 대한 경례’는 19세기 말까지 많은 공립학교에서 실시되어졌다. 예를 들어 뉴욕 주에서는 공립학교에서 미국 국기를 게양하고 애국활동을 하는 것이 1898년 주법에 의해 장려되었다.

1900년에는 학령기 아동에게 애국심을 심어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뉴욕 주 공공교육 주교육장인 스키너(Charles Skinner)가 「애국심 매뉴얼(Manual of Patriotism)」을 출판하여 뉴욕 주 교육관계자에게 배부하였다. 47페이지로 구성된 이 매뉴얼에는 애국적 맹세, 국기 · 경축일에 대한 설명, 건국 역사, 애국가, 애국시 등이 수록되어 있었다. 스키너는 서문에서 학교는 ‘애국심 양성소’가 되어야 하며, 각 교실에서는 아침 조회시간에 이 매뉴얼을 사용하여 수 분 동안 애국적 활동을 할 것을 권장하였다.

현재에도 미국의 많은 학교에서는 매일 아침 ‘충성의 맹세’나 ‘국기에 대한 경례’와 같은 애국심 고취 의식을 행하고 있다. 이러한 의식을 통해 학생들은 소속감과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 즉, 아동들에게 있어서 ‘나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이지만, 애국적 상징인 국기에 의해 그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애국적 집합 의식에 참가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소속감과 일체감을 실감하게 된다. 또한 학교에 서 경찰이나 소방관 같은 '공동체 도우미들' 그리고 규칙과 법의 필요성에 대해 공부하며,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교과서를 통해 4~6학년 학생들은 보통 미국의 역사 그리고 권리장전 및 미국헌법의 기본 원리들을 배우게 된다.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은 1년 과정의 미국사 및 한 학기 과정의 정부론을 이수하고, 다수의 주에서는 주 역사, 경제, 법, 시민론 과목도 일반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즉, 미국 중심의 교육을 받으며,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통해 미국의 우월성에 대해 학습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미국에 대한 자부심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 게 되고 이것이 애국심과 연결되게 된다. 이와 같이 학교는 애국심을 함양하는 담당자 기능을 수행하고 많은 학생들의 애국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보이 스카우트, 걸 스카우트와 같은 사회단체 활동을

통해서도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미국의 많은 사회단체는 정기적 모임에서 '충성의 맹세'를 제창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활동은 애국심과 감사하는 마음을 고취시키기 위해 설정되어 있다.

한편, 미국 대부분의 스포츠 이벤트에서는 국제경기와 국내경기에 상관없이 경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선수, 관계자, 관객이 국기를 향해 국가를 제창한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스포츠 이벤트는 대규모 사회적 집합공간이며, 이것은 국가 제창이라고 하는 애국적 집합 의식을 행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일체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애국심을 자극하고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이러한 애국적 집합 의식은 '충성의 맹세'와 같은 애국적 감정을 고양시킨다. 즉, 모두가 동시에 국기에 경의를 표하고, 국가를 제창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일체감을 느끼며, 애국심을 자극한다. 미국 사회는 스포츠 이벤트라는 대규모 사회적 집합 공간을 이용해서 국가 제창이라고 하는 애국적 집합의식을 통해 학생들의 애국심을 함양, 강화, 유지하려고 한다.

미국의 대부분의 경축일은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년 7월 4일 독립기념일(Independence Day)에 가정에서는 미국 국기의 색인 빨간색 · 흰색 · 파란색 셔츠를 입거나, 빨간색, 흰색, 파란색의 케이크를 먹으며 국가의 탄생과 현재 누리고 있는 자유에 대해 경축한다. 매년 11월 11일 제대군인의 날(Veterans Day)에는 가족과 함께 국립묘지를 참배하며 전사한 국인에 대한 경의를 표하거나 퇴역군인 퍼레이드와 같은 애국적 집합의식 참가를 통해 전쟁의 아픔과 희생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학교에서도 중요한 국가 경축일이 가까워오면 교사는 그 경축일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함께 그와 관련된 미국 역사, 현재 · 과거의 대통령에 대한 설명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애국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러한 국가의 경축일을 통해 학생들은 미국의 건국, 경축행사의 중요성, 미국에 대해 학습하고 자연스럽게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기회를 정기적으로 갖게 된다.

2001년 9월 20일 동시다발테러사건(9 · 11사건)은 미국인의 애국심을 자극하고 고양시켰다. 미국의 언론은 애국적 보도를 전면에 배치하였고, CNN과 FOX 뉴스와 같은 방송국에서도 회사 로고에 성조기 디자인을 삽입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9 · 11 테러 사건 이후 슬픔과 분노가 자국에 대한 맹렬한 애국심으로 바뀌었으며, 자연스럽게 개인주의적 사고, 나아가서는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 이제껏 보여 주었던 관용적인 태도가 퇴보하연서 집단주의적 정서와 사고가 팽창하고 있다. 미국 학교들은 조회 때 하던 성조기에 대한 맹세를 다시 의무화하고 애국심을 강조하는 수업과 교내외 활동들을 대폭 늘렸다. 그러나 아직도 인종주의

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미국의 현실 속에서 학교에서 지나치게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위험성은 일본 애국심 교육의 예에서 볼 수 있다.

나. 미국 교육에 나타난 애국심 교육의 방향

최근 수십 년 동안 미국 언론의 교육란에는 미국이 처한 공교육, 특히 초, 중등교육의 심각한 문제와 미국 학생들의 형편없는 학업성취도에 초점을 맞추고, 연방정부를 중심으로 하여 학교 현장에 강력하게 책무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교육정책을 주창하는 목소리가 높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게이츠 회장은 지난 2005년 미국 50개 주의 주지사들이 공동 주최한 행사에서 “망가진 미국 공교육을 살리지 않고, 많은 고교생이 외면하는 수학·과학 교육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중국과 인도를 상대하기 어렵다”며 공교육에 경종을 울리기도 했다.

공교육에 대한 개혁요청에 부응해서 부시행정부는 NCLB(No Child Left Behind) 법에 의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을 시행하였다. 이 법은 1965년 존슨 대통령의 “초중등교육법”을 초석으로 하여 레이건 행정부의 ‘Nation at Risk'나 부시 행정부의 ’America 2000', 클린턴 행정부의 'Goals 2000'으로 이어져오다, NCLB의 4대 기본원리는 1)책무성(accountability)의 원리, 2) 자율성(freedom)의 원리, 3)과학적 방법의 원리, 4)선택권(choice)보장의 원리이다. NCLB는 현재 연방교육부가 추진하는 최대 규모의 초, 중등 교육재정 지원프로그램이다.

미국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계층의 학력격차와 인종과 사회계층에 따른 교육 불평등 현상이다. 이러한 문제점 극복을 위해 부시 대통령은 몇 가지 특별한 제안을 하였다. 우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보다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성취도에 대한 다양한 고급 정보 획득을 목표로 하며, 둘째, 공립학교들에 학교 개혁을 위한 유인책(Incentives)을 확대하고, 자녀들의 학교선택권을 갖게 되는 학부모들에게 방과 후 보충수업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의 자녀들이 보다 나은 학교로 옮길 수 있도록 보장하였다. 셋째, 교사들을 위한 유인책을 확대하고 연구중심의 교재도구를 개발하여 지원함으로서 교사들이 학생들 간의 학력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고, 넷째, American Competitiveness Initiative의 교육 분야를 NCLB법으로 통합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개별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여 적정 수준에 도달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 등이다. 미국의 공교육 정책은 지속적으로 강화 시켜 나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애국심을 고취시켜 나가고 있다.

애국심은 자기가 속한 국가에의 자연스런 애정이며 연대감에 수반하는 책임의식으로 역사적 근원을 살펴보면 근대적 의미의 애국심은 서구의 봉건제도가 붕괴

되고 절대주의국가가 성립한 시기에서 유래하고 있다. 이 시기의 애국심은 절대군주에의 충성과 국가에의 충성이 결합한 것으로서 민중을 영주, 교회, 길드(guild)로부터 해방하고 통일국가를 이루는데 이용하였다. 그 이후 시민혁명이 일어난 영국과 미국 등지에서는 애국심이 시민들을 횡으로 굳게 결합시키는 원리로서 작용하였으나 같은 시기에도 정치·사회적으로 봉건성이 짙게 남은 독일, 러시아, 일본 등지에서는 애국심이 국가에의 시민적 충성보다도 시민적 복종의 색채가 강했으며 민중의 밑으로부터의 자발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위로부터의 교화정책으로 육성되었다.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도 제국주의화하여 애국심을 식민지 침략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으나 이와 같은 시기에 민족주의라는 또 다른 애국심이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식민지에서 나타났다.

애국심은 이와 같이 시대상황과 그 나라가 처한 입장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진정한 애국심은 자신의 나라가 진실로 국민을 위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가 되었을 때 발휘되는 애국심이 아닐까 생각한다. 예를 들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과 일본 모두 무기와 전쟁물자 생산을 군수공장만으로는 생산력이 부족하여 민간공장에 위탁생산을 하였다. 일본은 민간공장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검사하는 검사관을 2천여 명이나 배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불합격품이 2할 이상 나왔는데 미국은 검사관이 없어도 불합격품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인들은 국가에 의해 조작되는 형식적인 애국심보다는 자기가 속한 조직의 명예와 의무를 중히 여기는 윤리관을 바탕으로 국가의 요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했지만 일본인들은 메이지유신 후에 성립된 절대주의 정부가 의무교육을 통하여 군국주의의 침략도구로 이용한 강요된 애국심이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하겠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참으로 숭고하고 아름다우며 보는 이로 하여금 흥분과 설레임을 갖게 한다. 국가 간 운동시합이라도 하면 위정자들이 아무리 미워도 초조한 마음으로 자기나라의 승리를 기원하는 것처럼 조국은 무한사랑의 대상이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태어난 조국은 우리 자신과 운명적으로 맺어져 있다. 우리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마음대로 이 나라를 떠날 수도 없다. 따라서 나라가 바르면 사랑하지만 바르지 못하면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된 애국심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결코 나라에 맹목적으로 복종한다거나 나라에 대한 비판을 중지한다는 것은 아니다. 도리어 나라를 사랑하면 할수록 엄정한 비판은 조국의 현상을 더욱 더 좋은 방향으로 가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누군가의 행동을 애국심일가 불러야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국민에 대한 자연스런 애정이 흘러넘친다면 국가와 국민의 관계는 최고의 바람직한 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다만 과거

의 전쟁만큼 애국심으로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밀접하게 하기에는 어렵겠지만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애국심을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의 이익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임진왜란, 6.25전쟁 등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의병 등 일부 국민들은 오로지 나라를 구하기 위한 자발적 애국심을 발휘하여 국난을 극복한 역사적 사실이 있으나 근대화 과정에서 국가 지도층이 애국심을 지배 권력에 대한 적대자를 매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결과 이제는 애국심이란 말만 들어도 본능적으로 반감을 드러내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여 국가와 국민을 자연스럽게 하나로 연결하는 고리를 잃어버 리지나 않을까 매우 안타깝다.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역사적으로 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으며, 국민들은 위기 때 마다 최고의 애국심으로 국가의 결정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애국심은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는 무질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잘 조련된 교육의 산물로 오늘날 이들 국가들이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국가와 국민이 하나가 되어 동요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었다.

미국에서의 애국심 교육을 살펴보면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다음 3가지 가치관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첫째, “관용의 정신”으로 조국에 봉사하는 길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독점되는 것이 아니라 입장의 상위. 가치체계의 상위를 초월한 각 개인의 경험과 확신에 맡겨져야 한다는 것을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서 자기의 확신. 가치관에 대립하는 자를 비국민, 매국노로 배척함이 없이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여 다함께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에 애정을 갖게 하는 것이다. 둘째, “자율을 바탕으로 한 책임과 의무”로 사회나 타인을 무시한 독선적이고 함부로 타인의 사생활에 개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자신의 직업에 최선을 다하며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신사도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스포츠맨십”으로 스포츠를 애국적 인간상 형성의 중요한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스포츠에 의해서 철저히 단련된 페어플레이 정신이란 “절대로 룰(rule)을 지키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협력하는 것, 승부에 구애받지 않는 것”으로 스포츠맨십은 다른 어떤 가치관 보다 중요시하고 있다.

한편 미국이 짧은 역사에 다민족 국가이면서도 뜨거운 애국심을 갖게 만든 것은 “국가에 대한 충성의 맹세(나는 아메리카 합중국의 국기와 그것이 상징하는 공화국에 충성을 맹세한다, 그 나라는 하나님 아래 하나요, 불가분이며 모든 사람에게 자유와 정의를 보장한다)”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육성하기 위하여 그들의 정치체제와 제도, 그리고 정치적 과정에 대한 올바를 지식을 갖게 하며 각자의 시민적 권한과 의무, 봉사를 이해하여 정당한

정치적 참여를 하게 하는 능력을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을 받은 미국인들은 위기와 곤경 속에서 더욱 더 강해진다는 사실이 1980년 이란 미국 대사관 인질극 사건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 시기는 미국이 월남전 패배 후유증과 세계 경제 침체로 인해 가장 혼란스럽고 난관에 봉착했던 시기로 이란은 호메이니의 회교 공화국 출범과 더불어 반미 감정이 격화되어 이란 대학생들이 미대사관을 점거하였다. 카터 전 대통령은 인질 구출작전을 감행하였으나 어이없는 실패로 끝났다. 그러나 미국 사회가 보여준 반응은 놀라웠다. 카터의 많은 정적들은 그의 참담한 실패를 비웃기보다는 오히려 동정하고 정치적 지지를 하였으며 거의 90%이상의 국민들은 실망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카터의 결정에 찬성했다. 왜냐하면 미국인들은 참담한 결과보다는 카터의 용감한 결단력과 모험을 강행할 수 있었던 진지한 노력과 주저하거나 비구해 하지 않고 실패와 동시에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말한 것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실로 강할 수 있는 것은 군사력이나 경제력보다는 그것을 지탱하는 국민들이 보여준 실망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국가를 신뢰하는 결백한 애국정신 때문일 것이다. 미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지배계층은 영화나 스포츠 등을 통해서 무한한 자원과 광활한 영토 등 신으로부터 혜택 받은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민들이 목숨을 바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무의식적이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다. 미국의 애국심 고취와 보훈정책

미국의 보훈제도는 1636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Mayflower)호를 타고 북미대륙 플리므스(Plymouth)항에 기착하여 나라를 개척하던 초창기에 토착 아메리칸 인디안과의 전쟁에서 희생된 사람들과 그 유족들을 '영국 식민통치 공동체'가 보호하고 지원하던 것이 효시이다. 또한 이들의 성스러운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해 엄숙하게 장례식을 치루고 죽음을 기념하던 것이 미국 보훈선양제도의 시발이라 할 수 있다. 이후 1776년 독립전쟁에서 부상을 당한 군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로 시작하여 초기에는 '전쟁부'의 연금국에서 업무를 관장하였으나 1921년 제대군인 업무를 통합해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내무부에 '제대군인지원국'을 창설하여 모든 업무를 통괄하게 하고 1930년 정부조직 정비 시 제대군인처(The Veterans Administration)를 신설하였다.

이후 1989년 제대군인처가 연방내각의 14번째 '부'인 제대군인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DVA)로 확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865년 남북전쟁에서 희생된 전상용사와 그 유가족을 연방정부가 지원과 예우를 다하여야 한다고 주창한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람 링컨이 제2기 대통령 취임연설에서

인용한 “전쟁을 수행해 나갈 그 사람과 그들의 미망인 그리고 그들의 고아를 보살피기 위해”가 미국 연방정부의 보훈이념 모토가 되었으며 오늘날 미국 제대군인부의 주요임무로 되어 있다. 오늘날 미국이 국제평화와 자유,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세계 최강국으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지켜나가는 것은 미국의 보훈정책이 확고하고 위로는 대통령과 정치지도자는 물론 모든 국민들이 솔선수범하여 나라사랑 정신을 실천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구상의 각 지역에서 국제 경찰로서의 역할을 다하다보니 1, 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 그리고 베트남전,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 등 수많은 전쟁과 대테러전에 참전하게 되고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자국민 중 많은 전사 및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었으나 잘 정비된 보훈제도와 보훈정책으로 큰 동요없이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오히려 이러한 전쟁에서 희생한 자국민에 대한 여러 가지 보훈시책 을 통해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이러다 보니 미국의 보훈조직은 클 수밖에 없는데 1989. 3. 15 연방정부의 열네 번째 부(Department)로 격상된 미국 제대군인부의 정원은 약 27만 8천명으로 미국연방정부의 총 공무원 303만 8천명의 9.2%에 해당하여 직원규모로는 내각에서 국방부에 이어 두 번째이다. 미국 제대군인부는 국민의 1/3을 직접 또는 잠재적 행정대상으로 하면서 연간 약 1,000억불의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 제대군인부는 워싱턴 DC에 본부가 있고 미국 전역에 제대군인 의료처, 제대군인 보상처, 국립묘지관리처 등의 산하 지방조직들이 있다. 제대군인 의료처는 전국에 153개의 병원, 1,400개의 외래진료소, 135개의 양로원, 47개의 요양원, 232개의 재활 카운슬링센터 등을 가지고 있고, 제대군인 보상처는 57개의 지방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국립묘지관리처는 131개의 국립묘지를 관할하고 있다. 미국의 상·하 양원에는 보훈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행정부와 의회가 보훈정책을 협의해 나가고 있다.

미국은 여러 민족이 한 나라를 구성한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민족주의의 뿌리가 약할 수밖에 없어 국민통합의 근간이 되는 국민의 애국심 함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더 요구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보훈행정의 대상을 모든 제대군인으로 하고 있어 방대한 조직과 예산, 인력을 가지고 각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면서 제대군인과 유족을 위한 소득보장, 보건의료, 주택, 교육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미국의 제대군인부는 현재 국방부 다음으로 직원 수가 많은 큰 규모로 국방부와 밀접한 업무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재향군인회 등 보훈단체의 정치적 영향력이 계속 증대되고 있으며 제대 군인부와 원활한 협력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미국은 의회중심의 정치체제에서 법령제정이나 예산확정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주요 정책 결정

시는 반드시 공청회나 청문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이때 보훈단체들이 이해관계인 대표로 참석하게 된다. 보훈단체들은 전반적으로 제대군인부의 독립성과 정책을 지지해 주고 있다.

미국에는 참전단체 등 보훈 관련단체가 230여개 있으며 이들 단체는 법령으로 정부나 의회에 보훈정책을 권고 내지 건의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상이군인회(Disabled American Veterans : DAV), 해외참전용사협회(Veterans Foreign War of the United States), 재향군인회(American Legion) 등 주요 단체들의 연례총회에는 대통령이 꼭 참석하여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전통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대통령의 활동은 TV방송 등 각 언론 매체에서 능동적으로 보도하여 국민들의 보훈의식을 함양하고 있다.

미국이 국민의 애국심 함양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보훈정책을 살펴보면 오늘날 미국이 국제경찰국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 미국은 1,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 그리고 베트남전쟁 등에서 수많은 전사자가 발생했고 최근에는 이라크 전쟁에서 4,430여 명과 아프가니스탄 전에서 1,430여 명의 전사자가 발생하였음에도 큰 동요가 없이 국제경찰국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무엇보다 국민들의 애국심을 함양하고 결집시키는 잘 정비된 보훈제도와 보훈정책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같은 보훈선진국에서는 무공훈장을 가슴에 패용한 참전용사나 휠체어를 탄 상이군인에게 거수경례 등으로 국민적 존경심을 표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이 모두가 사회 전반에 나라위한 희생과 공헌을 존경하고 예우하는 보훈의식과 보훈문화가 정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전쟁에서 실종된 한명의 병사라도 끝까지 구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나라로 유명하다. 또한, 미국군이 참전했던 지역에서 전사 실종된 장병들의 유해 발굴 및 송환을 위해 국가가 끝까지 솔선하고 있는 것도 미국의 보훈선양정책의 특징 중에 하나라 할 것이다. 미국은 6·25전쟁이 발발하고 휴전한지 60여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전사자 유해를 발굴하여 유족에게 엄숙히 전달하고 그 후손을 우대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6·25전쟁에서 미군 병사 2000명 이상이 포로로 잡혀 있다가 사망했으며, 이들을 포함해 8001명의 병사가 아직도 실종 상태로 남아 있다고 밝혀 실종자에 대한 추적과 유해 발굴을 계속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에게 나라위한 희생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 보훈제도와 보훈정책의 큰 특징은 대통령을 비롯한 연방 및 각 주의 의회와 각계각층의 사회지도층이 솔선 참여하여 참전용사와 제대군인들을 존경하고 예우하는 모습을 실천적으로 보여주고 언론은 이를 여과없이 국민들에게 전달함으

로써 자연스럽게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대통령은 이라크전쟁이나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 중상을 입은 상이용사와 그 가족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하여 오찬 또는 만찬을 함께 하기도 하고 각종 전쟁에서 무공이 있는 상이군인이나 참전용사들을 찾아내어 미군 최고의 무공훈장인 '명예의 훈장' (Medal of Honor)를 직접 수여하기도 한다.

2011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전쟁영웅들에게 '명예의 훈장'을 수여한 실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오바마 대통령이 오사마 빈라덴을 사살한 후 처음으로 가진 공식행사는 2011년 5월 2일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60년전 6·25전쟁에서 전사한 하와이 출신인 앤서니 카호오하노하노 일병과 뉴저지 주 출신인 헨리 스벨라 일병 등 미군병사 2명에 대해 '명예의 훈장'을 수여하는 일이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연설하면서 한국전 참전용사의 넋을 끝까지 챙기면서 고인을 위해 박수를 보내자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이처럼 미국의 대통령은 이와 같이 전쟁영웅들에 대해 명예훈장을 수여하고 안장식에 참석하는 등으로 이들과 유가족들을 위로 격려하는 모습을 언론 등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자연스럽게 국민통합을 이루면서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미국과 같은 보훈 선진국의 정치지도자, 지식인 및 일반 국민들에게는 국가나사회공동체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과 공헌을 한 국민들은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고 공동체 조직원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어야 한다는 보훈의식이 정립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자유 민주주의와 정의를 존중하는 사회일수록 확고하게 국민들의 정신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식이 없으면 국가나 사회공동체를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할 국민이 없어지고 부국강병의 정신적 기반이 무너져 나라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신은 유아에서부터 교육으로 의식화되고 생활화 되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미국 등의 보훈 선진국에서는 보훈선양 프로그램에 청소년 등 국민들의 보훈의식을 함양시키는 교육 및 현장 체험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들 국가들은 1차 세계대전 정전 기념일인 11월 11일을 제대군인의 날(Veterans Day) 또는 현충일(Memorial Day)로 지정하여 매년 이 날 청소년들이 참석하는 백일장, 사생대회 등의 각종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있다. 이러한 행사에는 청소년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상급학교 진학 시나 취업 시에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 증명서 등을 교부하고 있으며, 미국의 보이스카웃트와 걸스카웃트 회원들은 이들 보훈행사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제대군인부(DVA)의 홈페이지에 Kids 창을 운용하고 각급 보훈단체들은 청소

년 장학제도와 올해의 선생님상 등을 제정해서 운용함으로써 청소년층의 보훈의식을 함양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영연방국가들과 프랑스는 청소년과 교사 등이 참여하는 해외 참전전적지 순례행사를 매년 개최하는 등으로 현장체험을 통한 보훈선양 프로그램을 다각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등의 보훈선진국에서는 각급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 국가나 사회공동체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을 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이에 대하여는 모든 국민들이 오래 기억하면서 인정하고 이해하며 최고의 영예와 권리를 부여하는 민주적 시민정신을 갖도록 하고 있다.

미국과 같은 보훈문화가 발달된 보훈선진국에서 국가위기 시에 국가지도자 등 사회지도층 인사가 솔선하여 먼저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는 노블레스 오브리제 정신이 충만한 것도 그렇고 휠체어를 탄 전상군인이나 무공훈장을 가슴에 단 참전 제대군인에게 길을 가던 국민들이 거수경례를 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 것도 모두 국민들의 생활 속에 보훈의식과 보훈문화가 자라잡고 있는 한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보훈부와 연방정부의 관련기관 등이 발행하는 각종 문서 하단에 “Veterans First"라는 문구를 표시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미국과 같은 보훈선진국들은 수도의 제일 중요한 위치에 국민들의 애국심을 결집시키고 보훈의식을 선양하기 위한 상징적 장소를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갖추고 있다. 미국의 경우 수도인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서 링컨기념관을 거쳐 포토맥강 건너 알링턴 국립묘지(The National Mall + Arlington National Cemetery)까지 하나의 축으로 그 일대를 애국성역 벨트로 구성하고 있다. 이곳에는 1,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등의 참전 기념시설과 링컨 기념관, 워싱턴타워 등이 있고 세계평화와 자유 그리고 정의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미국의 역사가 살아서 숨 쉬고 있으며 이곳을 찾는 국민들에게 자연스럽게 애국심과 보훈의식을 심어주고 있다.

National Mall은 미국이 세계 최대강국임을 상징하는 보훈정신 선양의 목적물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곳을 찾는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제대군인들의 위훈을 느끼고 미합중국의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

보훈문화가 정착되어 있는 다른 보훈 선진국에서도 이와 같은 보훈상징의 장소가 잘 조성된 예를 볼 수 있다. 영국의 경우 수도 런던 국회의사당 앞 다우닝가와 웨스터민스트 사원 광장과 여기에 위치한 세너터프(Cenotaph)를 중심으로 애국성역 벨트가 조성되어 있다. 프랑스의 경우도 수도 파리의 중심 개선문광장과 콩

코드광장을 거쳐 세느강 건너 상원 의사당까지의 하나의 축이 애국성역 벨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 수도 오타와시 의회건물과 전쟁기념탑 일대의 연방광장을 하나의 벨트로 한 곳이 애국성역이다. 또한 호주의 경우도 수도 캔버라시 의회건물과 맞은편 전쟁기념관 사이의 인공호수와 전쟁기념관까지의 ANZAC Parade 광장을 하나의 축으로 한 지역이 호주의 상징적 애국성역 벨트이다. 이러한 상징적 애국성역에서는 나라마다 연중 끊임없이 각종 보훈선양 행사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장소들을 수시 방문하는 이 나라들의 국민들은 유아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보훈문화에 익숙해지며 보훈정신이 국민의식으로 자리 잡게 된다.

미국에서의 애국심은 인종의 다양성으로 인한 비공통성을 극복하기 위해 모두에게 공통된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도덕적인 구성물이자 서로 교차하는 유사성에 대한 결집을 위한 하나의 공유된 신념이다. 미국 웨스트 포인트(west point)의 교훈은 '의무, 명예, 조국'이다. 의무를 다하고 명예롭게 조국을 지키는 것은 군인정신이자 국민정신에 뿌리깊게 배양된 의식 가운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교육과 문화영역에서 미국이 지향하는 가치들을 전달하고 실천하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으며 보훈영역에서 과거·현재·미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애국심을 고취하는 동기를 끊임없이 부여하고 있다.

미국을 설명할 수 있는 역사적 키워드는 자유, 평등, 개척, 실용주의 등으로 나타나며 이는 미국인들의 문화와 가치체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더욱이 미국은 약한 민족국가의 뿌리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문화자원을 통해 자국의 애국심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 문화의 잠재력은 단기적이고 유형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이고 무형적인 성과를 유발해 낼 수 있도록 문화자원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문화의 경제적 가치 또한 풍부한 문화적 저변이 확대되어서 나오는 부수적인 결과로 작용하여 문화적인 생활양식으로 발전시키는 총체적 관점으로 자리잡아 미국 문화는 전 지구적 생산과 소비의 장으로 역할을 해오고 있다.

미국의 애국심 교육은 애국심은 무엇이고, 어떻게 키워가야 하는가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보다는 학생 스스로 논리적, 독립적인 사고가 가능한 인재육성을 목표로 책임감, 윤리인식, 다른 문화와 인종에 대한 이해 등을 강조하여 '자유' 사상을 중심으로 애국심의 발로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사상과 더불어 다원주의를 토대로 한 다문화정책을 중심으로 '평등' 사상을 강조하고 실천함으로써 결국 사회가 공평하고 투명하다는 인식과 확신이 애국심을 형성하는 핵심요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은 기념관, 역사관, 상징물 속에서 스스로 미국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형성하고 직접적인 애국심 교육보다 가

족단위 중심의 체험과 애국심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동기부여 기회의 장을 제공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이러한 교육이 가능한 것은 미국애국심의 근본적인 뿌리가 되는 역사나 사상의 전달이 체계적으로 조직화된 신념과 태도의 집합으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다양한 인종과 민족의 결합으로 구성된 미국이라는 나라를 결속시키기 위해, 개개인의 국민에게 특별하다는 인식을 고취시키는 것이 곧 국가에 대한 충성의식을 제고시키는 것임을 믿는 사회문화적 배경과 이를 자발적으로 따르는 국민이 함께하여 그들만의 미국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사회가 공평하고 투명하다는 인식과 확신을 줄수록 애국심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고 이러한 시스템 속에 산책하듯이 일상적으로 애국심의 가치와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미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힘이 되고 있다.

애국심은 국가의 건국이념과 이상을 구현하는 정서적인 반응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미국의 애국심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다. 애국심은 행동을 요구한다. 이러한 행동은 명예, 충성심 그리고 보호의 의무감으로부터 나타난 충분히 합리화된 원칙에 의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미국학교교육에서의 애국심은 공공선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협력을 필요로 하는 기술, 지식, 선행 함양을 포함하고 교육의 목적은 이러한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미국의 시민 교육은 단지 과거 혹은 현재에 대한 단순하고 고정된 읽기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 사회에서 다원주의의 요구를 쉽게 수용할 수 있도록 이루어진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통해 모든 가치체계를 수용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시민교육에서의 애국심은 확실한 문화규범, 관습, 제도를 기반으로 타인에 대한 이해와 관용을 넓혀가는 차원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것들이 모여 강한국가의 정신과 마음이 되고 있다.

2. 중국의 청소년 대상 나라사랑 교육

가. 개혁·개방 이후 역사 인식 변화: 민족주의 역사관의 형성

지난 40여 년간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노선을 국가 방침으로 유지해온 결과, 오늘날 중국은 초고속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제적인 영향력을 갖춘 세계 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는 1978년 제 11차 3중전회(中全會)를 기점으로 시작된 사회주의 현대화 개혁이 과거 마오쩌둥 시대의 유산이기도 했던 인민대중의 집단화와 극단적 계급투쟁을 청산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도입을 허용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80년대 말 중국의 경제적 변화와 성장이 점차 사회의식의 변화로까지 나아가게 되면서, 중국 사회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일대의 혼란을 겪기도 했다. 그리고 그 결과로 1989년 천안문 사건이 발생하자 중국 내부에서는 일당독재의 사회주의 지도부에 대한 불신이 표출되었고, 그와 더불어 정치권력을 둘러싼 갈등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체제 유지를 모두 이루고자 했던 중국 지도부는 남순강화(南巡讲话)를 통해 개혁개방을 재천명하고, 이와 동시에 자본주의로 약화된 사회주의 체제를 보완할 강력한 국가 이데올로기를 새롭게 모색하였다. 그리하여 90년대 이후 중국 지도부는 국가에 대한 애국주의를 통해 사회통합을 강화해 나갔고,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사학이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개혁개방 이후 중국 역사학계는 이른바 '중화사상(中華思想)'으로 대변되는 민족주의 역사인식을 기반으로 자국 중심의 역사 논리를 확립하고, 더 나아가 국가에 대한 애국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동북공정(東北工程)[5]과 같은 국가 주도의 역사공정이 실시되면서, 변강(邊疆) 소수민족에 대한 통합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고구려 역사 문제와 센카쿠열도(尖角列島)/댜오위다오(釣魚島) 분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늘날 중국의 민족주의적 역사인식은 중국과 동아시아 주변국들 간의 마찰을 가중시키면서 정치외교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더불어 주변국 내에서도 중국을 부정하고 자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강조하는 배타적 민족주의가 거세게 일어나면서 오늘날 중국의 민족주의 문제는 더 이상 중국 내부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본서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 역사학이 걸어온 과정과 중국과 동아시아 주변국 간의 민족주의 역사인식을 둘러싼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동아시아 국제사회가 나아가야할 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문화대혁명의 종식과 사인방(四人幇)의 제거 이후, 중국의 정치권은 '양개범

5) 정식명칭은 '동북 변강지역의 역사와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공정'(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研究工程)으로 흔히 동북공정으로 축약하여 불리고 있다.

시(兩個凡是)'의 좌경정책을 재창한 화궈펑에서 '실사구시'의 개혁개방을 주장한 덩샤오핑으로 권력이 전환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노선의 변화는 사회 방면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과거 문혁시기에 영사사학(影射史學)으로 불리며 사인방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던 역사학 역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수 있었다. 즉, 11차 3중전회를 통해 역사학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가능해지면서 중국의 역사학 연구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하지만 오래지않아 중국의 민주화를 요구하면서 일어났던 천안문 사건이 정부에 의해 강압적으로 진압되면서, 90년대 중국의 정치 생활과 지적인 생활은 80년대보다 훨씬 더 억압적으로 변하게 되었다. 이는 천안문 사건이 사회주의를 위협하는 체제 위기였을 뿐만 아니라, 덩샤오핑과 자오쯔양(趙紫陽) 간의 정치적 권력 암투로까지 확대되면서 체제 안정과 더불어 권력 강화라는 덩샤오핑의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적 통제가 곧 자본주의를 부정하던 과거로의 회귀를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미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막대한 부를 창출하고 있던 시점에서 중국은 지속적인 개혁개방을 통한 국가성장을 모색하였고, 그 결과 90년대 이후 중국은 구(舊) 사회주의권에서 찾아볼 수 없는 고도의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경제적 자유에 따른 사회적 자유가 부분적으로 보장되는 가운데 중국 지도부는 경제성장과 사회통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새로운 국가 이데올로기의 수용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경제 성장에 따라 높아진 국가 위상과 부국강병의 실현이 중국인의 애국심과 자긍심으로 발현되자 마침내 중국 지도부는 애국주의를 활용한 국가적·민족적 통합을 강화해 나갔다.

이에 따라 중국 지도부는 애국주의의 강화를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써 역사학을 활용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역사학은 사회요구가 부합된 상품화로 변질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종래의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이 퇴조되는 가운데, 이를 대신하여 중국의 찬란한 역사와 전통문화를 강조하는 민족주의 사조가 역사학계의 새로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 이르러 염·황(炎·黃) 숭배의식이 강화되고, 한족(漢族) 중심의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이 강조되면서 중국의 역사학은 한족 역사의 정체성을 확립시키고, 더 나아가 중국 내의 한족과 소수민족에 대한 민족적 융합과 단결을 강화하였다.

그 결과 오늘날 중국은 애국주의로 단합된 사회 내부의 역량을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이라는 경제개발의 원동력으로 재창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성장과 체제 안정을 동시에 이루고자 하고 있다. 즉, 인민의 이익과 국가 발전을 도모하여 당과 정권에 회의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면서 동시에 자본주의 생산체계와 발전

모델을 자신의 국가 운영에 도입하여 중국인의 집체주의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결집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에너지의 응집은 바로 민족주의 역사인식의 확대로 더욱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나. 민족주의 역사 인식의 확대

오늘날 중국의 역사학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약화된 사회주의를 대신할 국가 이데올로기로써 민족주의 역사인식을 활용하여 사회 내부의 통합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의 민족주의는 단순히 개혁개방의 산물로 탄생한 것은 아니며, 오랫동안 중화사상(中華思想)으로 불려온 한족의 전통적 민족의식에서부터 그 뿌리를 두고 있다. 하지만 전통적인 중화사상이란 곧 한족이 세계의 중심이며 그 주변 민족들은 야만의 오랑캐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세계관으로, 통합을 강조하는 현재의 민족주의와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민족관은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청조가 몰락하면서부터 외세에 대한 저항적 민족주의로 차츰 변해갔고, 점차 사회 내부에 차별보다는 단결을 강조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20세기에 이르러 중국 지식인들로부터 중화민족(中華民族)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사용되면서, 중국의 민족개념은 점차 그 의미가 종족을 뛰어넘어 중국 구성원 전체를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같은 민족주의는 현재에 까지도 중국 사회의 통합을 강조하고 있으며, 더불어 전통문화와 역사적 유산을 찬미하는 보수적 내셔널리즘으로까지 나아가게 되었다.

이와 같은 민족주의의 변화와 확대 속에서 중국은 국가 주도의 역사 연구를 통하여 중국의 민족주의를 강조하고, 더불어 민족주의 역사인식을 학문적으로 체계화시켰다. 우선 제 9차 5개년계획(1996-2000)의 일환으로 시작된 하상주단대공정(夏商周斷代工程)은 연대가 불확실한 기원전 841년 이전의 중국 상고사에 대한 연표를 공식적으로 확정하고, 특히 문헌상으로만 존재하던 하(夏)나라에 대해서는 고고학적 근거를 제시하여 BC 2070년부터 BC 1600년까지 실재했던 역사로 정립하였다. 한편 제 10·11차 5개년계획(2001-2010)에서는 그간 신화와 전설로만 전해지던 중국의 삼황오제(三皇五帝)시대에 대한 연구인 중국고대문명탐원공정(中國古代文明探源工程)이 추진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중국 정부는 기존에 황허(黃河) 중하류를 중심으로 하던 중국 문명의 연구 범위를 동북의 랴오허(遼河) 유역으로까지 확대하였고, 대상 연대의 상한도 BC 2500년에서 BC 3500년으로 높여 고대 중국 문명에 대한 시공간적 범위를 대폭 넓혔다.

그 결과 국가 주도의 역사 공정은 중국의 역사와 문명에 대한 우수성을 대

내외적으로 알리고, 중국 문명의 태고성을 강조하는 효과를 얻어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국민들에게 중국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중화 민족의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중국 정부의 의도가 포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연구 결과는 현재까지도 중국 상고사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지나치게 하나의 결론으로 단정 지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역사 공정을 민족주의의 정치적 표현일 뿐 과학적 학문의 적절한 태도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태이다.

또한 이러한 국가 주도의 연구는 한족의 역사뿐만 아니라 한족 주변의 소수민족에 대한 역사 재편성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이를 둘러싼 문제가 더욱 가시화 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흔히 서북·서남공정으로 알려져 있는 중국의 서부대개발(西部大開發) 계획과 동북공정을 들 수 있다. 우선 전자의 경우는 개혁개방 이후 동남연해를 중심으로 경제개발이 진행되어 발생한 동부와 서부의 지역격차를 줄이기 위해 2001년부터 실시된 사업이다. 그러나 이는 경제개발뿐만 아니라 변강 소수민족을 한족 문화에 동화시키고, 나아가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억제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1983년 중국사회과학원(中国社会科学院) 직속으로 설립된 중국변강사연구중심(中國邊疆史研究中心)과 1986년에 설립된 중국장학연구중심(中國藏學研究中心)을 통해 중국 정부는 일찍이 서부지역의 경제·역사·문화 등을 중화민족이라는 틀 안에서 한족 중심으로 재편성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 서부대개발을 통해 이러한 통합정책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 밖에 고구려 역사 왜곡 문제로 국내에서도 잘 알려진 동북공정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변강사연구중심에서 진행된 국가 주도의 역사프로젝트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중국은 '오늘날 중국 영토 내에서 중화민족의 각 민족이 이루어낸 역사는 모두 중국사'이며, '현재 중국의 영토에서 활동했던 모든 민족은 당연히 중국 민족'이라는 영토 지상주의 역사관을 만들어 고구려 역사를 중국사에 편입시키고 있다. 이 같은 논리는 우선 중국 동북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이탈을 방지하려는 내부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붕괴에 따른 탈북자 문제, 그리고 한민족 통일로 야기될 수 있는 간도(間島) 영유권 문제 등, 향후 한반도 정세에서 공세적인 입지를 강화하려는 외교적 목적 역시 동북공정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민족주의와 애국정신 교육의 강화

중국 정부는 학술적 연구에서뿐만 아니라 이러한 연구 성과를 학습시키는

교육 부분에서도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우선 개혁개방 이후 개인의 소질과 실용성이 중시되고 있는 중국의 교육제도는 1980년대 후반부터 9년제 의무교육의 실시와, 교육과정의 개혁, 그리고 소질교육 강조 등을 통해 다양성의 길을 걷고 있다. 특히 2001년부터는 교과서 검정제도가 시행되면서 교육의 자율화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전과 함께 여전히 민족과 애국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역사교육은 역사학의 학문적 내용보다는 국가의 정치적 결정을 교과서에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가령 교과서 편찬 시에는 '조국통일과 민족단결의 유지 보호'가 반드시 구현되어야 하며, 또한 이를 파괴하는 서술행위가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을 역사교육에 철저히 관철시킴으로써 중국은 한족과 소수민족에 대한 민족적 융합과 단결을 공고히 하여 민족 간의 갈등을 불식시키려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중국은 역사 교육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문화산업 방향에서도 민족주의를 강화하고 있는데, 특히나 중국의 영화산업이 정치적 선전도구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실제로 2000년대에 들어 영화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중국의 화려한 문화와 고대 역사를 다루는 무협영화들이 지원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는 전통 무협이라는 친숙한 소재가 중국인들에게 중화민족에 대한 정체성을 강화시킬 수 있고,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선전하기에 유리한 소재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진나라(秦)의 통일을 통해 중화민족의 통합을 강조한 『영웅』이나, 중국 황실의 화려함을 강조한 『황후화』 등 여러 대작들이 제작되어 흥행 면에서 큰 성공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국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 내에서는 소수민족들이 독립을 요구하면서 중국 정부에 대하여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비록 중국이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을 내세우고 있다고는 하나, 그것이 한족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은 차별적인 성격을 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통합정책은 소수민족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크게 훼손시키고 다민족인 중국 사회를 한족 중심으로 획일화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중국에는 한족을 포함한 56개의 민족과 130여 종의 다양한 언어가 존재하고 있으나, 언어의 상당 부분이 이미 사라졌거나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한다. 또한 중국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한족과 소수민족 간의 교육·경제·권익과 같은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격차가 크며, 그로인한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 한족과 소수민족 간의 갈등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역사학은 경제적 자유와 사회적 통제, 그리고 순수학문과 상품화문제 등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복합적인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한편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성공이 가져다 준 중국의 국제적 위상과 부국강병의 실현은 곧 애국주의로 점철된 중국의 민족주의 역사인식의 형성을 야기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은 중화민족의 개념을 통하여 소수민족에 대한 민족적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친 한화정책으로 인하여 소수민족의 거센 반발을 받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민족문제가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대외적 마찰로까지 번지면서 현재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이 결코 곱지만은 않다. 하지만 이를 단순히 중국 정부의 패권주의로만 해석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자세라고 할 수 없다.

중국의 민족주의 역사인식을 단순히 중국 정부의 패권주의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광활한 영토와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는 중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상태에서 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전망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현재 중국이 강조하고 있는 민족주의를 무작정 옹호하자는 것이 아니다. 자유로 대변되는 세계화시대에 중국은 아직까지도 일당독재의 폐쇄적인 정치권력을 통해 사회 내부의 자유를 억제하고 있다. 또한 민족문제 역시 표면적으로 통합을 강조하고 있으나, 그것이 실제로는 한족 중심의 통합이며 그로 인해 소수민족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중국 사회 내부에서 개선되지 않는 이상 중국은 국제사회로부터 꾸준히 패권주의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고, 대내외적인 마찰들 역시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다.

3. 일본의 청소년 대상 나라사랑 교육

가. 민족주의 교육의 등장

민족주의(Nationalism)는 개념 해석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다양한데, 크게 세 가지 뜻으로 나눌 수 있다. 무엇보다도 민족주의는 민족, 국민, 국가 중 어느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민족주의, 국민주의, 국가주의로 번역 될 수 있다. 민족주의는 '민족을 으뜸으로 생각하여 그 독립과 통일과 발전을 꾀하려는 사상과 운동을 가르침'으로써 민족주의에는 두 개의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민족주의 국제주의와 관계되는 형상적이고 진보적인 일면이고, 다른 하나는 전체주의, 쇼비니즘(Chauvinism), 배타주의로 변한 반동적 이념의 일면이다. 즉, 정치적인 국가를 문화적 민족성에 일치 시킨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 교육계에서 민족주의 교육이 기원하고, 힘을 받게 되는 배경은 다른 나라와 많은 차이가 있다. 인간은 개인으로서 먼저 존재하고 다음으로 공동체와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지만,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른 인간들과의 공동생활을 즉, 사회와 더불어 존재한다. 따라서 사회적 존재인 인간은 그 본질에 있어서 도덕적인 존재라고 하든지 혹은 이성적인 존재든지 모두 고립된 개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본질은 인간과 인간을 연결하는 공동체 안에 있다. 인간의 사회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조건은 사회 속에서 남과의 접촉 내지는 교섭을 통해 남이 보유한 경험을 수용하는 일이다. 밖으로부터 오는 남의 경험 없이는 사람다운 정신의 발달을 이룩할 수 없다. 사회 역시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전달함으로서 그 사회를 존속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한 민족의 문화적 전통을 다음 세대로 전달함으로서 그 민족의 존속을 기할 수 있다. 따라서 민족의 교육은 영원한 사회적 현상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이처럼 민족의 존속과 교육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으며 민족의 영원한 존속을 위해서는 참 된 민족의 교육 즉, 민족 교육이 필요하며, 시대적인 필요성으로 볼 때 역시 민족교육은 중요시 되고 있는 만큼 그 발생과 변천에 대한 올바른 노력이 필요하다.

민족주의 교육의 유형에는 첫째로 사회주의와 문족주의 교육, 둘째로, 진체주의와 민족주의 교육, 셋째로, 민주주의와 민족주의 교육, 넷째로, 문화중심의 민족주의 교육을 들 수 있는데 여기서는 네 번째인 문화중심의 민족주의 교육을 중점적으로 다루겠다. 민족주의 교육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부정적 방면의 민족주의 교육 형태는 힘에 의한, 즉 경제적, 무력적, 정치도구로서의 것이고, 긍정적인 것으로는 문화 중심의 민족주의 교육이다. 민족주의를 발달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식은 민족 일반이 공통된 문화와 기풍을 취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서는 모든 민족이 공통적인 국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유리한 것이 없다. 그 예

로서 미국에서는 영어와 영문학 교육이 크게 강조되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지도자들이 독일어, 이태리어, 스페인어 등 일반 주민이 쓰는 방언사용을 가급적 배제하기 위하여 전국의 모든 학교에 표준 불어 교육을 요청하였다.

민족주의 교육 운동가들이 국어 교육 다음으로 강조한 것은 그들의 역사와 지리교육이었다. 프랑스 지도자들은 역사와 지리교육을 주장하였고, 중학교의 교과목으로 오랫동안 국사와 지리가 필수 과목이 되었다. 다음을 중요한 민족주의적 교육의 과목은 정치와 국민의 의무에 관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독립선언문과 헌법 서문의 기억을 요청하였고, 프랑스는 인권 선언을 암송하도록 요청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독일에서는 지도자와 조국을 사랑하도록 배웠고, 그들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사회 제도와 국가의 법률을 이해하도록 교육되었다. 이것들은 모두가 자기 나라의 말로 행해졌기 때문에 더욱 민족의 정신세계에 깊이 스며들었다고 말 할 수 있다.

민족주의 교육의 교과과정의 일부로 나라사랑 정신을 키우는 음악도 중요시했다. 또 국민의 건강, 체력, 보건을 위하여 계획한 체력 훈련이 포함되었고 이 밖에도 생산, 노동, 과학을 중시하는 일이 많았으며 어린이들에게는 민족 신화도 효과적인 것으로 사용되었다. 민족을 형성함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은 말의 힘이다. 말 다음에 가는 것이 핏줄이다. 핏물은 말 속에서 녹아나고 말은 핏줄을 빨아들이는 힘이 있다는 것처럼 민족주의 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문화적인 것이고, 그 문화의 한 요소로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것은 곧 말의 힘이다. 여기서의 말은 살아있는 글말을 뜻함인데, 살아있는 말은 민족의 정신을 건드리거나, 정신에서 나온 말이거나,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말이다. 이처럼, 말은 문화적 바탕의 민족교육에 가장 중요한 구심점이며, 그밖에 역사와 지리의 부분도 못지않게 민족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나. 교과서 왜곡과 민족주의 교육

일본 교과서 왜곡에 대해 우리 교육과학기술부는 모두 35개의 수정안을 발표했다. 특히 일본 새 역사교과서 검정 신청본 8개가 공통으로 왜곡하고 있는 중요한 25개의 항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정을 요구하였다. 그 중에서 주요 내용은 임나일본부설을 기점으로 삼국의 조공설, 임진왜란, 조선통신사, 정한론, 강화도 사건, 조선의 근대화와 일본과의 관계, 동학농민운동과 청·일 전쟁, 러·일 전쟁, 한국강제병합, 한반도 위협설, 관동대지진, 강제동원과 황민화정책, 군대 위안부 등이 있다.

먼저 임나일본부설은 일본역사왜곡의 시발점으로서 한국과 일본의 50여년간의 연구결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설이다. 이것은 1884년 일본 사카와라는 사

람이 광개토대왕비를 발견하고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주요내용은 일본이 우리나라의 가야지역을 지배하는 임나일본부가 있었다는 설이다. 하지만, 한반도의 가야지역에서는 일본의 유물이나 묘방식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가야지역에서 유명하였던 철기를 일본이 수입하여서 사용해왔던 것으로 들어났다.

고대 일본에 대한 삼국 조공설에 대해서는 일본 교과서가 “고구려가 돌연 야마토 조정에 접근했으며 백제와 신라가 일본에 조공했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측의 주장인 일본서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접근했다’는 문구는 당시 일본의 시대적으로 보았을 때 조작,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또한 일본의 나라현의 호류사의 주춧돌은 백제가 일본에 전수해 준 것이며, 일본의 ‘백제대사’에서도 백제 유물이 다량 발굴되었다. 이처럼 삼국이 왜에 전수해 준 기술 등을 조공으로 표현하는 왜곡된 표현을 사용하였다.

한편 임진왜란을 침략이 아닌 “조선으로의 출병” 으로 표현하여 침략에 대한 반성을 회피했고, 또한 임진왜란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꿈’으로 표현하여 히데요시가 자신의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각 지방의 영주들에게 분배할 땅을 찾기 위해서 침략한 임진왜란의 원인을 밝히지 않고 있다. 또한, 임진왜란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거의 몰살을 당하고 정신적, 물질적으로 많은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왜곡했다.

조선 통신사에 대해서는 “조선이 일본정권이 바뀔 때마다 문안을 드리러 왔다.” 라고 표현하면서 왜곡하였는데, 당시 정권을 잡고 있었던 이에야스는 조선통신사 파견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정권을 잡은 것에 대한 국제적인 승인 및 국민들의 확인, 그리고 조선의 선진문화를 수용하려는 의도였다. 위에 표현된 문안의 표현이 왜곡되었음을 알려주는 몇 가지 사실을 들자면 통신사파견 시 일본에서는 1000여척의 배가 마중을 나왔고, 조선통신사가 올 때마다 숙소를 신축하는 등의 최고의 대우를 해 주었다. 또한 통신사에 있는 조선인이 시 한 수 적어주는 것이 집안의 큰 영광으로 생각할 정도니, ‘문안’이라는 표현은 억지인 것 같다.

한국에 대한 한국 강제 병합 과정에서도 일본이 마치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표현하고 침략행위와 강제성을 은폐하였다. 또한 의병투쟁과 안중근 의거 등 한국의 반발을 최소화 시키고, 극소수의 친일파들을 행각을 부각시켜서 설명해 놓고 있다. 또한 조선인에 대한 강제동원과 황민화 정책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조선에서 수탈 상을 기술하지 않았으며, 조선인을 일본국민의 이루로 간주하여 일본 식민정책의 본질을 은폐하였다. 그리고 강제 동원된 군대 위안부내용을 누락시켰다.

일본 역사학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은 보수파 사학자들인 것으로 보

인다. 일본의 역사교과서는 주로 이들에 의해 집필되며, 이들 보수적 역사학자들과 견해를 같이하는 관료(심의관)들에 의해 검정된다. 그중에서도 후지오카는 기존의 역사교과서가 일본의 국익을 더 이상 지켜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새 역사교과서를 만들었다. 후지오카는 “일본인의 입장에서 자국의 역사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후지오카가 개념 정의하는 역사의 관점, 정신적 태도를 사람들은「자학사관」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자학사관은 자국민(일본국민)을 인류사에 유례없는 잔학무도한 인간집단으로 꾸며, 자국사를 악마적 소행의 연속으로 그린다. 이러한 자학사관을 타파하기 위해서 일본에서는 우익단체인 자민당의 야스쿠니 신사 관련단체가 ‘역사검토위원회’를 설립(1993년 8월)하였으며, ‘종전 50주년 국회의원연맹’ 등의 활발한 움직임을 전개하였다. 또한 일본의 지도층 인사로 구성된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교과서로 인해 다른 7종의 교과서도 군대 위안부 내용을 삭제하는 등의 자학적인 기술이 고쳐졌다면서 일본의 산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를 칭찬했다.

이이처럼 일본의 자학사관(군대 위안부)을 삭제하고, 위에서 언급하였던 임진왜란, 임나일본부설과 같은 항목에서 밝혀지는 한반도, 아시아 침략의 미화하는 교과서 내용은 자신들(일본)의 침략을 정당화 시키고,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중심이라는 이데올로기, 즉 일본의 우월성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러한 일본의 교과서 왜곡과 민족주의 교육과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 우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민족주의 교육은 앞서 말한 민족주의 교육의 부정적인 방면으로 지향하고 있다. 즉 교육을 경제적, 무력적, 정치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일본의 정치인들의 우경화 현상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노로타 호세이 중의원 예산위원장은 “일본의 침략이 아시아 식민지 해방으로 연결되었다”(2001년 2월 18일)는 망언을 하였고, 자민당의 압력으로 교과서 심의위원이 경질되기도 하였으며, 교과서 왜곡에 반대하는 인사들에 대한 빈번한 사이버테러는 말할 것도 없다. 또한 ‘야스쿠니 신사’에 당당히 참배하는 국회의원이 늘어섰고, 1999년에는 태평양전쟁의 상징이었던 ‘기미가요’와 ‘히노마루’를 국가와 국기로 하자는 법도 만들어졌다.

이러한 일본 정치인들의 우경화 현상은 일본의 장기화된 경기침체와도 연결이 된다. 비슷한 예로 1930년대 초 세계적 경제위기가 히틀러의 득세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였으며, 최근 1990년 이후 통일독일에서도 통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역 간 반목과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으로 표출되면서 극우세력이 활발해 졌다. 요컨대 경제적 불황이나 침체가 사회적 및 개인적 불안과 뒤섞이면서 맹목적 애국심으로 단순화되어 편협한 민족주의, 국수주의가 대중의 지지를 얻게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다.

다. 민족주의와 애국정신 교육의 강화

일본 정부는 2006년 교육기본법 개정을 통해 교육의 목표를 열거하면서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그것을 길러낸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함과 동시에, 타국을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기른다」라는 조항을 규정하였다. 이 조항은 교육을 통해 '애국심'의 선양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학교현장에서의 '국기 · 국가(國旗 · 國歌)'의 강제지도라는 형태로 추진되어 왔다. 일본은 1999년 '히노마루'를 국기로 하고, '기미가요'를 국가로 하는 「국기 · 국가(國旗 · 國歌)법」을 제정하여, 애국심을 학교현장에서 강요하는 합법적인 기틀을 마련하였다. 일본에서의 애국심 교육의 개념은 다른 나라와는 그 사회적 의미와 영향력이 다르다.

어느 나라 국민이나 자국에 대한 애국심을 갖고 있고, 일본의 애국심 교육이나 민족주의의 강화에 긴장감을 갖거나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우리나라나 중국도 자국민의 애국심을 강조하거나 애국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보듯이 애국심이 주로 '나라를 지키'거나 침략에 '저항하는' 등 보편적인 심성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반해 일본에서의 애국심이란 '천황을 향한 충성심'이나 '멸사보국(滅私報國)'과 같이 일부 집단의 특수한 이념의 상징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즉,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일본인'이야말로 애국심의 증거라고 하여, 일본 국민에게 군국주의가 정의한 애국심을 강요하였다. 그 결과 2차 세계대전 당시 계속된 전쟁에서 천황과 군군을 향한 충성심을 애국심이라고 믿는 일본군 병사를 양성시켜, 일본인 전사자 3백 10만 명, 아시아인 전사자 2천만 명이라고 하는 큰 희생을 치르고 패전에 이른 것이다. 전쟁 전, 전쟁 중의 일본의 애국심 교육의 결과는 일본과 아시아에 커다란 참상을 가져왔고 이러한 이유로 현대일본의 교육에서 애국심이라는 단어는 전쟁의 기억을 배제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용어로 자리 잡았다. 따라서 일본의 애국심 교육은 전쟁피해국이나 식민지 지배 하에서 황민화교육을 강요받았던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강한 불안감과 경계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또한 2002년 4월 교육현장에서는 문부과학성이 국정교과서로 전국의 1200만 명의 초, 중학생에게 '마음의 노트'를 배포하였다. '마음의 노트'는 초등학교 1~2학년용, 3~4학년용, 5~6학년용, 중학생용의 4권으로 되어 9년간 연속적으로 사용되는 애국심 교재이다. 중학생용 노트의 내용 중 애국심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그 발전을 염원한다.'는 제목의 페이지에는 커다랗게 일본지도

가 그려져 있다. 여기에는 북방영토, 독도까지 파란 해안선으로 강조되어 있는 반면, 사할린과 연해주 부분은 공백으로 처리되어 있고, 한반도와 대만 등은 잘려나가 있어 동아시아에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Ⅳ. 청소년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軍의 협력 방안

1. 기존 청소년 대상 나라사랑 정신 프로그램 분석

청소년프로그램은 청소년의 건전한 발달과 사회적응을 조력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다양한 청소년지도활동이나 청소년이 참여하는 활동을 효과적, 효율적, 그리고 매력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적 경험과 환경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학습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습목적과 목표, 대상, 활동 및 학습과정, 활동 및 학습방법, 장소, 시기, 학습자 조직, 매체 등의 모든 요소들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간주한다.

청소년프로그램은 그 동안 그 내용이나 다양성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분량으로 어떻게 청소년프로그램을 짤 것인지에 대하여 막연했고, 프로그램을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발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소년프로그램은 특히나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프로그램 개발의 기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 프로그램의 특성을 기존 청소년 연구에서 종합 정리하면, 대체로 청소년프로그램은 인간중심 프로그램이며, 청소년의 자발적 중심프로그램, 생활 속에서 접하고 경험할 수 있는 생활중심의 프로그램이어야 하며, 미래지향적이면서도 현실지향적이고, 활동적, 동태적 성격을 가진다.

문화관광부(청소년국)는 자체에서 주관한 고유 사업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2005년에 발족한 이후 전 부처 청소년정책을 포괄하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청소년위원회를 통하여 종합적인 국가 청소년정책 수립에 따른 통합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 이후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추진한 실적을 대상으로 사업 분야를 분석하면, 홍보(18.0%), 체험(15.8%), 정보(7.9%), 문화(10.1%), 교류(6.5%) 등의 순이고, 2005년 실적은 체험(26.3%), 홍보(15.8%), 정보(8.3%), 활성화지원(6.8%) 등의 순이다.

구분	프로그램개발	공모전	활성화지원	홍보	정보	체험	문화	체육	교류	자연	과학	통일	봉사	전통	전시
2004년 16개기관: 139개(%)	5 (3.6)	5 (3.6)	10 (7.1)	25 (18.0)	11 (7.9)	22 (15.8)	14 (10.1)	4 (2.9)	9 (6.5)	3 (2.2)	7 (5.0)	6 (4.3)	4 (2.9)	6 (4.3)	8 (5.8)
2005년 16개기관: 133개(%)	9 (6.8)	4 (3.0)	10 (7.5)	21 (15.8)	11 (8.3)	35 (26.3)	8 (6.0)	2 (1.5)	7 (5.3)	4 (3.0)	5 (3.7)	2 (1.5)	4 (3.0)	4 (3.0)	7 (5.3)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에서 주관하는 여러 가지 청소년 프로그램에서 나라사랑이나 애국정신, 보훈 등에 연관된 프로그램은 저조한 상황이다.

중앙부처를 제외한 각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주관한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에서도 나라사랑 정신이나 호국, 안보, 보훈 등에 관련된 프로그램은 극히 제한되었다. 2009년과 2010년에 계획하여 실시한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은 모두 121개인데, 2009년보다 2010년에 약간 증가하였다. 이들 프로그램 중에는 대체로 국제교류를 비롯하여, 청소년지도 및 지원, 기념행사, 역사·전통체험, 종합축제, 미디어·출판, 시상, 대회, 수련 및 체육활동, 봉사활동, 토론회, 정책, 문화예술, 과학, 강연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실행되었거나 계획되었다. 이 가운데서 2010년에 집중적으로 실행된 프로그램은 국제교류, 종합축제, 수련 및 체육활동 등인데 전체 중에서 이들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이고, 2010년에 집중적으로 실행된 프로그램은 국제교류, 수련 및 체육활동, 청소년 지도 및 지원 등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 국제교류, 수련 및 체육활동, 문화예술 분야의 비율은 41.3%이다.

가. 국가 보훈처 주관 청소년 나라사랑 교육 프로그램

1) 개요

현재 청소년을 대상으로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을 실행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기관은 국가보훈처이다. 국가보훈처는 나라사랑 교육을 “국민들에게 국가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 독립·호국·민주화에 대한 역사의식, 안보의식 국가정체성 등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여 국민으로서의 자긍심과 국가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으로 정의하고, 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보훈처에서 제시한 나라사랑 교육의 필요성은 우선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른 나라사랑 정신의 퇴색에 따른 대응이다. 이러한 분석은 최근 입시 위주의 교육에 따른 공동체 의식 쇠퇴, 국가에 대한 냉소적 태도로 올바른 국가관의 정립과 나라사랑 정신 함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서 국가에 대한 불신, 국론 분열 및 계층·세대 간 갈등이 증가한 것인데, 2013년에 6.25전쟁 60주년 사업추진단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80% 이상이 우리사회 내부의 갈등과 분열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답이나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나라사랑 정신을 제시한 것이다.

청소년에 대한 나라사랑 교육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자랑스러운 역사의식과 국가에 대한 자긍심 부족 현상이다. 여기에는 최근 악화되는 동북공정, 독도문제 등 주변국과의 역사분쟁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단순한 ‘역사적 지식’을 축적을 넘는 ‘신념에 찬 역사의식’의 확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의 독립-

호국-민주화-산업화-선진화의 국가발전을 거치면서 높아진 국가 위상에 걸맞는 국민적 자긍심 및 시민 의식 함양도 갖춰져야 한다. 세 번째 이유는 가장 직접적인 요소인 북한 현실과 안보 실상을 모르는 전후 세대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6.25전쟁 정전 이후 국토 분단과 남북대치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 우리 청소년의 57.6%가 6.25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2010년에 자행된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응하여 정확한 안보실상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안보의식 확립이 필요한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나라사랑 정신인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추진하는 나라사랑 정신 교육은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현충시설 체험교육 등 기존의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학교 교육과 병렬적으로 추진 중인 타 부처의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반면 중 · 장기적으로는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범국가적인 나라사랑교육 체계를 확립하되, 변화하는 환경에 부응하는 새로운 나라사랑교육 방법 지속 개발하고, 국민 합의형, 국민 참여형 나라사랑 교육의 기반을 확립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나라사랑 정신 교육 프로그램 내용

국가보훈처 예하의 보훈교육연구원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는 나라사랑 정신 교육은 청소년, 초등 및 중등교원, 국가유공자 등 교육대상에 따라 3개의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이 중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교육은 '보훈문화교실', '초등 1일 체험교실', '가족과 함께하는 나라사랑', '중학생 연수', '고등학생 연수', '봉사단체' 등 총 6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나라사랑 정신 선양교육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 프로그램의 교육목적, 교육기간, 교육대상 및 인원, 교육시간 배분, 구체적인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보훈 문화교실은 자라나는 어린 세대와 가정교육의 주역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되돌아보고, 그 현장을 탐방 체험케 함을로써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일깨워 올바를 국가관 형성과 보훈 문화 확산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의 교육 기간은 여름 및 겨울방학 기간 중 각 3회로 총 6회 실시하며, 2박 3일 동안 합숙 운영한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나라사랑 정신 함양 및 계승발전, 선열들의 애국 및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나라사랑 글짓기 대회, 나라사랑 골든벨 등이 있다.

둘째, 가족과 함께하는 나라사랑으로,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학교에서만 배

우는 나라사랑 교육을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도 느낄 수 있는 계기 마련과 타 가정들과 교류를 통하여 본받을 만한 가족 문화를 공유하고 가족 간의 화합과 친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에 안가는 토요일을 이용하여 1박 2일 동안 합숙 운영하며 실시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가족 명칭 소개 등이 포함된 '우리 가족 이야기', 독립운동 이야기 등이 포함된 '나라사랑 이해하기', '가족과 함께 독립군가 부르기', '마음을 전하는 시간', '내가 만약 독립운동가라면' 및 특강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프로그램의 목표는 민족사의 올바른 인식과 애국정신 주입, 호국정신 계승발전과 나라사랑의 구체적 실천, 공동체 생활을 토하여 일체감 조성 및 정보교환 등이다. 이 프로그램 역시 여름방학 기간 중 중학생, 고교생 1회씩 2박 3일 합숙 운영하며, 교육은 주로 현장견학 및 나라사랑 정신에 대한 특강 등으로 구성된다.

1일 단위로 실시되는 '초등 1일 체험교실'의 교육 목표는 청소년 교육의 다양한 학습요구에 대한 해소와 가정의 사교육, 보육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며 1일 체험교실을 통해 올바른 역사인식과 인성교육 함양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 프로그램 역시 학교에 안가는 토요일을 이용하여 연 4회의 체험학습 실시하는데, 교육대상은 대체로 초등학생이다.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이 프로그램은 국립 서울 현충원 참배, 도라 전망대 및 제3땅굴 견학 등 현장 견학이 주축을 이루며, 이 과정에서 글짓기, 소감발표 등이 병행된다.

'봉사단체 입원교육'은 미래 국가의 주역인 청소년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이들에게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의 교육기간은 학기 중 2박 3일이며, 교육 대상은 주로 초등학교 봉사단체 입원이다. 이 프로그램은 주로 강의와 참여활동, 현장견학 등으로 이뤄진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나라사랑 교육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 및 개발하고있다. 우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자료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구분	4.13 임시정부 수립	4.19혁명	6.25전쟁	경술국치	3.1절	호국보훈의 달	자긍심
제목	얘들아!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야기를 들어볼래?	얘 들 아 , 4.19혁명이야기를 들어볼래?	얘 들 아 , 6.25전쟁이 야 기 를 들어볼래?	얘 들 아 , 100년 전 우 리 나 라 이 야 기 를 들어볼래?	얘 들 아 , 3.1절 이야기를 들어볼래?	얘들아, 호국·보훈의 달이야기를 들어볼래?	얘들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야기를 들어볼래?

이와 더불어 6.25전쟁 등 학교 IPTV 교육용 콘텐츠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초등학교 나라사랑 한자' 인정교과서 등 실생활과 연계하여 활용 가능한 교육자료를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역별 국가보훈시

설을 활용한 체험교육 자료집과 '대한민국 역사현장 길라잡이' 등을 발간하여 청소년 대상 나라사랑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한편 국가보훈처에서는 인터넷과 SNS 환경을 활용한 나라사랑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청소년 대상의 나라사랑 교육 및 보훈관련 교육을 위해서 제작된 꾸러기보훈광장(http://kids.mpva.go.kr)은 플래시, 애니메이션, 음악 등 청소년들이 나라사랑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와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활용 가능한 교육자료를 제시하여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 또한 국민과 공감하는 감성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 나라사랑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제작 중이며, 청소년들이 감성적 방법을 통해 나라사랑 정신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미술로 풀어보는 나라사랑」등을 설계할 예정이다.

3) 나라사랑 정신 교육 프로그램 분석

보훈교육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교육과정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교육목적, 교육기간, 교육대상 및 인원, 교육내용에 따라 과정별로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회수	교육인원	교육기간	교육일정
보훈문화교실	초등4~6학년과 어머니	6	1,000	2박3일	1.03～1.05 / 1.21～1.23 1.23～1.25 / 8.02～8.04 8.05～8.07 / 8.07～8.09
국가유공자 본인	국가유공자	1	40	2박3일	4.15~4.17
국가유공자 미망인	미망인	1	40	2박3일	4.17~4.19
나라사랑리더십캠프	학생회장단	3	450	2박3일	3.23～3.25(중등) 6.22~6.24(초등) 7.20～7.22(중등)
가족과 함께하는 나라사랑	초등4～6학년과 가족	1	40	1박2일	5.25~5.27
중학생	전국 중학생	2	300	2박3일	7.29~7.31
고등학생	전국 고교생	1	80	2박3일	7.31~8.2
대학생	전국 대학생	9	1,200	2박3일	상반기 4회 / 하반기 5회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정	1	40	1박2일	10월중
1일 체험교실	초등학생(4~6)	5	400	1일	상반기 2회 / 하반기 2회
초·중등교원 직무연수	초중등교원 (교사, 교감)	3	120	10일	1.07~1.18(초등) 1.07~1.18(중등) 5.20~5.31(교감)
		2	80	5일	8.05~8.07 8.05~8.07
	교장	1	60	5일	6.10~6.14
	원격연수	10	3,500		
합계			**7,290**		

종합하면, 보훈교육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목적은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일깨워 올바른 국가관 형성과 보훈 문화 확산의 토대를 마련하기',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가정에서도 느낄 수 있게 하기', '국난 극복사 올바른 인식과 애국정신 갖기', '호국정신 계승발전과 나라사랑의 구체적 실천'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민족사를 학습하고 올바른 국가관을 형성하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추고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상에서 제시된 목표 이외에도 보다 다양한 목표가 구현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첫째, 개정된 7차 초등 교육과정에서는 '각 시대의 특색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역사적 전통과 문화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민족사의 발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며, 이를 바탕으로 인류생활의 발달 과정과 각 시대의 문화적 특색을 파악한다.' 고 제시한다. 이에 나라사랑을 위한 프로그램의 목표로써 '우리나라의 역사적 전통과 문화의 특수성을 파악하기'의 목표가 보완 될 수 있다. 둘째,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국가유공자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이들의 나라사랑을 계승하도록 교육하여 미래사회의 민족 공동체의 역군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 보훈교육의 참된 의미일 것이다. 따라서 '호국 보훈인물 바로알기' 등의 목표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최근에는 애국심은 민족주의와 너무 밀착되어 있기에 폐기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상정되고 있다. 따라서 애국심을 민족주의와 별개로 생각하여, 국가에 대한 합리적인 사랑 및 헌신의 측면에서 애국심을 다시 규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진정한 애국심 교육은 시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올바른 지지를 보내면서 국가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교육이어야 한다. 국가가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는지, 시민의 동의 없이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배타적으로 타국의 이익을 배제하지 않는지, 시민의 동의 없이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배타적으로 타국의 이익을 배제하지 않는지를 감시하며 애정 어린 마음으로 고쳐나가는 경험이 필요하다. 이에 '국가에 대한 진정한 애국심 고취하기'등의 목표가 설정될 수 있다.

교육기간은 프로그램에 따라 다양하였는데, 1일 체험교실을 제외하고는 모두 1박 혹은 2박의 합숙운영을 하고 있으며 같은 프로그램을 여러 기수에 걸쳐 실시하고 있었다. 실시 시기는 1월, 4월, 5월, 7월, 10월로써 1월(3회), 7월(회), 8월(3회)에 집중되어 실시되고 있었다. 이는 학생들의 생활 패턴에 따라 교육이 주로 방학 중에 실시되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1일 체험학습'처럼 토요 휴업일이나 단기방학과 같은 시간을 활용하여 학기 중에도 프로그램이 확대 실시 될 수 있으며 이렇게 학기 중에 실시되는 프로그램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심화하는 내용으로 구성하면 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또한 방학을 이용하여 실시되는 프로그램의 경

우 전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학기 중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은 수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 시기가 대체로 1학기에 편중되어 실시되고 있었다. 이는 6월이 '호국보훈의 달'로써 다른 때 보다 자연스럽게 나라사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2학기에는 우리 민족의 큰 명절 추석이 있어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풍속을 직접 체험하고 학습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따라서 9월부터 차기년도 2월까지로 운영되는 2학기에는 개정된 7차 초등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에 따라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학습하는 기회를 통해 우리 조상의 슬기와 지혜를 익히고 나아가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고취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인원은 최소 40명, 최대 160명으로 많은 수의 인원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습활동 시, 재량 활동, 특별활동 등을 운영하는데 적정규모의 학급인원에 대하여 대부분이 25명 미만으로 수가 적을수록 좋다고 하였다. 교육 프로그램은 학급 운영이 아니므로 25명이 기준이 될 수는 없겠지만 준비된 교육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1회 실시 인원을 적정선으로 제한하는 것도 개선사항으로 논의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내용은 주로 강의와 레크리에이션, 특별한 활동(편지쓰기, 골든 벨, 글짓기대회, 군가 부르기, 일대기 만들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활동은 국어, 음악, 사회교과와 관련된 활동이다. 따라서 미술, 체육, 과학 등 보다 다양한 교과와 연계된 활동을 통해 나라사랑과 호국보훈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교과뿐만 아니라 언어지능, 음악지능, 논리·수학적 지능, 공간지능, 신체·운동지능, 인간 친화지능, 자기성찰지능, 자연 친화지능 영역으로 연계된 활동이 개발될 수 있다.

4) 기존 프로그램의 개선사항

지금까지 분석된 바를 바탕으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 '나라사랑 정신 선양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시한다. 우선 보훈교육연구원에서 주관하는 교육은 뚜렷한 교육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미래의 대한민국을 책임질 아동들에게 국가관을 심어주는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통해 계획된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우선 '보훈 문화교실'의 경우 첫째, 목적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이 프

로그램은 국가관 형성, 보훈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머니와 함께 아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특색에 맞게 '우리나라의 역사적 전통과 문화의 특수성을 파악하기' 목표를 더하여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나 우리 선조들의 슬기가 담긴 시조속의 한자교육을 계획할 수 있으며, '호국·보훈 인물 바로알기' 목표를 제시하여 근대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위인들을 학습할 수 있다. 둘째, 현재 '보훈문화교실'은 각 기수 당 150명, 연 600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 보다 많은 가족에게 교육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 역시 중요하나 교육 실시에 대한 효율성을 고려할 때 한 기수 당 100명 내외로 참여 인원수를 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본 프로그램은 보훈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편지쓰기'와 '글짓기'활동을 특성화하여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므로 교육 목적에 따라 동화책 만들기, 현장 탐방 후 기행문 쓰기, 내가 만든 독립기념관 등 보다 아동들에게 흥미로운 방법으로 계획된 교육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활동이 제시될 수 있다.

'가족과 함께하는 나라사랑'의 경우 가족과 함께 한다는 점에서 다른 교육과 차별성이 있다. 따라서 보훈문화교실과 같이 '우리나라의 역사적 전통과 문화의 특수성을 파악하기'의 목적에 따라 우리의 전통문화를 체험해보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호국· 보훈인물 바로알기'의 목적에 따라 가족이 협력하여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한 호국, 보훈 인물을 알아가는 활동이 제공되면 좋을 것 같다. 또한 이상의 교육프로그램은 4월과 5월에 1박 2일로 실시되고 있는데 현재 학교는 5월이나 9월에 일주일간의 단기방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4월보다는 5월 단기방학을 이용하면 보다 참석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특히 9월 추석연휴와 맞물려 실시되는 단기방학 중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에 대해 학습하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는 '민족사의 올바른 인식과 애국정신 주입', '호국정신 계승발전과 나라사랑의 구체적 실천,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일체감 조성 및 정보교환'의 목적으로 여름방학 중 2박 3일에 걸쳐 이루어지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주로 강의와 단합시간, 현장견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기수 당 110명 씩 연 220명의 중학생, 고등학생이 교육 혜택을 받고 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있기 때문에 이들의 교육적 필요에 민감한 교육목표, 방법, 평가가 계획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상의 목적뿐만 아니라 앞에서 제시되었던 '우리나라의 역사적 전통과 문화의 특수성을 파악하기', '호국·보훈인물 바로알기', '국가에 대한 진정한 애국심 고취하기'의 목적이 모두 성취 가능한 목적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역사나 나라사랑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의 습득이 용이하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주변과 삶에 적용하는 과제를 수행

할 수 있는 인지 수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문제 중심 학습, 협력 학습과 같은 탐구적 교수학습 방법이 적용될 때 효과적인 교육이 실행될 수 있으며, 바른 역사교육을 통해 국가의 미래를 위한 진정한 애국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초등 1일 체험교실'은 '청소년 교육의 다양한 학습 요구에 대한 해소', '가정의 사교육, 보육비 절감 효과'. '올바른 역사인식과 인성교육 함양 계기 마련'의 목적을 가지고 연 4회 7월과 10월에 실시된다. 구체적인 교육내용은 현장견학, 글짓기 대회가 있으며 각 기수별로 40명, 연 160명의 아동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대체로 보훈교육연구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숙박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반면 이 초등 1일 체험교실은 유일하게 숙박을 하지 않는 프로그램이다. 즉, 다른 프로그램들에 비해 교육시간이 짧다. 그러므로 여러 개의 목적을 제시할 경우 교육의 효율성이 낮아지게 되므로 구체적인 체험을 통해 성취 할 수 있는 목표를 간단하게 제시하면 좋을 것이고, 따라서 초등학교 아동의 교육적 요구에 따라 기존 프로그램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적과 앞에서 제시된 세 가지의 목표를 혼합하여 수정 적용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초등 1일 체험교실의 경우 교육 프로그램 시간이 짧아 참여에 대한 부담이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적은 편이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을 보다 확대 실시하여 보다 많은 초등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특히 보훈교육연구원이 소재하고 있는 곳에서 수원외국인학교(2006년 개교)가 멀지 않으므로 외국에서 살다 돌아온 우리나라 학생이나,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확장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봉사단체 임원교육' 프로그램의 특징은 교육 대상에 있다. 보통의 초등학생이 아니라 남을 돕고 자신을 희생하는데 관심이 있고 자발적으로 그런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이다. 따라서 이런 대상의 특성을 활용하여 '호국·보훈 인물 바로 알기'의 목적의 교육활동을 전개하여 우리나라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삶을 바치신 분들의 애국심을 본받고, 각 개인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봉사단체 임원이라는 특성을 고려 할 때 '국가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통한 진정한 애국심 고취하기'의 목적의 교육활동을 통하여 나라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실천 의지를 담은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학교와 연계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봉사단체 임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현재 각 회기마다 300명 씩 연간 600명의 아동이 교육혜택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많은 수의 학생이 참여할 경우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인적, 물적 자원 제한으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없으며, 아동간의 교류를 통한 잠재적 교육과정이 실천되기에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적정 인원으로 수를 줄이고, 대신 6월에만 실시되고 있는 것을 2학기 중에

도 실시하는 것으로 분산한다면 효과적인 교육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나.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청소년 프로그램

1)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요 : 2010년 실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2009년에 실시된 문화체육관광부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실태조사>는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현황 및 실태조사를 통해 청소년 활동 인증제의 활용을 통해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전체 288개 기관의 운영주체를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단체, 청소년이용시설, 일반(개인·법인)단체 등 네 가지로 구분하여 조사 실시되었다. 아래 표는 이 조사 대상의 성격, 대상 수, 비율 등을 나타낸다.

운영주체	대상	대상수(%)
청소년수련시설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청소년단체 등의 기존자료 활용과 실태조사 내용 추가	49(17.0)
청소년단체		28(9.7)
청소년이용시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사회복지관, 근로청소년회관, 자연휴양원, 수목원, 문화예술회관, 지방문화원, 시민회관, 어린이회관 등	104(36.1)
일반(개인·법인)단체	교육기관(공·사교육 및 대안학교 포함), 기업(대·중소기업), 금융, 정부 및 산하기관, 공기업, 언론기관, 재단 및 사단법인 등	107(37.1)
계		288(100.0)

위 표에서 조사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참여대상, 활동영역, 참가방법, 모집방법, 기간, 참여인원 등 6개 변수,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의 목적, 진행방법, 구체적인 내용, 1인당 참가비, 프로그램의 평가 여부 등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단체, 청소년이용시설, 일반(개인·법인)단체 등 288개 주체에서 실시되는 프로그램 개관적 특성 중 참여대상에 있어서는 대체로 '청소년'의 비중이 지배적이다.

구분	청소년수련시설 명(%)	청소년단체 명(%)	청소년이용시설 명(%)	일반(개인·법인)단체 명(%)
초등학생	7(7.7)	1(3.2)	**73(50.3)**	**57(38.8)**
중학생	9(9.9)	0(0.0)	6(4.1)	4(2.7)
고등학생	3(3.3)	1(3.2)	1(0.7)	8(5.4)
대학생	1(1.1)	0(0.0)	1(1.1)	4(2.7)
청소년	**28(30.8)**	**14(45.1)**	**25(17.2)**	12(8.2)
초·중	3(3.3)	2(6.5)	12(8.3)	**31(21.0)**
중·고	**16(17.6)**	1(3.2)	6(4.1)	9(6.1)
초·중·고	9(9.9)	2(6.5)	5(3.4)	20(13.6)
기타	15(16.5)	**10(32.2)**	16(11.0)	2(1.4)
계	91(100.0)	31(100.0)	145(100.0)	147(100.0)

운영주체별로 보면,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중·고교생이,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이, 청소년 이용시설은 초등학생의 비율이, 그리고 일반 단체의 경우는 초등학생과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참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활동영역에 대해서는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단체, 청소년이용시설, 일반(개인·법인)단체 등 288개 주체에서 실시되는 프로그램 활동영역에 있어서는 네 개 운영주체 모두 문화 활동과 자연체험에 집중되어 있다.

구분	청소년수련시설 명(%)	청소년단체 명(%)	청소년이용시설 명(%)	일반(개인·법인)단체 명(%)
문화활동	**26(28.6)**	**9(29.0)**	**99(68.3)**	**65(44.2)**
자연체험	**31(34.1)**	**6(22.6)**	**9(6.2)**	**37(25.2)**
교류활동	2(2.2)	7(22.6)	0(0.0)	3(2.2)
문화·자연	6(6.6)	0(0.0)	0(0.0)	14(9.5)
문화·교류	0(0.0)	0(0.0)	1(0.7)	3(2.0)
자연·교류	0(0.0)	0(0.0)	0(0.0)	0(0.0)
기타	**26(28.6)**	**8(25.8)**	**36(24.8)**	**25(17.0)**
계	91(100.0)	31(100.0)	145(100.0)	147(100.0)

그리고 비율은 낮으나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문화 및 자연 프로그램이, 청소년단체는 교류활동이, 일반(개인·법인) 단체는 문화, 자연, 교류, 문화교류 등이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한편 참가방법에 있어서는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이용시설, 일반(개인·법인)단체 모두 대체로 개별적인 단위에서 참가하고 있다. 다만 청소년단체에 참여하는 방식은 학교외의 단체를 통해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점에서 청소년들의 프로그램 참여의 의지는 개인별로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모집방법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광고지나 인터넷을 통해 모집하는 것이 다수이며, 인터넷만으로도 모집하는 경향도 높은 편이다. 전체적으로 판단하면 인터넷을 통한 모집이 지배적이고, 신문이나 방송광고 등의 오프라인에 의한 모집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기간에서는 개별 운영 주체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청소년수련시설은 1일, 2일이상의 프로그램이 72.4%로 지배적인 경향이 있고, 청소년단체는 3일 이하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많으며, 청소년이용시설은 2일 이상의 프로그램이 61.4%로 지배적이다. 그리고 기관의 특성상 이동하는 경우도 15.9%가 된다. 일반(개인·법인)단체는 3일 이상, 4일 이상의 프로그램이 81.0%로 대부분 이이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관별 프로그램의 특성을 구분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참여인원 역시 참여기간에서 나타난 특성만큼이나 기관별로 특성 있게 나타났는데,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기본적으로 수련시설의 규모가 큰 곳이 많고, 강좌형보다는 캠프형이나 축제형의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100명 이상이 많은 것이라고 판단된다. 청소년단체도 마찬가지로 캠프형 또는 축제형의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100명 이상 인원을 가진 프로그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적인 이유로 20명 이하의 프로그램 기획은 실정상 어렵다. 청소년이용시설의 경우 강좌형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 청소년이용시설의 규모와 특성에 의해서 인원이 결정되고 있다. 일반단체의 경우 축제형, 캠프형의 이벤트 성격을 담고 있는 프로그램이 많은데 재정규모가 큰 대기업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많고, 단체별로 다양하고 특성 있는 프로그램에 다양한 참여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2) 주요 프로그램 및 참가비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은 청소년 육성에 초점을 둔 목적사업이 대부분이며, 환경의식함양, 공동체의식함양, 자신감 고취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시설의 경우 숙박형 시설이므로 대형프로그램이 많아 여러 영역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 단체는 청소년 사이의 교류 및 애국심 고취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청소년이용시설은 시설의 특성상 전통문화 이해, 자기개발, 독서지도, 문화예술 체험기회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일반(개인·법인) 단체는 환경의식함양, 심신단련, 공동체의식, 자기개발 등의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프로그램 주요내용을 보면, 청소년이용시설을 제외한 다른 운영주체들은 자연체험과 스포츠체험의 비율이 높으며, 그 외에도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미디어체험, 전통문화체험이, 청소년단체는 전통문화체험, 레크리에이션, 공동체훈련 등 청소년이용시설은 전통문화체험, 유적지답사, 과학체험, 문예창작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일반(개인·법인)단체는 레크리에이션, 과학체험, 공동체훈련 등 위주가 되고, 그 밖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비용에 있어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무료 프로그램이 절반 이상(57.1%)이고, 그 외 1만원~10만 원 정도와 1만 원 이하의 참가비를 받는 프로그램이 37.4%정도이다. 청소년이용시설은 70% 이상의 프로그램에서무료로 실시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참가비용은 1만원~10만 원 선에서 유료화하고 있다. 일반(개인·법인)단체는 참가비용이 다른 운영주체들보다 다양한데, 무료 프로그램에서 1만원~10만원, 10만원~20만 원 선의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해외연수, 스킨스쿠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는 관계로 40만 원 이상의 고가 프로그램도 있다. 이와 같은 고가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내용이 좋을 경우 참여하는 인원도 다른 참가비 참여율에 비해 뒤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시사 하는 바는 청소년 자신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내용이라면 참가비에 상관없이 참여한다는 프로그램 선호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 기타 청소년 프로그램

국가 및 정부 기관을 제외하고 나라사랑 교육을 주관하는 기간 중 가장 눈에 띠는 곳은 충무교육원이다. 충무교육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나라사랑 교육 프로그램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정신 계승으로 청소년의 바람직한 가치관 정립하고, 지성과 덕성이 조화된 창의적 리더십 함양하며, 전통문화 체험교육을 통한 품의있는 인격형성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이충무공 정신의 현대적 해석과 다양한 협동활동 운영하고, 소집단 집중토의 방식의 협동적 의사결정 프로그램 적용하며, 자율역량 강화를 위한 자기 주도적 자치화 활동 운영하고 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본받고 체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프로그램에서 기대하는 것은 청소년의 바람직한 역할 모델 정립, 창의적이고 통합적인 문제해결력과 논리적인 사고력 배양, 성공적인 학교생활 및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 등

이다.

이 프로그램의 교육 내용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약 8개 기에 걸쳐 720명이 참가하는 이 프로그램은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교육 일정표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6)]

교시	시간	제1일	제2일	제3일	
아침일과	06:30~07:00		기상/아침명상		
	07:00~07:50		봉사활동		
	07:50~08:40		아침식사		
	08:40~08:50		활동준비/일과안내		
1	09:00~09:50		원인 완전 분해하라 wwpp(3)	국궁 (전통문화체험)	전통예절 (전통문화체험)
2	10:00~10:50	등록	새로운시작을 위하여 wwpp(4)		
3	11:00~11:50	입교식/입교안내	우리 이렇게 해볼까 wwpp(5)	전통예절 (전통문화체험)	국궁 (전통문화체험)
4	12:00~12:50	리더의 만남	WWPL 탄생 wwpp(6)		
점심	13:00~13:50	점심식사			
5	14:00~14:50	wwpp 워밍업 wwpp(1)	장애체험 (더불어 사는 삶)	다짐시간	
6	15:00~15:50	문제점을 찾아라 wwpp(2)	현충사탐방 (나라사랑)	수료식	
7	16:00~16:50	충무정신과 리더십 (나라사랑)			
8	17:00~17:50		비전카드 작성 (칭찬, 공경)	귀가	
저녁	18:00~18:50				
9	19:00~19:50	도미노 (칭찬, 질서, 배려)			
10	20:00~20:50				
정리	21:00~22:00	정리/일과반성			
	22:00~	취침			

일반적인 청소년대상 프로그램 목적의 특성에서 기관별 특성을 정리하면, 청소년 수련시설의 경우, 프로그램 목적으로는 환경의식함양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가족단위의 프로그램과 공동체의식함양 등이 강조되었고, 프로그램 내용에서는 자연과 스포츠를 이용한 체험활동이 주를 이루고, 직업과 관련된 교육과 경제, 경영교육에서는 증권사 탐방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 또한 특이 프로그램으로 청소

6) 출처: http://www.chungmoo-ei.or.kr/02_course/course_02.php

년 벤처 육성사업, 대안학교, 청소년 방송기술아카데미, 생활 속 경제체험 활동단, 청소년영상 창작캠프, 전자계산기 체험 등이다. 프로그램 진행 방법상에서는 체험 위주의 레포츠활동, 자연탐사가 주이고 토론식 활동은 낮게 나왔다. 1인당 참가비는 대체로 저렴하지만, 해외연수, 스킨스쿠버와 같은 고액프로그램도 존재한다. 그리고 프로그램 실행 후의 평가는 대부분 평가를 통한 재검토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청소년 단체의 경우 프로그램 목적으로는 청소년 간 교류, 애향(국)심 함양, 공동체의식함양, 자기개발 등 다른 항목에서도 대체로 다른 기관에 비해 치중되지 않고 고른 목적을 추구하고 있고, 프로그램 내용에서는 전통문화답사, 레크리에이션, 자연체험, 스포츠체험, 공동체훈련 등이고, 이외에도 종교단체(원불교, 불교)들이 운영하는 통일교육과 예절교육(전통문화이해)이 있다. 프로그램 진행방법은 야외 및 실내체험 위주이다. 프로그램 평가는 마찬가지로 80% 이상 피드백과정을 거치고 있다.

청소년이용시설 경우 이용시설의 대부분이 도서관이나 미술교실 같은 특성이 있는데 프로그램 목적 역시 독서, 문예창작, 미술, 전통문화체험 등의 문화프로그램의 비중이 높다. 프로그램 전체적인 목적이 청소년들의 독서능력신장, 예술능력향상에 있다. 소외계층청소년, 장애청소년, 소년소녀가장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자기개발의 사회적응프로그램이 있고, 과학체험 관련 프로그램도 있다. 진행방법에 대한 응답이 빠져있었고, 전체프로그램 중 71.6%가 무료이고 유료인 경우 1만 원 이하거나 1만원~10만 원 이하다. 오히려 피교육생에게 인턴제를 실시하여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수입을 올리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특색이다. 프로그램 평가를 실시하는 비율이 4개 운영주체 중에서 가장 낮은 6.9% 정도에 불과하다.

일반(개인·법인) 단체 경우 프로그램 목적에는 환경의식, 사회성 증진(공동체의식함양), 심신단련, 자기개발 등이 지배적이고, 내용으로는 자연체험, 스포츠체험 등이 높고 한의학과 같은 건강증진프로그램, 안전교육프로그램, 그냥 놀기만 하는 프로그램과 경영·경제관련 프로그램이, 환경보호 및 환경의식 향상 등의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보여 주며, 예술분야 전통문화 비율은 낮다. 진행방법은 야외체험, 실내체험, 강의식, 토론식 등 다양하고, 참가비가 전체적으로 유료화 되고(무료는 23.8% 정도) 다른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액이다. 프로그램 평가는 마찬가지로 70% 이상 피드백과정을 거치고 있다.

지도내용에 따라 활동별로 구분했을 때 전체적으로 예능활동(23.4%), 자연체험(18.4%), 전통문화활동(13.5%), 자아개발활동(1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별로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자연체험과 자아개발 프로그램이 많았고 청소년 단

체는 대체적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다. 청소년 시설에서는 도서관, 미술관의 역할로 예능활동과 전통문화활동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일반단체는 기타 부분의 결과가 높은 것은 다른 시설에 비해 많은 종류의 단체들의 프로그램이 승마, 인권, 산림캠프 등 개별적 다양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라. 기존 청소년 프로그램의 한계 분석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국가보훈처와 정부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제외한 경우, 대부분의 청소년 프로그램의 경우 지도내용 면에서는 예능활동, 자연체험, 전통문화활동, 자아개발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나라사랑, 애국정신, 보훈 등의 목적이 반영된 민족정신 고취, 애국 및 애족, 독립정신 고취 등 정신적인 면에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의 활용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 대상 선양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목적이 민족정신 고취, 애국 및 애족, 나라사랑, 독립정신의 고취, 호국·보훈의식의 고양 등 극히 제한적이다. 지금까지 중앙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일반청소년기관과 비교하여 나타난 선양프로그램의 문제점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연계성의 문제이다. 중앙집권식의 정책결정과 집행의 방식은 선양 프로그램에서도 더 이상 정책 효율성을 올리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관계되는 사업주체들간의 연계성 향상이 더 프로그램의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청소년이란 정책대상 자체의 특성이 고려되고 고객맞춤형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청소년 전문기관들과의 연계가 시급하다. 국가보훈처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보훈캠프의 경우 예상했던 수보다 더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한 것은 보훈캠프의 프로그램 내용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의 다양한 협조에서 기인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렇듯, 선양프로그램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이란 다소 추상적이고, 이념적인 주제들도 프로그램의 흥미와 재미란 새로운 수단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선양프로그램은 개별 프로그램운영 주체들과의 연계나 공동집행의 방법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듯하다.

둘째, 프로그램 내용면에서의 체험 위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에서는 자발적인 참여정도와 스스로 터득하려는 청소년들의 자세 등이 프로그램 성패의 주요 요소로 작용하는데, 청소년들의 자발성과 참여성확대를 위해서는 기존 프로그램 운영과정 즉,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 진행방법의 다양성, 프로그램의 재미와 흥미성 등 앞서 일반청소년기관에서 활용하는 운영방식의 벤치마킹이

시급하다.

셋째, 선양이라는 고도의 상징성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 콘텐츠가 시급하다. 앞서 설명된 것처럼, 선양의 상징성과 청소년 호국·보훈의식 강화를 목표로 하는 콘텐츠의 개발이다. 나라사랑의 근본적인 목적은 불변하지만,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해야 한다는 명제보다는 나라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즉, 수단적 장치의 개발과 대안발굴이 시급한 실정이다.

넷째, 청소년 호국·보훈의식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보존하기 위한 기제 장치가 요구되고 있다. 선양의 정신적·이념적 측면은 일시적·단편적 정책으로 끝이나서는 아니 될 것으로 본다. 예를 들면, 「보훈아카데미(가칭)」의 경우 프로그램의 시기, 규모 등과는 별개로 항상 청소년들에게 애국심을 지필 수 있는 구심적 역할을 위한 것이다. 이처럼 그 주제가 정부 부서, 민간단체, 혹은 공동이든 간에 나라사랑 실천을 위한 선양프로그램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는 기제의 확보도 중요할 것 같다. 이러한 맥락에서 외국의 청소년정책의 특성인 정책의 지속성·안정성은 현재의 선양프로그램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하겠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나라사랑정신 함양의 선양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연계성,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상의 변화, 선양의 상징성을 이해시키고 담아줄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의 개발, 그리고 정책의 안정성 및 지속성 유지를 위한 기제장치의 요구 등 선양프로그램의 치유되어야 할 현안과제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요구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선양프로그램의 방향전환에 대한 외부 전문가들의 인터뷰 내용은 시사 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우선,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측면에서 중앙-지방-미디어-기업-프로그램 운영주체-청소년 등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강조되고 있다. 둘째, 프로그램의 동기유발적인 성격이 강조되고 있는데 즉, 청소년들의 특성이 고려된 스스로 참여(participation)에 의한, 자발적인 관여(involvement), 그리고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는 프로그램 권한부여(empowerment)에 이르기까지 청소년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주체가 청소년 스스로의 몫으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셋째, 프로그램 내용면에서는 재미(fun)와 흥미(interest)를 줄 수 있어야 한다(attractive)는 것이다. 재미있고 흥미로운 주제인 경우 청소년 스스로 찾아서 온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이러한 부문에서는 청소년프로그램의 트랜드를 벤치마킹함으로써 프로그램 자체의 목적은 달성하면서 프로그램운영과정상의 수단들이 더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시기 / 내용	단기		중기		장기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보훈문화교실	체험위주의 프로그램 전환/ 모집방법상의 수정	지자체와 지역사회청소년관련 단체와의 연계성 강화		청소년문화교실 Brand화를 위한 특화된 교육프로그램개발		
나라사랑정신 체험교육	보훈교육연구원·지역소재 지방교육청간 연계 및 참여인원 확대	대상의 전국화/지방현충시설을 활용과 연계 프로그램개발요구/ 특히 지방 소규모 현충시설의 집중적 공략을 위한 이동식 교육프로그램개발		지방 현충시설을 활용한 지자체-지방교육청-보훈연구기관간의 연계확대		
재외동포장학생 역사문화학습	국제교류 확대의 차원에서 국내 거주하는 해외동포·재외동포 2세 대상 교육 연계 및 확대		초빙 대상 국가의 확대	-	-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훈련	초·중·고·대학생별 프로그램 세분화/ 체험위주의 프로그램적용/ 모집방법 수정	-	-	-	-	
청소년보훈캠프	보다 많은 민간 및 청소년관련 기관 참여, 민간기업과의 연계시도, 민간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점에서 동참의 가능성 높음			청소년보훈캠프의 Brand화를 위한 특화된 교육프로그램개발/ 국가간 보훈캠프의 교류 확대		
우리고장현충시설탐방	현충시설소재 지방교육청간 연계 및 참여인원 확대	대상의 전국화/지방현충시설을 활용과 연계 프로그램개발요구/ 특히 지방 소규모 현충시설의 집중적 공략을 위한 이동식 교육프로그램개발		현충시설의 54.5%가 지자체의 예산으로 충당하는 실정이므로, 현충시설 이용활성화를 위한 중앙차원의 지원 및 국가간 현충시설 교류확대		

또한 흥미와 재미를 위해서는 체험위주의 방식이 채택되어야 하며, 학교, 지역, 국가 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도 치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우선적으로 청소년들의 의식과 인식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요구된다. 인내심, 단체정신, 배려심이 점점 결여되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교육현장에서 청소년, 교사, 학부모에 이르기까지 보훈의식에 대한 교육적 차원의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하고 나라사랑정신에 대한 인식적 전환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모두 정리하면, 선양 프로그램을 통한 청소년대상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해서 구조적인 면에서는 개별 운영주체간의 연계가 요구되고, 내용면에서는 재미와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어야 하며, 교육현장에서는 청소년, 교사, 학부모의 보훈의식에서 인식적 전환이 요구되고,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와 청소년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으로 방향전환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선양 프로그램 내용면에서의 변화는 일반 청소년 프로그램의 벤치마킹을 통한 운영상의 변화, 통합적, 체계적인 재설계 요구 등 시간적 측면에서의 단기, 중기, 장기적 방향과 동시에 공간적으로 온 라인 및 오프라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한편 세대의 변화,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그리고 우리 사회의 IT 기술이 급속하게 변화함에 따라 청소년 전반적인 프로그램 패러다임은 변화되고 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근접해야만 기존 선양 프로그램의 한계를 벗어나면서 보다 업그레이드 된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방법인가를 찾는 것이 관건일 것이다.

2. 청소년 대상 나라사랑 교육과 軍의 협력방안

가. 개요 및 기본 계획

2012년 3월부터 국방부 주관으로 주 5일 수업제 시행에 따른 '학생 나라사랑 체험활동'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이러한 활동의 배경에는 주 5일 수업제 전면 시행을 계기로 청소년들에게 토요일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함은 물론, 일부 단체에 의한 왜곡·편향된 교육으로 국가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는 계기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국방부는 2010년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폭격 등 북한이 자행한 잇따른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2011년부터 국민 안보공감대 확산 운동을 시작하였는데, 2012년부터는 이러한 운동이 나라사랑 운동으로 전환되어 실시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학생들의 나라사랑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추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계획으로 발전시켰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안보교육'이라는 용어 대신, 신세대가 받아들이기 쉬운 용어인 '나라사랑 교육'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였으며, 교육 방식에서도 Story-telling 방식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교육 내용에서는 기존의 안보교육과 유사한데, '수난의 역사가 주는 교훈', '현대사 쟁점 바로 알기', '한·미동맹의 중요성 중점 교육' 등이 주안을 이루고 있다.

상급부대의 지침에 따라 각 부대는 부대별 특성 및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특히 부대별 자매학교 및 인근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시행 중이다. 그 결과 2012년 3월 현재 51개 부대가 58개 교육청과 MOU를 체결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국민 안보공감대 확산을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나. 초, 중, 고등학교 대상 나라사랑 교육 지원

국방부가 체계적, 지속적인 국민 안보공감대 확산 활동을 위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초등, 중등,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나라사랑 교육 지원이다. 우선 국방부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나라사랑 교육을 집중 추진하는 것은 교육대상별 추진 전략에 따른 것이다. 일반 국민들에게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지원 및 행사 참여 확대를 유도하며, 오피니언 리더 등 민간과 군대의 소통강화를 위해 여론 주도층을 위한 사업과 달리, 청소년과 학생들에게는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강

조하고, 이들에게 안보 및 병영생활을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나라사랑 정신을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은 판단에 따라 국방부는 각 부대별 특성 및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토록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지속적인 활동여건 보장을 위해 부대와 각 지역 교육청 사이에 MOU를 체결하여 시행하되, 부대별 자매학교나 인근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계획을 알려주고 홍보하여 되도록 많은 인원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국가 경축일, 6.25관련 기념일, 국군의 날 등 주요 계기일과 연계하여 나라사랑 정신 교육과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더불어 교육에 참가하거나 각종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체험측과 책임과 역할을 명확하게 분담하되, 부대별로 지원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지원하여 애초에 의도했던 참가들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 고취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기존부터 실시하고 있는 부대견학 및 병영체험, 자매학교와 모교 방문 時 나라사랑 교육 실시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교육에서 사용할 강의교안과 영상자료는 육군본부 주관으로 작성하여 인트라넷에 탑재한 DB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1) 나라사랑 교육 콘텐츠 제작 지원

현재 육군본부에서 제작하여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라사랑 정신 교육용 표준 교안은 크게 '제1장. 우리 민족의 안보 역사' '제2장. 65년 전 남과 북의 선택, 그 결과', '제3장. 더 부강한 나라는 여러분의 몫'의 순서로 되어 있으며, 총 80여 페이지에 달한다. 그런데 이 표준교안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구분하지 않고 제작되었기 때문에 강사들의 수정 소요가 많다. 따라서 해당 부서와 부서에서 지정한 강사는 자신이 담당할 교육을 위해 교안의 일부를 수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고려하는 것은 학생들의 수준, 교실 여건 등이다.

육군본부에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2개의 표준 교안은 <부강한 나라에는 자랑스러운 군인이 있습니다>와 <군인이 되는 길>인데, 이 자료들은 대체로 대한민국의 건국, 성장, 민주화, 세계 속의 강대국으로 번영, 호국의 중요성 등을 다루고 있다. 첫 번째 자료인 <부강한 나라에는 자랑스러운 군인이 있습니다.>는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국가들의 안보 역사, 대한민국의 건국과 남북분단 및 대결,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 그리고 대한민국의 번영과 미래를 위한 조건 등을 다루고 있다. 또한 <군인이 되는 길>에서는 군대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더불어 군 간부에 대한 학생들의 이미지 제고를 통한 우수인력에 대한 적극적 획득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한편 국립현충원에서 나라사랑 교육 교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나라사랑 교육 초급 자료집>과 <나라사랑 교육 중급 자료집>은 유품 전시관 견학과 국립 현충원 소개 자료를 제외하면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역사교육 자료가 주를 이룬다. 그런데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작한 <초급 자료집>의 경우 일선 학교에서 사용하는 역사교과서와 유사하여 학생들이 친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에 어렵다는 문제가 발견된다. 특히 역사적 사건에 대한 장황한 서술, 시대적 흐름에 따른 역사적 사실의 나열, 지나치게 많은 내용 포함 등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교육 효과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중등 및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작성된 <중급 자료집>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견된다. 이와 더불어 국립 현충원에서 제작한 자료들의 경우 '현충'의 대상으로 선정한 다양한 인물 중 독립운동 열사들에 대한 비중이 1945년 이후 활약한 인물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이 선정된 점 역시 아쉬운 점이다. 1945년 해방 이후, 특히 6.25전쟁을 포함한 호국 과정에서 활약한 영웅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균형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보훈처에서 제작한 다양한 나라사랑 교육 자료들은 대체로 교육 대상, 내용 등의 측면에서 만족스럽다. 여러 가지 자료 중 <나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와 <대한민국은 어떻게 탄생했나?> 와 같은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 참가자들의 가독성을 고려한 다양한 편성으로 우수한 자료임에 분명하다. 다만 국가보훈처의 자료들은 진정한 의미의 나라사랑의 의미보다는 나라사랑 정신을 구현하였던 선조들에 대한 보훈 정신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해서 나라사랑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훈이나 보훈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교육생들이 혼란스럽다는 점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군에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나라사랑 표준교재는 교육 내용 및 편성, 학생의 수준을 고려한 콘텐츠 제작 여부 등을 고려할 때 국가보훈처나 국립현충원, 충무교육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안에 비해 우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표준교재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동영상 자료들은 교육에 참가하는 학생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겨서 좋은 찬사를 받고 있다. 다만 군에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교육 자료들이 지정된 나라사랑 교육 시간이나 군에서 파견한 강사에 의해서만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별 교육청이나 학교에 사전에 배포되어 학생들이 언제든지 접할 수 있다면 교육 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2) 나라사랑 정신 교육 강사 지원

육군본부를 포함한 육군의 각 부서와 부대는 안보전문 강사진을 구성하여, 인근 및 자매학교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교육생의 수준, 학교별 상황에 맞도록 표준 교육 자료를 보완하여 준비하며, 사전에 선발된 강사들에 대한 능력 평가를 통해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나라사랑 정신 교육 강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는 부대별 상황을 고려하고, 선발된 강사들에 대해서는 사전 준비, 강의 연습, 강사 위촉 등의 절차에 따른다. 또한 나라사랑 정신과 더불어 충, 효, 예와 관련된 교육을 병행하기 위해 준비한다. 일선 학교에 대한 안보강사 지원은 해당 지역의 교육청과 연계하여 월 단위 나라사랑 교육 지원 소요를 접수하고, 가용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체로 수도권 소재 부대의 경우 월별 1~2회의 교육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육군에서는 장군단의 모교방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장군들이 자신의 모교를 방문하여 나라사랑 정신을 통해 학생들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우수인력을 획득 및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12년의 경우 전국의 중, 고등학교 160개교에 모교출신 장군들이 졸업식, 호국보훈의 달, 국군의 날 등과 연계하여 모교를 방문하여 후배 및 청소년들에게 군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쇄신은 물론, 국방부와 육군이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 나라사랑 정신 교육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안보현장 견학 지원

본 사업은 주 5일제 수업 시행과 관련하여 청소년과 학생들에게 나라사랑 체험 활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점 과제로 추진 중이다. 본 사업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주말 안보현장 체험, 부대 개방행사 및 자매학교 초청행사, 가족동반 안보현장 견학, 로봇 경진대회 등 문화홍보 행사 등이 있다.

주말 안보현장 체험 프로그램은 신청 학생들을 대상으로 1개 학교 단위 토요일 안보현장 견학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며, 기한은 1일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을 절차가 필요하다. 우선 각급 부대로 유선과 팩스 등을 통하여 주말 안보현장 체험을 신청하며, 부대 관계자와 견학 일시 및 코스에 대해서 사전 협조할 수 있다. 이후 부대에서는 견학인원에 대하여 명단을 사전 통보하는 등 사전조치를 취한다. 이후 해당 부대에서 차량을 지원하여 학교로 보낸 이후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 실제 안보체험을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 중에 실시될

나라사랑 교육의 내용은 육군 및 해당 부대 홍보영상, 청소년 안보교육 영상인 “함께해요, 안보강국 코리아”가 방영되고, 군이 제작한 안보교육 영상인 “위대한 유산”이나 “No Tears”가 방영된다. 마지막으로 육군본부가 제작하여 제공한 나라사랑 교육 표준교안을 이용한 교육이 지정된 안보강사에 의해서 실시된다. 각 부대에서는 안보현장 견학 간 학생들의 사진을 찍어서 행사 참가 이후 제공하고, 학생들에게는 간략한 소감문을 작성토록 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차후 행사에 반영한다.

부대 개방행사 및 자매학교 초청 행사 프로그램은 각급 부대가 부대 창설일, 6.25전쟁 관련 기념일, 국군의 날, 어린이날 등 특정 기념일에 참전용사, 지역주민, 자매결연 학교의 학생 등을 초청하여 부대 개방행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토요일 1일에 실시되는 이 프로그램은 주말 안보현장 견학 내용에 해당 부대가 보유하고 있는 장가차 등 장비 시범이 추가되며, 이외에도 부대별로 자체 행사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각급 부대의 공지 및 초청 일정을 확인하고, 부대측과 협조가 필요하다. 일단 협조가 완료되면 부대측에서 제시하는 공개시간 및 장소 내에서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진행절차는 대체로 일반 부대견학과 동일하다. 학생들의 경우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이후 그 실적을 나라사랑교육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가족동반 안보현장 견학 프로그램은 해당 부대에서 신청 학생 및 학부모 동반 인원에 대하여 학교 단위로 안보현장 견학을 주관하는 것이다. 주로 토요일 하루 단위로 실시되며, 부대 사정에 따라 일요일에 실시되기도 한다. 대체로 프로그램 진행은 주말 안보현장 체험과 동일하며, 이 프로그램을 마친 학생은 학적부에 나라사랑 교육 이수 경험을 반영할 수 있다. 각급 부대는 이 프로그램을 학교별 학부모 모임의 임원들과 연계하여 안보현장 견학과 유사하게 운영하며, 여기에 참가한 학부모에 대해서는 부대의 여건에 따라 별도의 교육자료, 체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라. 병영체험 지원

국방부에서 주관하는 병영체험 지원 프로그램에는 크게 청소년 호국수련 활동, 병영체험(1일, 1박 2일)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육군 특전캠프, 해병대 캠프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

국방부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호국수련활동>이 있다. 1일 및 1박 2일 일정으로 실시되는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 단체의 신청을 받아 부대 견학, 병영체험, 행군, 해상순례, 사생대회, 캠핑 지원 등으로 실시되는데, 전액 무료이다. 국방부와 협력을 맺은 청소년 단체로는 한국스카우트연맹, 한국청소년연맹, 한국걸스카우트연

맹, 한국해양소년단연맹, 한국항공소년단, 청소년적십자사 등 총 7개 단체이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군사훈련 체험 및 나라사랑 교육인데, 이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개인 또는 학교 단위로 청소년 단체에 신청하며, 해당 단체에서 참가인원을 선발한 이후 국방부로 요청한다. 이후 국방부에서는 육군 및 각 부대에 지원소요 및 계획을 하달하여 시행토록 하고, 각급 부대는 지원계획에 따라 선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활동을 지원한다.

한편 국방부와 교과부의 MOU에 의해 실시하는 청소년 대상 병영체험도 실시되는데, 이 프로그램 역시 1일(토요일) 혹은 1박 2일(호국보훈의 달, 방학기간 등)로 실시된다. 주요 내용은 행군, 병식체험, 군사훈련 체험, 부대견학, 나라사랑 교육 등으로 실시되는데,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각급 학교에서 교과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육군에서 운영하는 3박 4일 일정의 <육군 특전캠프> 프로그램은 제식훈련, 특공무술, 특전장비체험, 사격훈련, 야간침투훈련, 야전 숙영, 레펠, 공수훈련, PT, 등반·하강훈련, 캠프파이어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있어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비용은 1당 4만원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2010년부터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참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해병대에서는 4박 5일 일정의 <해병대 캠프>를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 내용은 충·효·예 교육, 서바이벌 훈련, 구급법, 독도법, 기본레펠, 암벽등반, 해상생존법, 미 해병대와 함께하는 영어교실, 캠프파이어 등이 포함된다. <육군 특전캠프>처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데, 연인원 약 30,000여명 이상이 수료하는 가장 유명한 캠프이다. 최근 3년간 입소 경쟁률이 1.8 : 1이 될 정도이다.

공군 역시 3박 4일 일정의 <항공우주캠프>를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 내용은 항공기초이론, 항공산업견학, 항공과학실험, 항공생리훈련, 항공기 탑승 체험, 탐사로켓 만들기, 항공우주특강, 낙하산 지상훈련, 해상생환 및 구조훈련, 공군사관생도와의 만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육군 및 해병대에서 운영하는 것과 달리 남학생과 여학생 88명에 한하여 선별 입소시키고, 1인당 10만원을 받는다.

한편 전쟁기념관에서 주관하는 <호국 안보교육>은 당일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인데, 교육 내용은 '거북선에 담긴 선현들의 지혜', '6.25전쟁 특별 강좌', '1318! 기념관과 만나다', '놀토엔 박물관 가요!' 등이며,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없다. 전쟁기념관에서는 향후 이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국립현충원과 연계 하여 호국 전적지 순례, 청소년 안보현장 견학 등을 포함시킬 계획인데, 이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대체로 현충원 참배 → 전쟁기념관 관람 → 전방안보현장 견학(땅굴, 전망

대, DMZ 등)이 될 전망이다.

국립현충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나라사랑 체험학습> 프로그램은 현충원에서 자체 개발한 교재를 사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며, 대체로 현충원에 안장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소개 및 역사연표 제작 등이 포함된다. 교육 대상은 초등학교 4~6학년생이며, 1회 40명 내외 참가한다. 또한 <나라사랑 체험활동> 프로그램은 현충원 봉사활동 수행을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현충탑참배→묘역 봉사활동→전시관 견학 등이 포함된다. 이 프로그램에는 중등 및 고등학생이 참가하며, 1회 200명~300명 내외이며, 연간 2,700명이 참가한다. 마지막으로 <호국강연회>는 외부의 저명 강사를 초빙을 통한 강연회이며, 강연 주제는 '새 시대를 향한 비전', '국악 가까워지기' 등 다양하다. 대상은 중등 및 고등학생이다.

마. 기타

1) 나라사랑 UCC 제작 및 활용

인터넷에서의 데이터 처리속도가 빨라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젠 동영상 데이터가 관심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았다. 데이타의 중심이 동영상으로 옮겨가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신문화를 창조하여 인터넷의 주류를 차지하려는 업체들 사이의 대결이 벌어지고 있다. UCC라는 용어의 등장과 함께 많은 인터넷 사이트들이 UCC라는 용어를 전면에 내세우며 등장했고 기존의 인터넷 강자들인 포탈들도 이 대열에 합류를 하고 있다. UCC란 사용자가 창작해낸 콘텐츠이다. 2012년에 SNS와 유튜브(Youtube)를 뜨겁게 달구었던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패러디한 공군의 제설작업 UCC는 인터넷 상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친 바 있다.

이처럼 UCC는 웹사이트 이용자에 의해 생산된 콘텐츠를 일컫는 말로, 미디어 조직에 속하지 않은 일반인들의 비직업적 활동의 산물로서 웹 공간에 공표한 콘텐츠를 의미한다. 이 개념 속에는 신문사나 방송사와 같은 전통적 대중 매체에서 생산된 콘텐츠와 대립되는 의미가 내포되어 이는 미디어 콘텐츠 생산의 민주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디지털 비디오, 블로그, 포드캐스팅, 모바일 폰 사진 및 동영상, 그리고 위키(wikis)와 같이 웹을 매개로한 개인 미디어 활동의 창작물을 망라하는 개념이다.

결론적으로 UCC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정보로서 텍스트, 그림,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이제 사용자들은 다양한 제작도구를 가지고 콘텐츠를 생성, 변형, 가공과정을 거쳐 정보로서 가치를 지닌 콘텐츠

를 생산하는 좀 더 전문적인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다. 그 동안 수동적으로 정보를 습득해오던 사용자들이 이제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정보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UCC는 본인만 보고 만족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오프라인 방송과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트랜드인 UCC를 활용한 청소년 대상 나라사랑 정신 함양 프로그램과 접목시키는 것은 청소년들의 욕구와 관심을 반영한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와 같은 최신의 기법을 적용한 나라사랑 정신을 軍이 주도함으로써 청소년들에 대한 軍의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군이 추구하고자 하는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인터넷과 SNS를 적극 활용하여 軍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나라사랑 정신을 강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교육용 UCC를 활용하는 것은 오늘날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교육방법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나라사랑 UCC 공모전'(가칭)과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2) 디지털 근 · 현대사 교과서(Digital History Textbook) 제작 및 활용

제2장에서 지적한 대로, 현재 초, 중,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기술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나라사랑 정신을 고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여 역사 교과서 검정을 실시하였으나, 2007년의 금성교과서 사태나 2010년에 검정을 마친 천재교육 출판사의 교과서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현대사를 편협한 시각에서 왜곡하는 교과서들이 버젓하게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軍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 교과과정에서 필요한 근대사 및 현대사 관련 부교재 및 참고자료를 제작하여 제공함으로써 소위 편향된 시각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역사에 대한 관점을 바로 잡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軍에서 작성해서 배포할 근대사 및 현대사 관련 부교재 및 참고자료는 기존의 단순 서술식 교과서에서 탈피하여 CD나 파일을 통해서 제공이 가능한 디지털 교과서(Digital Textbook)의 형태로 제작하여 배포하면 더욱 효과가 클 전망이다. 이미 다양한 형태의 E-Book 등에 익숙한 청소년들에게는 국방부가 권위 있는 집필진에게 의뢰하여 제작하여 배포할 디지털 근대사 및 현대사 관련 부교재 및 참고자료는 거리낌 없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며,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게 제작된 스토리텔링 방식을 취함에 따라 가독성을 높인다면 우리 청소년들의 역사의식 고취는 물론 나라사랑 정신 고양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나라사랑 포털사이트 구축 및 활용

포털사이트는 사용자들이 인터넷상에서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관문(portal)의 역할을 하는 사이트이다. 포털이란 용어는 기존에 잘 알려진 대형검색엔진 사이트에서 유래하였는데 이메일, 뉴스 등의 많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듯 포털사이트는 풍부한 검색경로와 함께 서로 연관성이 많지 않은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포털사이트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편리한 이용(ease-of-use)'에 있다. 따라서 특성별 콘텐츠와 수많은 하이퍼링크, 검색기능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정보검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중장기적인 측면이 고려되는 온라인상의 프로그램들은 결국 하나의 온라인 시스템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이러한 하나의 시스템은 선양프로그램의 실행과 배포 및 홍보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이것은 통합성, 전문성, 접근성, 효과성 및 지속성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상의 모든 콘텐츠를 집대성하고 기존의 각 하위 사이트들에 흩어져있던 자원들의 통합화를 통해 청소년들로 하여금 나라사랑정신을 배우고 느끼고자 제일 먼저 방문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들을 비롯하여 교사 및 부모들의 경우에도 나라사랑정신을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손쉽게 찾고 응용할 수 있도록 사이트의 구조 및 구성에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서 국방부가 주관하여 '나라사랑 포털'(가칭)을 제작하고, 운용하는 방안은 인터넷과 SNS에 익숙한 청소년에게 나라사랑 정신을 친숙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교육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나라사랑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온라인 자원의 통합화를 실시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이러한 모든 과정을 국방부에서 지속적으로 주관하여 운용한다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軍이 주도하는 '나라사랑 포털'(가칭)에는 그동안 국가보훈처, 민족정기 선양센터, 꾸러기 보훈광장 등 다양한 기관에서 분산하여 활동하였던 내용들을 통합 및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라사랑 포털'(가칭)을 통해서 국내 및 해외 거주 청소년들이 나라를 느끼기 위해 방문하는 제1의 사이트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 및 부모들로 하여금 나라사랑에 대한 자료에 접근하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함으로써 명실공히 나라사랑 정신 교육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4) 6.25전쟁 참전국 및 물자 지원국 청소년 캠프 운용

매년 6.25전쟁 발발 즈음에 국방부가 주관하여 6.25전쟁 참전 및 물자 지원국의 청소년을 초청하여 우리 청소년들과 공통으로 국제캠프를 운용함으로써 청소년들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은 물론,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6.25전쟁 참전국의 참전용사 후손들을 초청하는 유사한 청소년 캠프가 시도된 적은 있으나, 이러한 행사들은 대부분 6.25전쟁에 대한 참전국 및 참전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국방부가 주관할 '6.25전쟁 참전국 및 물자 지원국 청소년 캠프'(가칭)에서는 외국에서 참가하는 대상자들 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약 1주일간 실시될 이러한 국제 청소년 캠프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은 나라사랑 정신을 고양함은 물론, 각국의 문화교류 및 미래지향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또한 이 프로그램에는 한국 청소년들과 나라사랑 대토론회, 한국어 학습, 문화체험 활동 등이 포함되어 진행될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참가하는 청소년들은 다음 세대의 주역으로서 한 나라의 전쟁을 넘어 세계평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미래를 이끌어나갈 세계 시민의식과 글로벌 리더십의 향상, 그리고 다양한 외국문화 체험을 통해 청소년의 문화간 소통능력 및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을 것이다.

3. 청소년 대상 나라사랑 교육의 효과 검증 방안

가. 개 요

기존의 연구에서 나라사랑 교육의 효과를 검증하거나, 혹은 효과 검증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국민들의 보훈의식지수를 조사함으로써 이를 통해 대략적으로 나라사랑 의식을 가늠하곤 했다. 다시 말해서 '나라사랑 의식=보훈의식'으로 이해하곤 했던 것이다. 또한 방법론적 측면에서도 보훈의식을 중심으로 인구통계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적인 분석이나 변수들 사이의 일차원적인 관계를 분석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러다보니 나라사랑 교육의 효과가 얼마나 되고, 실제로 국민들의 나라사랑 정신과 의식의 수준을 측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실시한 나라사랑 교육의 효과를 검증하고, 이들의 나라사랑 인식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측정방법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청소년의 나라사랑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나라사랑 의식변화 및 실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라사랑 의식 변화요인을 포함한 나라사랑 의식 변수들과 의식변화, 실천 행동과의 관계를 인과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청소년들의 나라사랑에 대한 인식이 나라사랑에 대한 의식변화로 이어지고, 나라사랑에 대한 의식이 변화하여 실천행동으로 이어지는 인과구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중·장기적 접근과 더불어 별도의 설명이론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나라사랑 의식 수준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라사랑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나라사랑이라는 개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어느 범위까지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정이 없이는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나라사랑의 의미와 범위는 명확하게 말이나 글로 표현하기 어려우며, 개인의 생각이나 느낌이 개인의 수준이 아닌 공동체 차원에서 해석되어야 하는 이원성이 존재하는 개념이다. 달리 말해서 나라사랑은 매우 포괄적, 추상적, 집적적인 개념이다. 일부 연구자들은 나라사랑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는데, 즉, "국가와 사회공동체 전체의 발전을 염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는 것,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 이러한 것들을 총체적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인용한 나라사랑의 의미를 달리 표현하면, 국가는 나라사랑의 의미가 국민에게 보다 친숙하게 느껴지도록 하기 위해서 보편타당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데, 이는 국민들이 국가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국가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자랑스럽거나 자연스럽게 여기게 되는 환경이 설정될 것이 때문이다. 또한 국가는 자신을 희생하는 구성원이나 그 가족들에게 부

족하지 않고 중단되지 않는 대가를 제공할 수 있어야 국민들이 국가에 대해서 충성하고 더 나아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나라사랑 의식을 갖도록 하고,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른 나라사랑 의식이 발현되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육이다. 이를 위해서 국가는 나라사랑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하는데, 근대 이후 모든 국가는 학교 교육을 통해서 나라사랑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과 올바른 국가관, 역사관을 갖추도록 교육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나라사랑 정신이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각종 체험을 통한 교육에 주안을 두고 있다. 또한 최근 국가의 국제적 위상이 상승함에 따라 국가는 국민들에게 건전한 안보의식, 국가관 확립, 미래지향적 역사의식, 높아진 국가의 위상에 적합한 자긍심과 책임감 함양 등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나. 기존 나라사랑 교육 효과 검증(feedback) 시스템 분석

앞서 지적한 대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나라사랑 교육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는 기관은 대체로 국가보훈처, 국립 현충원, 충무교육원 등이다. 특히 이 기관들은 청소년들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 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각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도 다양하다.

국가보훈처는 예하의 보훈교육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6개의 나라사랑 정신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증진을 위해서 참가자들에게 설문과 소감문 작성을 등을 실시하고 있다. 물론 보훈교육연구원에서 주관하는 각 프로그램들이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과 중복이나 교육의 필요성을 검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국립 현충원도 청소년 대상 나라사랑 정신 교육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으며, 특히 현충원 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점이 눈에 띈다. 마지막으로 충무교육원에서 운용하는 다양한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중에서 나라사랑 정신 교육은 인기가 많은 것으로 손꼽히고 있다.

그러나 세 기관에서 운용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실제로 참가하는 학생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증진시켰는지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교육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자세와 태도, 실제 교육 효과, 교육내용의 적절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피드백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위에서 언급한 세 기관은 대부분 자체적으로 교육 효과를 검증하고, 더 나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설문과 소감문 작성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가 공개되지 않지만, 각 기관은 설문을 통해서 각 교육에 참가한 학생들의 성향, 선호 등을 고려하여 다음 교육에

이러한 점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기관에서 공개한 참가자의 소감문 내용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나라사랑 정신 교육 프로그램의 방향을 재설정하는데 참고가 될 만하다. 예를 들면 충무교육원에서 주관한 나라사랑 정신 교육에 참가한 학생들의 소감문에서는 교육의 효과가 '나라사랑'보다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증진'이나, '학생 개개인의 자아성찰'에 가까웠다. 물론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청소년 개개인의 자아성찰이 진정한 의미의 나라사랑 정신과 무관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참가자들이 느끼는 나라사랑 정신의 교육 효과가 애초의 의도와 상이하다는 점은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軍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나라사랑 정신 교육에서도 최초에 의도한 것은 청소년들에게 나라사랑 정신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교육이 끝난 이후 실제로 그러한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다.

앞서 제시한 대로 군에서 실시하는 나라사랑 정신 교육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의식변화와 실천행동에서의 변화를 검증하여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의식변화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나라사랑 교육 체험 여부, 학년(연령) 유형, 성별(남녀) 차이, 거주지(도시, 농촌) 차이 등이다. 반면 실천행동을 반영하는 요소로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자긍심, 국가 공동체 참여 의식 등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을 반영할 수 있는 검정 시스템이 갖춰져야 할 것이다.

다. 나라사랑 교육의 효과 검증 방안

나라사랑 교육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012년 국가보훈처에서 주관한 학술연구이다. 이 연구는 청소년의 나라사랑에 대한 인식 정도, 나라사랑에 대한 의식변화 및 실천행동에 대하여 기존에 교육을 받은 학생과 받지 않은 학생으로 구분하여 차이를 확인하였다. 또한 학년 유형, 성별, 도시 유형을 구분하여 나라사랑 인식과 의식변화, 실천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구분하였고, 그러한 차이가 나라사랑 의식의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는 나라사랑 교육을 경험한 학생과 경험하지 못한 학생을 구분하여 과연 교육의 효과가 학생들의 나라사랑 의식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사하였다.

초등 및 중학생 3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조사에서 제시한 가정은 첫째, 자긍인식의 요인으로 사용되는 나라사랑 정신의 요소들을 측정하기 위한 자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신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타인의 나라사랑 정도에 대한

평가로 사용한다. 둘째, 참여인식 요인으로는 나라사랑에 대한 실천과 참여의지의 정도로 정의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지료는 평상시 군대 입대 의지, 국경일에 국기 게양 여부, 국가 위기 시 동참의지, 전쟁 시 참여의지 정도 등을 사용하였다. 셋째, 의식변화 요인은 나라사랑 교육을 참여한 후 나라사랑에 대한 의식의 정도로 정의하고, 교육체험 후 직접적인 의식의 변화가 있는지를 측정하였다. 넷째, 실천행동은 나라사랑에 대한 지속적 참여 및 적극적 추천 엽의 정도로 정의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는 다른 프로그램 참여 여부 및 친구에 대한 추천여부 등을 물었다. 마지막으로 활동의지는 나라사랑과 관련된 활동들의 중요도 인식 정도로 정의하고, 국가 독립, 전쟁 시 참여, 민주주의 수호, 질서 지키기, 경제발전 기여, 우리나라 홍보, 국제경기 응원, 국기 게양, 국가 위기 동참 등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조건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나라사랑 교육 참여를 통해 학생들의 의식이 변화하면 실천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는 중요한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학생들을 나라사랑 교육에 참가시켜는 것은 이들의 나라사랑 정신에 대한 의식변화와 연결되며, 이것은 결국 나라사랑 활동에 참여에 긍정적인 의식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라사랑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 타인이나 공동체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높을 것이라는 추정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론은 나라사랑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이 일반적이고 상시적인 행위보다는 위기나 전쟁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많은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것 역시 학생들의 국가공동체에 대한 의식의 특성을 보이는 점이며, 특히 나라사랑 교육에 참가하지 않은 학생들과 비교할 때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대도시와 중소도시, 남학생과 여학생, 나라사랑 교육 이수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학년 유형별 검증에서는 나라사랑인식, 의식변화, 실천행동 등 모든 면에서 초등학생이 중학생 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나라사랑 교육의 효과는 고학년보다 저학년에서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성별 유형별 검증에서는 나라사랑에 대한 참여인식은 여학생이, 의식변화와 실천행동에서는 남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학교 유형에 따른 검증에서는 일반학교보다 나라사랑 시범학교에서 더 높은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의 나라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도시 유형에 따른 차이 검증에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모두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발견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바로 나라사랑에 대한 실

천행동 의지는 자긍의식, 참여인식, 그리고 다양한 활동인식의 상대적 중요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다. 특히 나라사랑 교육이 학생들의 나라사랑에 대한 의식변화와 실천행동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곧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나라사랑 교육의 반드시 필요하며, 가능하다면 주기적, 반복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군에서 진행될 다양한 나라사랑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자의 설문을 예시로 제시한다. 예시로 제시된 설문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성된다. 첫 번째 예시는 다양한 형태의 나라사랑 교육에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이며, 두 번째 예시는 육군본부에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나라사랑 교육 표준교안에 대한 설문이다. 여기에서 제시하는 설문은 예시이기 때문에 각급 부대 및 기관에서 다양한 형태로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라사랑 교육 설문 (예문)

본 설문은 나라사랑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고, 향후 보다 발전된 프로그램으로 만들기 위해서 실시합니다. 여러분이 느낀 대로 솔직하게 답하시오.

1. 귀하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① 초등학교 1~3학년 ② 초등학교 4~6학년 ③ 중학교 ④고등학생

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3. 나라사랑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① 평소 나라사랑 및 국가안보에 관심이 많아서
② 프로그램이 흥미로워 보여서
③ 별 관심이 없었는데 학교에서 가라고 해서
④ 가기 싫었는데 강요에 의해

3. 이번이 몇 번째 참가입니까?
① 처음 ② 두 번째 ③ 세 번째 ④ 네 번째

다음은 여러분들이 참여한 **나라사랑 프로그램**에 관련된 문항입니다. 나라사랑 프로그램에는 <각 부대 병영체험>, <나라사랑 체험학습>, <안보현장 견학>, <육군 특전캠프>, <장군단 모교 방문>, <중학생 진로체험>, <청소년 호국수련활동>, <항공우주캠프>, <해병대 캠프>, <호국강연회> 등이 있습니다. **본인이 참가한 프로그램에 대해 응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 **<나라사랑 프로그램>**의 전반적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5. **<나라사랑 프로그램>**은 흥미가 있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6. **<나라사랑 프로그램>**의 내용 및 구성은 짜임새가 있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7. **<나라사랑 프로그램>**의 교육 기간은 적절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8. **<나라사랑 프로그램>**의 교육 장소는 적절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9. **<나라사랑 프로그램>** 교육 인원은 적절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10. **<나라사랑 프로그램>** 교육 담당 교관 또는 강사의 질은 어떠했습니까?
① 매우 높았다 ② 조금 높았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낮았다 ⑤ 매우 낮았다

11. **<나라사랑 프로그램>** 교육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을 높은 순서대로 세 가지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12. **<나라사랑 프로그램>**에 또 참가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13. **<나라사랑 프로그램>**을 통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14. **<나라사랑 프로그램>**을 통해 나라를 잘 지켜야겠다는 안보관이 생겼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15. **<나라사랑 프로그램>**에 대한 소감, 발전방향, 건의사항 등을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라사랑 교육 강의**에 관련된 문항입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느꼈던 바를 솔직하게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16. **나라사랑 교육 강의**의 전반적 내용 및 강사의 설명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17. **나라사랑 교육 강의**는 흥미가 있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18. **나라사랑 교육 강의**의 구성은 짜임새가 있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19. **나라사랑 교육 강의**의 강의시간은 적절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20. **나라사랑 교육 강의**의 강의실의 위치 및 규모는 적절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21. **나라사랑 교육 강의**를 담당한 강사의 질은 어떠했습니까?
① 매우 높았다 ② 조금 높았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낮았다 ⑤ 매우 낮았다

22. 다음의 교육 내용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고구려~일제 강점기를 통해 본 안보의식 및 군사력의 중요성
② 6·25전쟁 속의 고통 ③ 북한의 실체 ④ 우리나라 미래에 대한 청사진
⑤ 잘 모르겠음

23. **나라사랑 교육 강의**를 통해 기존에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과 다른 면이 있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24. **나라사랑 교육 강의**를 통해 이제껏 본인이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25. **나라사랑 교육 강의**를 듣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26. **나라사랑 교육 강의**를 듣고 나라를 잘 지켜야겠다는 안보관이 생겼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27. 6.25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어떠한 교훈을 얻었습니까? 자유롭게 기술해주십시오.

28. 북한의 실상을 알고 어떠한 교훈을 얻었습니까? 자유롭게 기술해주십시오.

29. 교육 후 국가 안보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까?, 왜 안보는 중요할까요? 자유롭게 기술해주십시오.

30. 나라사랑 교육 강의에 추가해야 할 내용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자유롭게 기술해주십시오.

31. 나라사랑 교육 강의에 대한 소감 및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기술해주십시오.

다음은 **군인이 되는 길** 강의에 관련된 문항입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느꼈던 바를 솔직하게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32. **군인이 되는 길** 강의의 전반적 내용 및 강사의 설명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33. **군인이 되는 길** 강의는 흥미가 있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34. **군인이 되는 길** 강의의 구성은 짜임새가 있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35. **군인이 되는 길** 강의의 강의 시간은 적절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36. **군인이 되는 길** 강의를 담당한 강사의 질은 어떠했습니까?
① 매우 높았다 ② 조금 높았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낮았다 ⑤ 매우 낮았다

37. **군인이 되는 길** 강의를 듣고 직업군인에 대한 흥미나 관심이 생겼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38. **군인이 되는 길** 강의를 듣고 직업군인이 되는 방법에 대해 잘 알게 되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39. **군인이 되는 길** 강의를 듣고 직업군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40. 직업군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직업군인이 갖는 혜택들이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41. **군인이 되는 길** 강의에 대한 소감, 건의사항, 발전사항을 자유롭게 기술해주십시오.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론적으로 2012년에 실시된 실험에서는 나라사랑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나라사랑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의 추가적인 실천과 행도의지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자긍의식, 군대 입대를 포함한 국가 공동체 참여의식, 그리고 국가공동체의 유지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의 상대적 중요성에 의해 결정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생들은 나라사랑 교육에 참가함으로써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러한 변화는 추후에 자신의 행동 실천에 대한 정당성을 제시하는 근간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에 대한 나라사랑 교육은 학생들의 의식과 행동 의지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서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나라사랑 교육 시행 시기 중 조기교육의 중요성이다. 나라사랑 교육 시작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며,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아이들의 인식이 시작되는 유치원에서부터 나라사랑 교육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공식행사마다 실시하는 애국조례를 관찰해보면 학생들의 소란, 무질서 등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의 성향이 자유분방하기 때문이며, 선생님들에 의한 통제도 기대하기 힘들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초등학교에서 시작되는 나라사랑 교육의 시기가 이보다 더 빠른 시기인 유치원으로 당겨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미국의 경우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는 나라사랑 교육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지만, 오히려 유치원에서 국기, 국가, 나라사랑 정신 등에 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특히 나라사랑 정신은 곧 올바른 시민정신의 함양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인들의 교육철학이 반영되어 한글, 영어 등을 교육하는 우리나라 유치원과 달리 미국의 유치원들에서는 올바른 행동과 사고, 질서 의식, 국가에 대한 인식 등을 심어주는 교육에 초점이 맞춰있다.

두 번째 시사점은 바로 청소년의 주변인에 대한 나라사랑 교육의 동참 및 확대 필요성이다. 무엇보다도 주 5일제 수업으로 인해서 과거에 비해 학교보다 집과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우리 청소년들에게 효율적인 나라사랑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에만 의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교육열이 높기로 유명한 우리나라 부모들에게 나라사랑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지시키고, 자녀들에게 이 교육에 적극적으로 동참토록 한다면 학교교육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요소들을 가정교육이나 부모 동참교육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제시하듯이, 다양한 나라사랑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효과가 높은 것은 바로 부모와 학생이 함께 참가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경우 교육과 정보를 접한 부모들은 자녀들을 대상으로 전달하게 되며, 자연

스럽게 가정 내에서 나라사랑에 대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더욱 발전시킨다면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우리나라 부모들에게 필요한 콘텐츠를 제공하면 자연스러운 평시교육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바로 나라사랑 교육의 정책적 지향점이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다수의 나라사랑 프로그램은 단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나, 나라사랑 교육의 본질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효과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특히 나라사랑 교육의 경우 오랜 교육을 통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므로 동질성과 일관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정치적 영향력을 받지 않고 순수한 목적에서 나라사랑 교육을 전담할 교육 기관이 필요하며, 이 기관에서는 정부 부서, 민간단체, 지자체 등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장기적이고 일관된 나라사랑 교육 정책을 주관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나라사랑 교육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지역 특색에 맞는 나라사랑 교육의 개발 필요성이다. 국민들이 느끼는 나라사랑 교육의 첫 인상은 고리타분하거나 신선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상 같은 내용이 아닌 새로운 내용과 신선한 시각의 교육 콘텐츠와 교육 방법의 발굴이다.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릴만한 요소들을 발굴하여 지역사랑 요소가 많이 가미된 나라사랑 교육이 된다면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이해가 선행된 이후, 나라에 대한 관심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기와 연관된 지역이나 주변에서 배출한 인물이나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고 관심을 갖는 것은 국가에 대한 관심을 갖기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V. 결 론

2010년에 북한이 자행한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과 같은 안보 위협이 발생한 이후 우리 청소년들의 국가관 및 안보관에 큰 변화가 생겼다.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론 및 의식조사의 결과에서는 약 5년 전에 청소년의 의식과 현재의 의식에 큰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계기는 바로 2010년의 북한에 의한 안보위협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청소년의 안보의식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나라사랑 의식과 태도를 나타내는 다양한 요소들에서는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6.25전쟁 발발 연도에 대한 질문의 경우 5년 전이나 현재나 정답을 알고 있는 청소년의 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바로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에서 나라사랑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우리 청소년들은 북한의 안보위협 등으로 인해서 심각한 안보위협을 느끼고 있지만, 이들의 위협을 뒷받침할 만한 적절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장차 국가 안보를 이끌어갈 우리 청소년들의 나라사랑 정신이 제대로 함양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종북, 친북, 연북세력의 활동으로 인해 사회불안과 안보 불감증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며, 나라사랑 정신에 근거하지 않은 통일교육으로 인해 일부 청소년들의 나라사랑 의식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 것도 현실이다. 또한 앞서 지적하였듯이, 과거 정권에서 실시하였던 통일교육 위주의 학교 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은 나라사랑 정신과 통일을 상반된 개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리고 핵무기 개발과 남침 위협을 앞세운 북한,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위험한 극우적 경향의 확산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안보가 처한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국민 모두는, 특히 청소년은 나라사랑 정신을 바탕으로 한 확고한 국가관과 안보관을 가져야 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지적하였듯이, 현재 일선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나라사랑 교육에 대한 각종 교육 인프라와 콘텐츠는 모두 실질적이지 못하며, 그 효과 역시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서 많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게다가 일부 확인되지 않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형태의 나라사랑 교육으로 인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건전한 국가관과 철저한 안보관을 심어줄 수 있는 나라사랑 교육이 절실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자신들이 태어나서 살고 있는 국가를 지켜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국가 수호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바 있는 영령들을 추모하는 것 역시 당연하다. 따라서 나라를 지키려는 숭고한 정신이야 말로

나라사랑 정신의 기본이며, 청소년들과 후손들에게 널리 강조해야 한다. 그러나 입시 위주의 학교 교육, 경쟁에 기반한 현대 사회의 메카니즘으로 인해서 우리 청소년드은 국가를 위한 희생의 가치를 낮게 여기거나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느낄 줄 모르는 게 현실이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軍이 미래의 안보 전사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나라사랑 정신 함양 협력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군대가 청소년들에 대한 나라사랑 교육에 앞장서야 하는 이유는 미래 국가발전의 주축이 될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나라사랑 정신'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야 말로 미래의 국가안보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대로 된 나라사랑 교육이 될 수 있는 교육체계를 개발하고, 올바른 나라사랑 정신을 교육할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여 교육하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순국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과 철저한 안보의식의 중요성을 한층 고양시킬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IT산업의 강국답게 G-세대에 걸맞는 건전한 청소년 안보의식 제고를 위해서는 학교 내부와 외부에서 실시되는 안보교육 실태를 분석하고,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콘텐츠 개발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우리 사회 전반에서 실시되고 있는 다양한 나라사랑 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이들 교육에서 청소년의 국가안보와 국가정체성에 대한 인식 평가를 통하여 청소년의 나라사랑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 정부의 다양한 기관에서 주관하고 있는 나라사랑 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서 청소년의 나라사랑 정신에 대한 의식을 분석하였다. 외국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 사례 소개, 미국, 중국, 일본의 나라사랑 교육 비교, 기존 나라사랑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서 향후 바람직한 청소년 대상 나라사랑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 군대가 협력 및 협조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참 고 문 헌

김정현, “중국의 항일전쟁 기념관의 애국주의와 평화문제,” 역사학연구, 제35집 (2009), pp. 177~212.

독립기념관, 『독립기념관 20년사』(천안: 독립기념관 편찬위원회, 2007)

목진휴 외, “나라사랑 교육의 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보훈논총, 제12권 2호, pp. 47~77.

미래경영개발연구원. “독립기념관 활성화 방안 연구,” 미래경영개발연구원 최종보고서, 2005.

박동규, 『이야기로 만나는 독립기념관』, (서울: 유앤아이, 2008)

보훈교육원,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효과적 교수학습 방법 연구,” 2010년 연구보고서

_____,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국가보훈 상징기능 관리방안 연구,” 2011년 연구보고서.

_____, “미국의 애국심 고취정책 연구,” 2011년 연구보고서

성신 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독립 및 국가수호 기념관 활성화 방안 연구,” 2011년 연구보고서

손정훈, “전시공간에서 체험공간으로,” 프랑스문화예술연구, 제35집 (2011), pp. 120~125.

_____, “인터프리테이션 개념의 프랑스 내 수용과 발전과정: 박물관과 역서 유적 내 교육 활동의 새로운 양상,” 프아스문화예술연구, 제22집 (2007), pp. 1~18.

_____, “프랑스의 ‘기억관광’ : 프랑스 전쟁 관광 개념의 형성과 전개,” 프랑스문화예술연구, 제38집 (2011), pp. 503~30.

송경옥, "'기억의 공간'으로서의 기념관에 관한 고찰: 역사교육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2006.

양동안 외, "국가 안보의식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2011년도 국가보훈처 연구보고서

여성가족부, "2011년 청소년 종합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 2012.

이정기 · 박민희, "<이승복 기념관>의 공간 스토리텔링을 통해 본 반공이데올로기 전시구현," 통일인문학논총, 제50집 (2010), pp. 233~76.

이효근. "독립기념관 이용실태 평가에 따른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립대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2006.

이희창 외, "세대간 나라사랑 특성 및 영향요인 비교," 한국보훈논총, 제11권 1호, pp. 49~79.

조은희, "남북한 박물관 건립을 통한 국가정통성 확립," 북한연구학회보, 제13권 (2008), pp. 299~335.

최병식, "국내외 사립 박물관 실태 조사 및 한국 사립 박물관의 장단기 진흥 방안," 한국사립박물관 협회, 2007.

(사) 한국정책과학학괴,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정책방안 및 진흥원 타당성 검토," 2011년 연구결과보고서

안전행정부 국민 안보의식 여론 조사 결과 : 2013년

행정안전부 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 결과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